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R MULTICULTURAL MISSION
- FOCUSING ON THE MEMBERS OF YOIDO FULL GOSPEL CHURCH –

다문화선교를 위한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를 중심으로 –

By
이 병인(Byoung-in Lee)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Los Angeles, California

May 2025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Approval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R MULTICULTURAL MISSION - FOCUSING ON THE MEMBERS OF YOIDO FULL GOSPEL CHURCH –

By

Byoung-in Lee

A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Approved:

Chairman:

Member:

Member:

Academic Dean:

Los Angeles, California

May 2025

ABSTRACT

Lee, Byoung-in.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r Multicultural Mission*, 2025.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Ministry. 174 pp.

South Korea is transition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placing greater demands on churches to enhance their roles in social integration and mission work.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multicultural mission practices among the members of Yoido Full Gospel Church and propose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Using surveys, this research measured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and analyzed its correlation with mission participation through a quantitative approach. The findings revealed that experiences of interaction with multicultural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ngagement in multicultural activities are key factors that enha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embers with higher acceptability were more likely to actively participate in multicultural mission activities. Furthermore, systematic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xperiences were shown to be essential in improving acceptability and expanding mission participation.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directions for developing effective mission strategies as Korean churches transition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by analyzing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mission activities.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church's mission and role in a multicultural context, based on biblical teachings of hospitality and inclusivity, highlighting the church's social responsibility to multicultural communities.

By introducing a new academic model linking multicultural mission and acceptability,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expanding missiological discourse and provides theoretical foundations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Korean churches and their members to meet the demands of a multicultural society and fulfill their mission.

Keyword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cultural mission, Yoido Full Gospel Church, hospitality, inclusivity,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education.

Mentor: Jae-Suk Lee, PhD. 261 words

개요(ABSTRACT)

이병인. *다문화선교를 위한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2025.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Ministry. 174 pp.

한국은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으며, 교회는 사회 통합과 선교적 역할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지수(KMAI)를 측정하고, 선교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양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다문화인과의 교류 경험, 다문화 교육 및 활동 참여가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나타났으며, 수용성이 높은 성도일수록 다문화 선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다문화 교육과 체계적인 경험이 성도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고, 다문화 선교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데 필수적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선교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공한다. 또한, 성경적 관점에서 환대와 포용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교회가 다문화 사회 속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공동체를 위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선교와 다문화 수용성을 연결짓는 새로운 학문적 모델을 제시하며, 다문화 사회에서 선교학적 담론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문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선교적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론적 토대와 실질적 전략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선교, 여의도순복음교회, 환대, 포용, 다문화인식, 다문화 교육.

Mentor: Jae-Suk Lee, PhD. 187 words

헌정(DEDICATION)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이 논문을 헌정합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아내, 당신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 여정을 완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 핸드폰에 있는 닉네임(여호와의 보배, 줄여서 “여보”)처럼 당신은 야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보내준 귀한 ‘보배’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가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가정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길 기도합니다.

항상 함께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다문화 사역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 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문화인들을 대하는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사역을 이어가며 그들이 이웃이자 친구로 느껴졌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저에게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곳으로, 다문화 축제, 다문화센터 사역, 외국어 예배 사역, 글로벌엘림재단 사역 등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문화 사역의 기회를 주신 이영훈 담임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저의 멘토로서 다문화 사역을 이끌어 주시고, ITS 신학대학원을 소개해 주셔서 학문적으로 정리하며 더 나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글로벌엘림재단 상임이사 권일두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든든한 동역자로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구영아 사무국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교수사역과 선교사역 가운데서도 사역과 학업을 겸하고 있는 부족한 연구자를 위해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주시고, 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이재석 교수님과 한우리 교수님, 이정우 교수님, 그리고 ITS 이사장이신 박기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 사역은 저에게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 장 9 절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의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이 저에게는 다문화인들의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비록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ITS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3 년 동안 묵묵히 내조해 준 사랑하는 아내 김영주와 큰딸 예진이, 둘째 준기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창

아빠와 놀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었을 텐데, 남편과 아빠를 위해 기꺼이 희생해 준 가족들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희생 없이는 이뤄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 다시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제 2 의 다문화사역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ABSTRACT iii
개요(ABSTRACT) v
헌정(DEDICATION) vii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viii
목차(TABLE OF CONTENTS) x
표 목록 (LIST OF TABLES) xiii
그림 목록 (LIST OF FIGURES) xv
CHAPTER 1 서론 1
1.1 연구배경 1
1.2 연구 목적 5
1.3 연구중심 질문 5
1.4 하위 질문 6
1.5 가정 6
1.6 연구의 제한과 한계 6
1.7 연구의 중요성 7
1.8 연구 개요 7
CHAPTER 2 다문화 선교와 다문화 수용성의 이론적 배경 9
2.1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 전환 9
2.1.1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 전환 원인 10
2.1.2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태도 전환의 필요성 12
2.2 다문화수용성의 이해 13
2.2.1 다문화수용성의 정의 13
2.2.2 다문화수용성 관련이론 15
2.2.3 연구모형 18
2.3 한국 교회의 다문화 선교와 다문화수용성 19
2.3.1 한국 교회의 다문화(이주민)선교 20
2.3.2 다문화선교의 유형 20
2.3.3 다문화 선교와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 22
2.4 다문화수용성의 개념 구성 요소 26
2.4.1 다문화수용성 측정 방법 27
CHAPTER 3 이주민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성경적-신학적 이해 28
3.1 이주민에 대한 성경적 이해 29
3.1.1 이주민의 어원적-신학적 이해 30
3.1.1.1 구약에서 나타난 이주민들에 관한 용어 30
3.1.1.2 신약에서 나타난 이주민들에 관한 용어 33
3.1.2 이주민의 용어들에 관한 성경적-신학적 이해 35
3.2 다문화 수용성의성경적 이해 38

3.2.1 구약에 나타난 환대와 포용 40
3.2.2 신약에서의 환대와 포용 52
3.3 한국교회의 다문화 선교를 환대와 포용 61
3.3.1 한국교회의 선교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62
3.3.2 한국교회의 다문화 수용성에 기반한 환대와 포용의 선교 68
3.3.2.1 환대 선교 69
3.3.2.2 포용 선교 72
CHAPTER 4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문화사역의 실제 77
4.1.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문화사역의 역사 77
4.1.1 초기 사역 (1990년대 ~ 2000년대) 77
4.1.2 다문화센터 설립 및 확대 (2010년대 초반) 78
4.1.3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 (2010년대 중, 후반) 78
4.1.4 최근 사역 (2020년대) 78
4.2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문화사역의 실제 79
4.2.1 국제사역국의 다문화사역 79
4.2.1.1 외국어예배 79
4.2.1.2 다문화센터 80
4.2.1.3 네트워크 사역 80
4.2.1.4 다문화축제 81
4.2.2 사랑과행복 나눔재단의 다문화사역 82
4.2.3 다문화선교회의 다문화사역 82
4.2.4 NGO 굿피플의 다문화사역 83
4.2.5 글로벌엘림재단(Global Elim Foundation)의 다문화사역 83
4.3 평가 및 향후 방향 85
4.3.1 환대와 포용의 관점에서의 평가 85
4.3.2 문화적 수용성이 다문화 선교에 미치는 영향 85
4.3.3 향후 방향 86
CHAPTER 5 연구 방법론 87
5.1 연구 질문 87
5.2 연구 방법론 88
5.3 연구 절차 88
5.3.1 연구 대상 88
5.3.2 설문지 89
5.3.3 데이터 수집 90
5.3.4 데이터 분석 도구 90
CHAPTER 6 분석 94
6.1 양적 연구방법 결과 95
6.1.1 인구통계학적 분석 95
6.1.1.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95
6.1.1.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검증결과 97
6.1.2 경험에 따른 분석 105
6.1.2.1 다문화경험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검증결과 105
6.1.2.2 다문화 선교활동과 다문화수용성 분석 120
6.1.3 신뢰도 검증 124

6.2 집단 간 차이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126
6.2.1 집단 간 차이 검증결과 126
6.2.2 상관관계 분석결과 127
6.2.3 다문화 경험 특성의 이원배치 분산분석 129
6.3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비교분석결과 130
6.3.1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134
6.3.2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분석 135
6.4 연구의 종합적 분석 평가 138
CHAPTER 7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 방안 144
7.1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문화 수용성 145
7.2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 146
CHAPTER 8 결론 151
8.1 연구결과 요약 151
8.2 정책적 제안 153
8.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4
부록 156
설문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 다문화수용성 조사 156
참고문헌(BIBLIOGRAPHY) 166

표 목록 (LIST OF TABLES)

[표 1]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 태도 진단도구 현황 92

[표 2] 인구통계학적 성별 특성 96

[표 3] 나이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97

[표 4] 직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99

[표 5] 학력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101

[표 6]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103

[표 7] 해외 여행 및 해외 거주 경험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105

[표 8] 이주민/외국인 친구 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107

[표 9] 이주민/외국인 관계 유형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109

[표 10] 다문화 교육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111

[표 11] 다문화 행사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113

[표 12] 다문화 봉사 활동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115

[표 13] 다문화 동호회 활동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117

[표 14] 다문화 기타활동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119

[표 15] 다문화 선교 및 행사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121

[표 16] 다문화 선교 및 행사 프로그램 참여 횟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123

[표 17] 측정 변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 125

[표 18] 집단 간 차이 검증 분석결과 126

[표 19]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128

[표 20] 나이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효과 검정 129

[표 21]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134

[표 22]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하위 영역별 지수 비교 결과 138

[표 23] 다문화 관련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차이 분석결과 141

그림 목록 (LIST OF FIGURES)

[그림 1] 연구 모형 19

[그림 2] 다문화 수용성 지수 계산 공식 93

[그림 3] 나이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98

[그림 4] 직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100

[그림 5] 학력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102

[그림 6]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104

[그림 7] 해외여행 및 해외 거주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106

[그림 8] 이주민/외국인 친구 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108

[그림 9] 이주민/외국인 관계 유형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110

[그림 10] 다문화 교육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112

[그림 11] 다문화 행사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114

[그림 12] 다문화 봉사 활동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116

[그림 13] 다문화 동호회 활동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118

[그림 14] 다문화 기타활동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120

[그림 15] 다문화 선교 및 행사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122

[그림 16] 다문화 선교 및 행사 프로그램 참여 횟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124

[그림 17] 다문화수용성조사 관련 비교대상별 성별 비교 132

[그림 18]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135

[그림 19]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국민 하위 구성요소별 다문화수용성지수 136

CHAPTER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된 배경을 이해하고, 이 변화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 노령화인구 증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많은 다문화가족과 이주민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다문화시대에 교회는 시대적 사명과 더불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을 높여 다문화선교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1.1 연구배경

2022 년 한국의 다문화인구는 1,151,004 명이다. 외국인 인구는 1,752,346 명이다. 290 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불법 거주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이 통계 수치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을 경우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2023 년 12 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50 만 7 천 584 명으로, 전년보다는 11.7% 늘어났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한다. 불법 체류 외국인까지

[1] "다문화인구통계", 통계청, 2023년 7월 27일 최종 수정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1501&conn_path=I2.
[2] "국내 이주 배경 인구증가", 한국문화홍보서비스, 2024년 3월 1일액세스,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1282.

포함하면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봐야 한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전혀 낯설지도 두렵지도 않게 되었다. 정미경은 다문화사회 진입과 관련하여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이민과 밀접한 국제적 환경의 분석요인들이 있다고 보았다.[3]

> 첫째, 전 세계적으로 인구 이동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둘째, 지식기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각국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인구 이동 증가에 대응하여 국경과 체류 관리가 강화되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과 다문화인들이 한국에 거주함으로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다문화적 이해 수준은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다문화인들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다. 유럽의 다문화 국가들을 보면,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 소수의 이주민들이 폭동과 종교간 갈등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다가올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들과 건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주 배경의 외국인들과 또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다문화 상황을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선곡유화 외 2 인에 따르면, 다문화 인식은 다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4] 그리고 선곡유화와 이영선은 다문화 인식과 태도는 다문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5] 또한 김금미는 다문화 행동의도는 다문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6]

다문화 인식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와 다양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문화적 열린 마음, 다양성에 대한 관심 등을

---

3 정미경, "다문화 사회를 향한 한국 기독교 이주민 선교의 방향과 과제"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2010), 3.

4 선곡유화외 2인, "청소년의 다문화행동척도 개발 및 타당화," *다문화교육연구*, Vol. 11 (September 2018): 50.

5 선곡유화와 이영선,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의도와 다문화인식,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 태도의 구조적 관계," *다문화교육 연구* 10, no. 3 (September 2017): 40.

6 김금미, "대학생의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다문화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 no. 2 (2010): 270.

포함한다. 다문화 인식은 개인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 인식과 더불어 요구되는 것이 다문화수용성이다. 다문화수용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른 문화와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차별이나 편견 없이 다양성을 포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문화수용성은 개인이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할 때 보여지는 행동과 태도를 반영한다. 그런데 2021 년에 발표된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를 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하락하는 추세이나, 청소년은 점차 상승하면서 2021 년에는 조사 실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7] 이런 통계는 한국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 2005 년 이후 한국교회는 성도 수가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 2015 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5 년 인구 주택 총 조사 전수 집계 결과"를 보면 개신교 성도들의 수가 967 만여 명에 이른다.[8] 2023 년 3 월 한목협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신교 인구는 771 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9] 이에 대해 연구자는 한국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지금 우리는 급속하게 이동된 다문화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인들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더 늦기 전에 한국 사회의 다문화상황을 이해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외국인주민)과 다문화인들을 선교하기 위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고, 다문화선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13 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다문화센터를 세워 다문화사역을 시작하였다. 10 여년 넘게 다문화선교를 이어오다가 2022 년 5 월에 비영리재단법인인 "글로벌엘림재단"을 설립하여 다문화사역을 펼쳐 나가고 있다.[10] 그런데 지금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가 참여하는 다문화선교는 그 참여도가 미미하였다.

---

[7]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여성 가족부*, 2024년 3월 1일 액세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501376.

[8] "2015년 인구 주택 총 조사", *서울신문*, 2024년 3월 1일 액세스, https://www.seoul.co.kr/news/life/religion-news/2016/12/20/20161220002009.

[9] "한국개신교인수", *한국성결신문*, 2024년 3월 1일 액세스, https://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13.

[10] 연구자는 글로벌엘림재단(www.globalelim.com) 재단 산하엘림 다문화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속한 기하성 교단도 마찬가지인데, 다문화 이주민선교에 있어 사역하는 교회가 타교단에 비해 적다고 보인다. 참고로,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는 주요 교단 소속의 단체 수는 예장 통합이 가장 많은 105 개이며, 그 다음으로 예장 합동(100 개), 감리교(50 개), 예장 백석(50 개), 예장 고신(40 개), 기성(33 개), 순복음(25 개), 기장(23 개), 침례교(20 개), 예성(20 개), 합신(5 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1] 연구자는 이주민선교에 참여하는 교단의 단체 수가 적은 것의 요인으로 성도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이 낮은 것 때문에 다문화선교에 영향을 미쳐 성도의관심과 참여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구자는 2003 년부터 다문화 사역에 헌신해 왔다. 그 시작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중국어 예배와 조선족 예배를 담당하며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안산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 축제를 준비하면서, 다문화 사역은 단순히 외국인이나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선교적 관점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다문화인을 섬기고 환대하며, 한국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성도들의 참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자는 이를 선교에 대한 열정 부족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는 교회 성도들의 다문화 인식과 수용성이 낮을 경우, 이는 다문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저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수용성이 다문화 행동, 특히 다문화 선교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회 성도들의 다문화 선교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11 "이주민 선교 참여 교단 현황", *한국기독공보*, 2024년 3월 9일 액세스, https://m.pckworld.com/article.php?aid=9809568937.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 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이 어떻게 다문화 선교 활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선교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론은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다문화수용성 지수와 다문화선교 사역 및 활동 참여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설문조사는 구글 폼을 통하여 온라인을 진행되며, 객관식 또는 평점 형식의 질문 목록으로 구성된다. 설문조사 결과를 데이터 형식으로 제시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 장소, 응답률 등 설문조사의 개요 정보를 독자에게 소개할 것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 분석을 통해 패턴, 상관관계, 집단 간 차이, 유의성을 검증하고 해석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대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또한, 양적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메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양적 연구 방법론은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 및 선교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 증진과 다문화선교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를 바탕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하고, 다문화 선교에 관한 설문은 접촉 경험 인식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하려고 한다.

1.3 연구중심 질문

이 연구의 중심 질문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수용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들은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선교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질문은 연구 목적과 직결되며, 다문화 선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4 하위 질문

첫째, 다문화 선교를 위한 다문화수용성의 성경적-신학적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문화의 수용성은 어떠한가?

셋째,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문화의 수용성은 다문화선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문화선교를 위해,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5 가정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선교의 관계: 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경우, 교회의 다문화 선교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고, 다문화선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6 연구의 제한과 한계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설문조사를 통해 한정된 표본으로 진행함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선교에 관한 연관성과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므로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적용 프로그램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실천 전략들의 개발과 실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시대를 선도하며 다문화 선교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포함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한국인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유학생, 이주 노동자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7 연구의 중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라고 이야기하며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수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갈수록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단적인 예로, 정부에서는 식당해서 일할 인력이 부족하자 동포비자(F-4)를 풀어 E-9 비자로도 식당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10 년간 비자 종류가 2 배로 늘어났다.[12] 정노화(2023)는 이주민은 인구문제 측면에서 장기 체류할 국민 수준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를 대응하는 이주민 선교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13]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물밀듯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대에, 코로나 19 이후 최근 한국 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그 의미가 있으며,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선교에 대한 연관성을 연구하는 측면에서도 한국 교회의 선교적 역할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사역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문화사역 활성화를 위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1.8 연구 개요

본 논문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선교 활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2 정노화 외 3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체류외국인에 미친 영향 분석,” *다문화와 평화*16, no.1 (2022): 142.

13 정노화, “국내 이주민 체류현황과 변화," *KIMA포럼*, no. 2(2023): 29.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연구 질문 및 가정, 연구의 제한과 한계, 그리고 연구의 중요성을 다루고, 연구의 전체적인 구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 2 장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교회와 선교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과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이 어떻게 선교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이주민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성경적·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다문화 선교의 필요성과 교회의 역할을 논의한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재조명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이주민을 환대하고 섬기는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4 장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다문화 사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과 그 결과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회가 다문화 선교에 기여한 사례를 분석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5 장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과 선교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6 장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다문화 수용성과 선교 행동 간의 연관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 질문과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 7 장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도들의 다문화 선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한국 교회 내 다문화 사역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 8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과 선교 행동 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제안된 전략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HAPTER 2
다문화 선교와 다문화 수용성의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선교의 이론적 배경을 다루고자 한다. 방대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핵심 개념과 이론들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이들 간의 상호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자가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 선교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2.1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 전환

통계청이 2024 년 2 월 28 일 발표한 '2023 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 만 명으로 전년보다 1 만 9,200 명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 기록이다. 출생아 수는 2015 년 이후 8 년째 급감하고 있으며, 전년 출산율 감소폭은 -7.7%로, 전년(-4.4%) 대비 대폭 커졌다. 합계출산율도 여지없이 떨어졌다.[14] 2023 년 합계출산율은 1 년 새 0.06 명이 줄면서 0.72 명을 기록했다. 특히, 4 분기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 명대인 0.65 명으로 집계됐다.[15]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NYT) 칼럼을 인용,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 명이라는 점을 들며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 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16]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는 것이 '다문화' 이다. 2024 년 3 월 현재 국회전자도서관에서 박사학위논문을 '다문화' 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총 12,697 건이

---

14 합계 출산율이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15 "출산율 또 역대 최저 ... 인구소멸 위기 '성큼'", 메디컬뉴스, 2024년 3월 4일 액세스, https://mobile.hidoc.co.kr/healthstory/news/C0000865901.

16 "인구 감소, 흑사병 때 보다 빨라", 조선일보, 2024년 3월 3일 액세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12/03/DY4M57RRIVCC5JGFCWABKU5QVI.

검색된다. 다문화에 대한 연구가 2000 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한 분야의 논문이 시간에 비해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만큼 이 시대에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다. 비단 박사논문 뿐만 아니라 뉴스 매체에 거의 매일 다문화는 빠지지 않고 뉴스 기사로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많은 연구와 뉴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다문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사용된 "'다문화사회'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 집단들이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함으로써 형성되는 사회를 의미"한다.[17] 이런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이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는 국내의 이문화(異文化), 이언어집단(異言語集團)의 불만을 받아들여 국가의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통합정책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8] 하지만, 다문화사회란 단순히 다국적인 외국인의 유입으로 외국 문화가 문화적으로 다양해지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구조와 제도가 다문화 현상을 반영하고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임을 인정하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19]

2.1.1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 전환 원인

김경아 등(2008)은 한국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 여성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남녀 성비 불균형과 같은 사회적 요인뿐 아니라 결혼 적령기 여성들의 농촌 결혼 기피, 도시 빈곤층 남성과의 결혼 회피 경향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지적했다.[20]

김홍수는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첫째 탈냉전과 정보화로 인한 한국문화와 세계 문화와의 활발한 교류가 확대되고 사람들의 교류 또한 활발해졌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 및 문화교류 확대와 함께 국제이주로 인한 한국사회가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변화해

---

17 김경식외 8인공저, *다문화사회의이해* (서울: 도서출판신정, 2012), 14.

18 김경식, *다문화사회의이해*, 15.

19 박성호, "한국의 다문화 형성과 종교의 역할," *종교와 문화*, 제22호(2012): 158.

20 김경아 외 2인, "창조적 다문화 시민사회 조성방안 연구," *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2008): 3.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21] 정미경은 다문화사회의 변화 요인을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구분했다:

> 먼저 국제적 요인은 인구이동과 세계화를 뽑고 있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저출산 문제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위기상황,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해 생긴 남녀 성비의 불균형의 문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및 우수인재 유치,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상의 높아짐과 한류열풍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마디로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22]

김경아와 정미경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의 주된 원인을 국제적인 요인으로서 인구 이동과 국내의 요인으로서 국제 결혼으로 이주 여성들의 증가와 노동력의 유입을 제시했다. 이들의 분석은 한국 사회가 시대별로 국가 정책에 의거하여 노동력 수입과 국제 결혼 장려의 정책과 맞물려 다문화 사회로 성장했다는 김만하의 주장과 일치한다.[23]

법무부의 2023 년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507,584 명이다. 코로나 기간(2019-2022 년) 감소했다가 2023 년까지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24] 장기 체류자는 1,881,921 명익 단기 체류자들은 625,663 명이다. 이들 중 유학생들이 2019 년에 180,131 명 이였고, 2023 년에 226,507 명으로 증가했다.[25] 취업 이민자들 역시 전문인력의 증가가 눈에 띈다. 2019 년 46,581 명에서 2023 년 72,146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단순 취업이민자들이 2019 년에 520,680 명에서 2021 년에 361,526 명으로 감소했다가 2023 년에 450,425 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결혼 이민자들은 2019 년 166,025 명에서 2023 년 174,895 명으로 늘어났다.

2024 년 법무부 통계에서, 외국인 체류자들의 증가 원인 중 전문직 취업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민자들의 증가는 다문화 가족들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런 이유들로, 2010 년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

21 김홍수, "전지구화시대의 다문화 한국사회와 시민권," *동북아문화연구*, no.18 (2009): 525.

22 정미경, "다문화사회," 57.

23 김만하, "한국 군간부 다문화수용성 영향 요인 연구: 다문화교육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2018), 73.

24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2024년3월27일접속.

25 이들 중 한국어 연수를 위해 체류하는 학생들이 7만명 대이다.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7344, 2024년3월27일접속.

체류 인구가 1,261,415 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24 년에는 그 인구 수가 두 배로 늘었다. 이는 지난 15 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점진적인 전환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26]

2.1.2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태도 전환의 필요성

2000 년대 중반부터,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휘원은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에서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 첫째, 시민적 권리 부여와 자질 육성을 정책으로, 정부가 다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시민적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 다문화 네트워크로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으로, 다문화정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부분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산발적, 간헐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지방정부, 지역공동체와 협력적 다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셋째,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다문화정책은 문화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넷째, 다문화정책의 전제로서 기존 사회의 다양성을 먼저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을 요구했다.[27]

강휘원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진입하여 시민으로서 정체성과 다양성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의 구축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한국인들이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박영천은 한국 사회 내의 차별적 상황이 국제 사회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정부가 다른 국가 출신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책 마련과 함께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한다.[28]

---

26 박성호, "한국의 다문화형성과 종교의 역할," 160.

27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no. 2 (2006): 24-30.

28 박영천, "다문화 사회의 사회 통합적 기독교 선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2011), 80.

현재의 한국 사회는 지역, 장애유무, 동성애, 계층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가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서로 다른 문화적 취향과 생활 태도에 대해 아직까지 이해와 포용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타문화를 수용함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다문화에 올바른 인식을 통해 다문화를 제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과 수용이 없다면 결과는 차별, 편견, 방치, 학대 등으로 나타날 것이며 심지어는 범죄로 이어지고, 한국 사회보다 먼저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미국과 유럽처럼 다양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다양성 존중 및 올바른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함으로, 진정한 사회통합과 글로벌 시민사회로서의 기반을 이룩해 가야 한다. 이는 다문화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이 있다.

2.2 다문화수용성의 이해

2.2.1 다문화수용성의 정의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은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편견 없이 타 문화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존중하며,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 왔으며,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포용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된다(박광영 2018; 김현정과 유두련 2019; 방은숙 2020; 남보영과 홍이준 2021).

그들 중 박광영은 조화로운 관계와 협력을 중시하며, 출신 지역이나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여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총체적 태도를 지향하는 것이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보았다.[29] 방은숙은 다른 문화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29 박광영,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대학원, 2018), 21.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을 인정하며, 다른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정도라고 이해한다.[30]

남보영과 홍이준은 방광영과 방은숙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다문화 사회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라고 제안한다.[31] 그들은 수동적인 측면에서 수용을 의미하지 않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사회가 전환되는 것을 옹호하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는 것을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보았다.

이들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에서 기술하는 문화수용성의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이 개념은 다문화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를 향해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존중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출신 지역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세계 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려는 포괄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김만하는 그의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을 조직에서 다양한 인종·종교·문화 등을 지닌 구성원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문화와 똑같이 인정하며, 모두가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는 태도로 정의했다.[32] 그는 다문화의 개념을 문화에 국한시키지 않고 종교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평등한 공존 관계를 다문화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로 이해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인종적 배경을 가진 소수 집단의 구성원을 주류 집단에서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30 방은숙, "주일학교 교사의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0), 8.

31 남보영과 홍이준, "외국 이주민과의 직접 접촉경험과 다문화수용성 – 간접 접촉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 no. 3 (2021): 164.

32 김만하, "한국 군간부," 21.

2.2.2 다문화수용성 관련이론

오늘날의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적 환경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다문화수용성은 개인과 커뮤니티가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필수적인 역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문화수용성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사회적 통합과 상호 존중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문화수용성의 이론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심리학적 이론과 사회문화적 이론이 있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사회심리학적 이론으로는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고정관념과 편견 이론(stereotype and prejudice theory), 접촉 이론(contact theory)이 있으며, 사회문화적 이론에는 문화적응 이론과 간문화 감수성 발달 이론(development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의 어떤 요소가 다문화선교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그 이전에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타인종과의 접촉경험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33]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경험, 교육 및 활동 경험이 어떻게 교회 성도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다문화수용성의 어떤 요인이 다문화선교에 영향을 미치는지 접촉이론(contact theory)을 근거로 살펴보려고 한다.

접촉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 또는 대중매체, 교육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종,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접촉이론은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집단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편견을 줄이며,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받는다. 이 이론은 원래 미국의 인종 문제 연구에 적용되어 왔으며, 접촉이론(contact theory)이라고도 불린다.[34]이러한 접촉에는 개인이나 집단이 직접 만나

33 남보영 홍이준, "외국 이주민,” 186.

34 김만하, "한국군 간부,” 73.

상호작용하는 경우로, 일대일, 일대다수, 다수 대 다수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직접접촉과 대중매체나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른 문화나 집단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간접접촉이 있다. 접촉이론(contact theory)의 대표적 학자인 Allport 는 집단 간에 고정관념과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조건으로 동등한 지위, 공동의 목표, 집단 간의 협력, 권위·관습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35] 이후 많은 집단 간 접촉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Allport 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집단간 접촉은 여전히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있었다.[36] 접촉이론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적용되어 왔으며, 인종, 민족, 성별, 세대, 계층 등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이론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의 상호존중과 이해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외국 이주민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은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외국 이주민과 직접 교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로 뒷받침된다. 특히,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빈도가 높을수록, 또는 가족, 친구, 학교 동료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람들 중에 외국이주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경 외 2 인은 외국인 혹은 일상생활에서 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에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주민이나 그 자녀와 친구, 이웃 등으로 지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각적 접근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37] 남보영과 홍이준의 2021 년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친구와의 자주 있는 교류는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35 홍창현, "공군 장병의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37.

36 전소희 김은서,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접촉 경험과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4, no. 2 (2023): 184.

37 박미경 외2인,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잠재 프로파일 유형과 영향 요인,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6, no. 4 (2022): 48.

나타났다.[38] 이는 외국인 친구와의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이 빈번할 수 록,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이해도가 더욱 향상됨을 시사한다. 또한 남보영과 홍이준은 2018 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접촉 유형별 다문화수용성을 살펴본 결과, 피상적인 접촉보다 친밀한 접촉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분석했다.[39] 이와 같은 결과는 전소희와 김은서의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40] 또 다문화교육 경험 여부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 및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먼저 직접 효과의 경우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1] 방은숙은 주일학교 교사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다문화수용성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다문화경험과 다문화수용성의 상관관계에 있어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공식적 경험 중 다문화교육 경험은 다양성 및 관계성과, 다문화교육 횟수는 다양성과, 다문화활동 경험은 관계성 및 보편성과, 다문화활동 횟수는 보편성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다양성의 경우 다문화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와 다문화교육 횟수가 많은 경우 더 높아지고, 관계성은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높아지며, 보편성은 다문화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와 다문화활동 횟수가 많은 경우에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다양성은 다문화교육, 보편성은 다문화활동의 여부 및 횟수와 보다 관련이 있으며, 관계성의 경우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활동 여부 모두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42]

그러나 간접접촉의 다문화경험인 경우에 일부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연구도 있었다. 서미경은 청소년의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매체노출빈도가 많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이주민에 대한 보도는 항상 긍정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자극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이슈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의 학대, 가정폭력, 인권침해,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 등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사례들이 주로 보도되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매체의 부정적인 내용에 노출될 경우, 왜곡된 편견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

38 남보영 홍이준, "외국 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과 다문화수용성 – 간접접촉 유형에 따른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37, no. 3 (2021): 198, 181-208.

39 남보영 홍이준, "외국 이주민," 198.

40 전소희 김은서,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197, 179-206.

41 전소희 김은서, "한국인," 198.

42 방은숙, "주일학교 교사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0), 55.

> 사고로 이어진다. 결국, 매체를 통한 외국인과의 접촉 내용이 접촉 횟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내용과의 접촉은 다문화 수용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현상은 매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열등한 타자로 집단 정형화하는 왜곡된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43]

다문화수용성 이론의 접촉이론(contact theory)에 따르면 대부분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킨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접촉이론을 통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경험을 설문 조사하려고 한다. 조사는 공식적 경험과 비공식적 경험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공식적 경험에는 다문화 교육 경험, 교육 횟수, 다문화 활동 경험이 포함되며, 비공식적 경험은 해외여행 및 체류 경험, 외국인 동료와의 교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경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다문화수용성의 어떤 요인이 다문화선교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의 선교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2.2.3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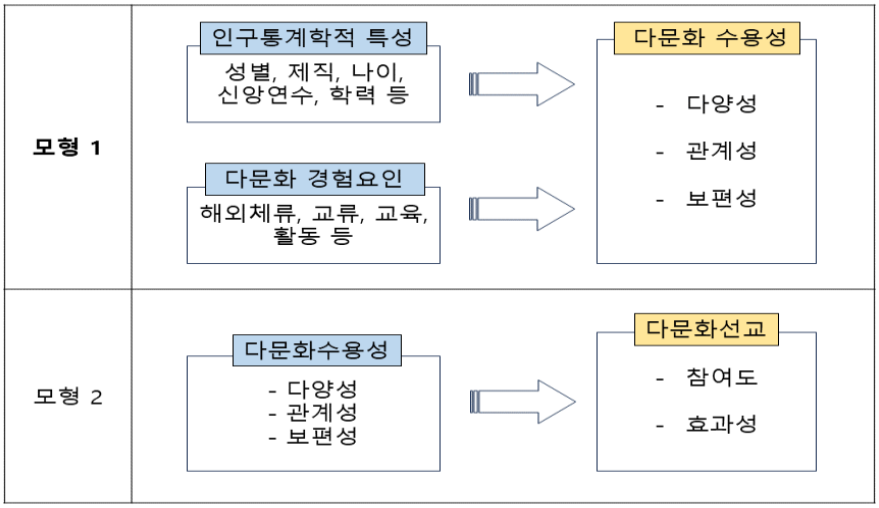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 모집단에서 층화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다문화 경험 특성을 바탕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조사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선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 모형을 설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모형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성도, 신앙 연수, 학력 등이 있다. 다문화 관련 경험 특성으로는 이주민과의 교류·관계, 해외여행 및 해외거주 경험, 다문화 교육 및 활동 참여 등의 요인이 있다. 두 가지 요소를 통해 다문화수용성의 구성요소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43 서미경, "청소년의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4), 81.

또한, 연구모형 2 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다문화선교 사역과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효과적인 다문화선교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1 과 같다.

연구 가설은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높은 성도들이 다문화선교 사역 및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독립 변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 지수이고, 종속 변수는 다문화선교 사역 및 활동의 참여도 및 효과성이다. 조절 변수는 성별, 연령, 신앙연수, 교육 수준 등 성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신앙적 배경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2.3 한국 교회의 다문화 선교와 다문화수용성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사회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 역시 선교의 범위가 한국 사회에 분포하는 다문화 다인종들을 포용해야

한다. 그것은 다문화 선교에 대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과 함께 정책 개발의 당위성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44]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리적 타문화권이 선교지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다인종들을 선교하는 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선교이다. 나아가 더이상 다문화선교가 해외나 국내로 파송 받은 선교사만의 영역이 아니고 또한 선교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명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국내체류 외국인과 다문화인을 환대하고 포용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로서 선교이어야 한다.[45] 이러한 인식 하에서 한국교회의 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수록 다문화 선교의 범위가 확장되고, 성도들의 헌신도 높아지고, 사역이 활발해질 것이다.

2.3.1 한국 교회의 다문화(이주민)선교

"다문화선교"란 용어에 관하여, 자료조사와 통계 연구에서 "이주민선교"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과의 연관성과 때문에 "다문화 선교"라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2.3.2 다문화선교의 유형

다문화선교는 사역 형태에 따라 교회 부설, 이주민 기관(법인, 비영리단체), 이주민 선교기관/센터, 교회와 선교기관의 복합형태, 이주민 교회, 자조모임/독립외국인 교회, 기타로 나뉜다.[46] 초창기 교회 부설의 형태로 시작되었던 다문화선교가 사역 현장의 형편, 상황,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44 장훈택, *선교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사회* (서울: 두란노, 2011), 31-46.

45 박찬식 정노화, *다문화사회와 이주자선교* (서울: 기독교 산업사회연구소출판사, 2009), 143; 황종하, "한국교회의 다문화목회유형연구", 187.

46 구성모 외 6인공저, *다문화선교* (서울: CLC, 2015), 308.

다문화교회는 다문화사회 모형과 연결되는데, 한국적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를 향해서는 4 가지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47]

1) 분리 모델(분리된 게토 모델)과 한국교회

2) 멜팅 포트 모델(통합적 동화 모델)과 한국교회

3) 샐러드 볼 모델(다문화적 모자이크 모델)과 한국교회

4) 문화상호교류적 모델과 한국교회

> 문화 상호교류주의 모델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주류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지 않는다. 이 모델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작용과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샐러드 볼 모델에서 각 구성 요소가 본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문화 상호교류적 모델에서는 다양한 인종의 문화적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 나간다.

다문화 선교의 대상에 따른 분류에서는 이주민 노동자 선교, 결혼 이민여성 선교, 이주민 가정 자녀 선교, 유학생 선교, 난민 선교가 있다.[48] 황종하는 다문화선교에 있어 '정주자(定住者)'와 '비정주자(非定住者)'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 사역 대상 별로 목회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결혼이민자와 자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정주자(定住者)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방향'으로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이 포함된 비정주자(非定住者)에 대해서는 '역파송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49]

연구자도 이에 동의한다. 다문화 선교를 할 때는 대상별로 전략을 분명히 하고, 또 전략에 맞게 그 방법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주자(定住者)'를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한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교회가 단순히 영적인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통합의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비정주자(非定住者)'에 대한 역파송 전략은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등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본국이나 제 3 국에서 선교 활동을

---

47 노영상, "다문화사회속에서의 교회의 역할모델에 대한 탐구," 칠봉산 블로그. 2024년 3월 9일, https://blog.naver.com/karamos/80153213376.

48 황홍렬 외 4인, *이주민선교: 기초조사보고서* (서울: 꿈꾸는터, 2013), 44.

49 황종하, "한국교회의 다문화목회 유형연구"(박사학위논문, 개신대학원대학교, 2020), 187.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 전략은 비정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지는 것이다.

2.3.3 다문화 선교와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

2019 년 12 월, 다문화선교에 참여하는 주요 교단 소속의 단체 수는 예장 통합이 가장 많은 105 개이며, 그 다음으로 예장 합동(100 개), 감리교(50 개), 예장 백석(50 개), 예장 고신(40 개), 기성(33 개), 순복음(25 개), 기장(23 개), 침례교(20 개), 예성(20 개), 합신(5 개) 등의 순으로 총 405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50]

김영애가 2021 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선교 대상국가가 단일국가보다는 다국적(다민족)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에 있어서도 초창기 이주민선교는 이주 노동자였다가 그후는 다문화가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다문화가정 자녀, 유학생 및 난민까지 확대되었다고 했다.[51] 2015 년에, 최신일이 95 개의 이주민 사역 교회가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문을 닫았다고 조사한 사례연구와 비교해 볼 때, 2021 년 한국 교회는 다문화 선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52]

이와 같이 한국 교회는 다문화 선교에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의 주된 이유들 중 하나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수용성 증가로 인해 다문화에 대한 태도의 전환과 더불어 교회들 역시 다문화 사회와 그것의 수용 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53] 서미경은 단순히 다문화경험의 유무나 빈도보다 다문화경험의 질적인 측면, 즉

---

50 한국 기독공보, “교단 이주민선교 참여현황.”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9809568937, 2024년 3월 9일접속.

51 김영애 외, *이주 다문화 그리고 다양성* (서울: CLC, 2021), 129.

52 최신일은 전문지식과 교육의 부재, 예산의 부족이 단초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례연구를 통해 제안하기를 이제 대형교회와 한국교회의 교단이 직접 나서서 그 사역을 대신 감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최신일, "한국교회의 이주민선교 실태 및 개선방향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2015], 165). 그러나 이 부분은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문창선이 말하는 지역교회의 이주민 선교의 연계 형태를 보면, 10 가지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데 얼마든지 대형교회 부설 형태가 아니고서라도 다문화선교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문창선, "교계의 이주민선교 흐름과 전략 방안," *글로벌 엘림 다문화컨퍼런스* [2023]: 55-57).

53 김이선,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2), 44. 2021년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27점으로 71.39점인 청소년에 비해 19.12점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경험 후 변화된 긍정적 효과나 동기화 되어있는 부분들이 다문화수용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54] 교회는 다문화와 접촉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이 일반 한국인보다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방은숙은 주일학교 교사의 다문화경험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주일 학교 교사들의 다문화수용성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다문화교육 경험은 다양성 및 관계성과, 다문화교육 횟수는 다양성과, 다문화 활동 경험은 관계성 및 보편성과, 다문화 활동 횟수는 보편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식적 경험 중 다문화교육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20% 정도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횟수는 2.7회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 경험도 주로 다문화행사와 자원봉사 활동이었으며, 공식적 다문화경험에 포함된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 활동 모두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고 했다. 이것으로 볼 때 실제 교회 안에서 다문화 경험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늘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문화 수용성을 더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55]

방은숙은 한국교회가 다문화 사회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고 보았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은 한국인들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게 만들고 있다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이다. 모든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다문화 선교에 개방적이라 볼 수 없다. 이원기는 그의 연구에서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

> 이 연구는 이주민 대상 목회 경험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것으로,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았다. 또한, 다문화 목회자가 일반 목회자보다 수용성이 높았으며, 이주민 대상 목회 경험이 있는 목회자는 경험이 없는 목회자보다 더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 일반 목회자 중에서도 이주민 대상 목회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목회자에 비해 이주민에 대해 개방적이며 교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6]

이원기는 다문화 사역에 참여하는 목회자들과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해 주고 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0.17점 상승하였으나, 성인은 0.54점 하락하였다. 최근의 조사결과를 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하락하는 추세이나, 청소년은 점차 상승하면서 2021년에는 조사 실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54 서미경,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정책대학원, 2014), 82.

55 방은숙, "주일학교 교사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55.

56 이원기, "한국 개신교 목회자의 이주민 대상 목회 경험과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교육대학원, 2021), 52.

게다가 여전히 다수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다문화 선교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회 내에서 신자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유지은은 한국 기독교인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연구를 하면서, "교회 내 다문화 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 공감 능력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볼 때 향후 한국교회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성별에 관계없이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57] 이는 비록 한국사회에서 교회들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이유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인식의 전환 때문이긴 하지만, 여전히 교회와 신자들이 다문화 선교를 위해 수용성을 교육을 통해 그들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김영애는 2021 년 그녀의 저서에서, 이주민선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에 관하여 전문사역자 부족(78%), 이주민선교의 인식부족(70%), 협력(또는 연합)선교의 부족(48%), 이주민선교 신학의 정립(18%) 등이라고 했다.[58] 김영애의 분석은 유지은의 주장과 같이 한국교회가 교육을 통해 다문화 선교에 대한 이민자 신학, 전문인 사역자와 협력 선교의 토대 위에서, 인식의 전환을 가질 때,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선교에 헌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연구자 역시 다문화선교를 위해서 다문화수용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교육과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동의한다. 하지만, 다수의 선행 연구물 들에서 대형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 선교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물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우리사회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어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특히, 연구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선교의 관계에 대해 케이스 스터디 할 필요성을 발견했다.

---

57 유지은. "한국 기독교인의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학논단* 제93집 (2018): 108.

58 김영애 외, *이주 다문화 그리고 다양성*, 127.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외국어 예배 중심으로 다문화사역을 진행해 오다가 2013 년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 다문화센터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다문화사역을 시작하였다.[59] 연구자도 설립 당시부터 초반까지 다문화사역 담당으로 사역을 했다. 또 교회에서는 2013 년 처음으로 '다(多)함께하는 다문화축제'를 통해 다문화인들과 성도들의 소통을 도모하고 다문화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축제에서는 다문화인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출신 국가별로 음식 축제, 전통의상 시연 및 전통악기 공연 등 다채롭고 이색적인 문화체험을 성도들이 경험하도록 연구자가 기획하여 진행한 경험이 있다. 특히 이 축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사역국 사역자들과 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중에서도 현지인 사역자들의 도움이 컸다.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사역국에는 7 개 언어의 외국어예배가 있었는데 현지인 사역자와 외국인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권역별로 부스를 만들어 각 나라를 홍보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문화 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하고, 다문화인들을 섬기며 함께 다문화선교를 펼쳐 나가도록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문화사역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 12 여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져 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사랑의 구제금 지원, 생필품 및 후원금 전달, 다문화가정 부모초청 행사, 다문화 친구초청 행사, 한국어교실 운영, 다문화 자선 나눔 콘서트, 나라별 다문화축제 개최(중국의 날, 베트남의 날 등),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전달,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 다문화가정 초청 설 및 추석맞이 행사, 다문화인 신학생 장학금 전달 등이 있었다. 2019 년부터는 다문화선교회를 설립하여 다문화 사역교회를 방문 지원하였고, 코로나 19 시기에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에 쌀과 마스크 등 지원을 이어 나갔다. 연구자는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다문화 사역을 하다가 해외 선교사로 파송 받아 사역한 후 2019 년말 귀국한 후에 다시 2022 년말부터 다문화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자가 느끼기에 12 여년이 지나도 다문화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도에는 크게 나아져 보이지 않는 것 같다.

59 순복음가족신문, "우리교회, 안산 원곡동에 다문화센터 건립."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4&second_category_id=23&id=94234, 2024년 3월 30일액세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다문화사역에 대해 그 중요성을 알고 일찍 12 여년 전부터 강조해왔다.[60] 2013 년 신년대담에서 이영훈 목사는 “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200 만 시대라고 하는데 그들이 돌아가면 자국의 선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화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 년부터는 교회 안에서의 다문화사역에 그치지 않고, 영역을 넓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글로벌 시민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비영리재단인 “글로벌엘림재단”을 설립하였다.[61] 지금도 재단을 중심으로 많은 다문화행사와 다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성도들의 반응은 적극적이지 않다. 연구자가 판단할 때, 그 요인 중의 하나가 교회 중심의 다문화선교나 행사가 아니라, 교구나 선교회의 성도 중심의 다문화선교 활동이 부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해 언어적, 문화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이 다문화인들에 대한 두려움, 소통 방법 부재 등 다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문화 수용성에 있어서 교육의 부재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250 만 다문화인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껏 성도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환대하며 어떻게 접촉해야 할 지 등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다. 연구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교회가 다문화사역을 12 여년 넘게 진행해 오고 있는데 왜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할까? 이런 측면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인식과 거기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활발한 다문화선교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와 분야에 전략을 수립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지 연구가 필요하므로 케이스 스터디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2.4 다문화수용성의 개념 구성 요소

연구자는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 선교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에서 제시한 다문화수용성 측정 변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다문화

60 순복음가족신문, “이영훈 목사 신년 대담.”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3&second_category_id=252&id=123214, 2024년 3월 30일액세스.

61 글로벌엘림재단, “이사장 인사말.” https://globalelim.com/chairman-address, 2024년 3월 30일 액세스.

수용성 진단 척도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차원과 8 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다양성 항목은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과 차별을 포함한다. 둘째, 관계성 항목에는 일반적 동화 기대, 거부 및 회피 정서, 상호 교류 의지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보편성 항목은 이중적 평가와 세계 시민 행동 의지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를 기반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을 비교하려고 한다. 이 도구는 이주민이 아닌 주류 집단, 즉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양성 차원은 주류 집단이 자신들의 국민 정체성과 민족적 문화를 우월하게 여기는지, 또는 이주민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동등하게 수용하는지를 평가한다. 두 번 째로, 관계성 차원은 주류 집단이 이주민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지를 나타내며, 이주민과의 통합 의지 정도를 측정한다. 세 번 째로, 보편성 차원은 이주민을 경제 발전 수준이나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얼마나 일관되게 수용하는지를 보여주며, 한국 사회의 현실적 태도를 반영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다.

2.4.1 다문화수용성 측정 방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는 총 35 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다. 다양성 항목은 문화 개방성 요인 4 문항, 국민 정체성 요인 4 문항, 고정관념 및 차별 요인 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15 문항을 포함한다. 관계성 항목은 일방적 동화 기대 요인 4 문항, 거부·회피 정서 요인 3 문항,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요인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1 문항을 포함한다. 보편성 항목은 이중적 평가 요인 4 문항, 세계 시민 행동 의지 요인 5 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9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를 바탕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고, 다문화 선교 활동 경험을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설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CHAPTER 3

이주민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성경적-신학적 이해

다문화선교를 위한 다문화수용성에서, '수용'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이다.[62] 영어에서는 'acceptance'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받아들임, 수락, 인정"의 의미가 있다.[63]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에서 연구자도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정의를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인종적 배경을 가진 소수 집단의 구성원을 주류 집단에서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라고 정의했다. 교회가 다문화 이주민들을 받아들임에 있어 그들이 가진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초문화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 대상이 되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과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이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타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이주민을 환대하고 수용하는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64]

이 장에서는 성경적-신학적 관점에서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수용성의 신학적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자 한다. 구약과 신약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주민과 타문화인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교훈이 현대 다문화 선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경이 다문화 수용성과 선교의 근간이 되는 신학적 원리를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

62 "수용", 네이버, 2024년 6월 7일 액세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5048024c1334f11b9f389f56342db19.

63 "acceptance", 네이버, 2024년 6월 7일 액세스, https://dict.naver.com/dict.search?query=acceptance

64 정혜원,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융합선교 전략"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9), 166.

3.1 이주민에 대한 성경적 이해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 인종,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 선교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다문화 선교의 핵심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자는 성경이 포용과 환대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 다문화 선교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제안한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포용과 환대를 강조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동산에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환대하고 포용하신 첫 번째 사례로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들을 환대한 이야기(창 18 장), 롯의 환대(19 장),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출 2 장) 등은 타문화와의 만남에서 포용과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은 다문화적 포용과 환대의 본보기가 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요 4 장), 세리와 죄인 들과의 교제(눅 19 장),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마 8 장) 등에서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환대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다문화 선교의 중요한 본보기로서 의미가 크다.

다문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다문화 선교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문화인 다시 말해,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나그네, 이방인, 외부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성경의 실례를 살펴봄으로써, 그것들의 신학적 의미들을 탐구하고자 한다.[65]

---

65 ‘다문화인’이란, 다문화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외국인유학생, 난민, 탈북민 등을 통틀어 호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특히, 이론적 고찰에서는 ‘다문화인’이라는 말을 ‘이주민’이라는 말과 혼용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주민'이라는 용어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특히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이주를 뜻한다.

3.1.1 이주민의 어원적-신학적 이해

3.1.1.1 구약에서 나타난 이주민들에 관한 용어

구약성경에서 이주민의 개념으로 사용된 주요 단어들은 *게르*(גֵּר), *토샤브*(תּוֹשָׁב), *네카르*(נֵכָר)*와 노크리*(נָכְרִי), *자르*(זָר) 등이 있다. 구약성경의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용어는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게르, 토샤브*는 오랫동안 거주하는 장기 체류자를 뜻하는 개념이고 *네카르와 노크리, 자르*는 단기 체류자를 의미하는 개념이다.[66] 주요 단어들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문화 이주민의 수용 과정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 게르(גֵּר)

*게르*는 주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이방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특정한 법적, 종교적 제약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게르'는 유월절과 같은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다.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 혹은 타국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나그네(창 23:4), 이방 나그네(출 23:9), 우거하는 이방인(신 28:43), 우거하는 타국인(레 17:8)과 같이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왕대일은 *게르*는 원래 자기가 살던 곳에서 누렸던 권리나 의무를 포기한 채 다른 고장으로 이주해서 오래도록 거주해야 했던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하면서, 결코 외국인만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고 한다.[67] 정중호 역시 *게르*를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남유다로 이주한 사람들이 바로 *게르* 였다고 말하면서 같은 민족끼리도 *게르* 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게르*를 이주자 혹은 이민자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68]

*게르*는 기근, 전쟁, 전염병, 개인적인 갈등이나 정치적인 박해 등과 같은 이유로 자신들이 소속된 사회적 배경과 보호를 떠나서 낯선 곳에 살게 된 특수 계층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

66 홍종효, "농촌교회 다문화가정 목회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2011), 41.

67 왕대일, "나그네(게르)-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제113집(2001 여름): 102.

68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논총*, 제13권 1호 (2004): 513.

즉 이들은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외국인'과 '외부인'이라 정의하고 있다(레 22:10; 25:6, 23, 35, 40, 45, 47).[69]

공동체 안에서, *게르*의 법적 지위에 대해 홍종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다:

> 게르(גֵּר)는 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등한 규정을 적용 받으며, 하나님의 종교로 개종한 자로서 안식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의 규정을 지키고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안식년에는 자유와 해방을 얻고, 율법을 배우고 지킬 의무와 권리를 가졌다. 게르(גֵּר)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이방의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거나 피를 먹을 수 없었다. 피를 빼지 않은 부정한 동물을 먹은 경우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하게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다. 게르(גֵּר)는 고아나 과부처럼 보호받아야 했고, 공평한 재판을 받아야 했다. 또한, 품꾼으로 일하는 경우 임금은 당일에 지급받아야 했다. 고대 근동의 법에는 이방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었으며,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게르(גֵּר)도 위한 것이었다.[70]

홍성혁은 *게르*의 지위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게르*는 사회적 약자로서, 이스라엘 자신이 *게르*라는 자의식에 의해 보호의 측면이 더욱 강조된 반면에,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회에 적응된 비유대인의 숫자가 증가하여 이방인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주 이방인으로서의 *게르* 혹은 개종자로서의 *게르* 에게 더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했다.[71]

2) *토샤브*(תּוֹשָׁב)

*토샤브*는 '거주자', '주민'이라는 의미로써 어떤 지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완전한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토샤브*는 땅을 소유할 권리는 없지만, 특정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토샤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외국인으로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덜 동화된 자들이다.[72]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주민을 뜻한다.[73] 정미경은 *토샤브*는 사회적으로 착취당한 상태의 사람들로 '거류민'으로 번역되는 사람들로서

69김해성, "구약성서의 외국인이주자 개념과 한국 이주자 선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6), 13, 22.

70 홍종효, "농촌교회 다문화가정 목회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2011), 43.

71 홍성혁, "구약성서에 나타난 다문화 수용의 특징," *선교와 신학*, Vol. 52 (2020): 485.

72 김해성, "구약성서," 23.

73 최신일, "한국교회의 이주민 실태," 35.

개종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종교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백성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외국인이라고 보았다.[74] 민경휘는 *토샤브*가 가난한 자로서 품꾼인 *사키르*(sakir)나 남종, 여종과 같이 휴경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도 했으며(레 25:6, 35), 도피성에 피하여 보호받을 수도 있었으나(민 35:15), 성물을 먹을 수 없었으며(레 22:10), 유월절 음식도 먹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출 12:45).[75]

3) 네카르(נֵכָר)

*네카르*는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의미로써 출신이나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종종 우상숭배자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네카르*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76] 또한 *네카르* 는 계약 밖의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창 17:12, 출 12:43). 그리고 야훼와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말하거나 야훼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무자격자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77]

4) *노크리* (נָכְרִי)

*노크리*는 '이방인', '외국인' 이라는 의미인데 그 용어는 '네카르'와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때로는 좀 더 강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을 가리키며, 이방인 아내와 관련된 부정적인 문맥에서 종종 등장한다. 홍성혁은 *노크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노크리(נָכְרִי)는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타국인(게르, 토샤브, 노크리)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크리(נָכְרִי)는 자연적으로 죽은 동물의 사체조차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했다(신 14:21). 동족과는 달리, 노크리(נָכְרִי)가 빚을 진 경우에는 안식년이라도 빚 독촉을 할 수 있었고(신 15:3), 빚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었다(신 23:2). 또한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야훼 종교에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나(신 29:11), 노크리(נָכְרִי)에게는 그 가능성 여부가 분명치 않다. 노크리(נָכְרִי)는 동화되지 못한 타국인을 지칭한다. 이처럼 노크리(נָכְרִי)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다문화 자체의

---

74 정미경, "다문화사회," 93.

75 민경휘, "하리교회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목회 패러다임 고찰"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2011), 103.

76 최신일, "한국교회의 이주민 실태," 35.

77 김해성, "구약성서," 24.

> 거부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특정인들, 즉 상호변화의 여지가 덜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심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78]

이태훈은 *노크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노크리(נָכְרִי)는 예루살렘에서 물고기나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던 사람들로, 느헤미야 13장 15~17절에 언급되어 있다. 그는 노크리가 단순한 장사꾼일 뿐, 자신의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계층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79] 또한 노크리(נָכְרִי)는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외국인들이었다.[80]

5) 자르(זָר)

*자르*는 이방인 또는 낯선 사람을 의미하며, 종종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이나 종교적 관습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 김해성은 *자르*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과 대조되는 이방민족 즉 앗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 등과 같은 이스라엘의 적국들의 민족을 의미한다(사 1:7, 겔 7:21, 호 7:9, 욜 3:17)고 보았다.[81] 왕대일은 *자르* 역시 *노크리*와 *네카르*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이라고 말한다.[82]

3.1.1.2 신약에서 나타난 이주민들에 관한 용어

신약성경에서 다문화 이주민의 개념으로 사용된 주요 단어들은 *파로이코스*(παροικος), *크세노스*(ξενος), *에드노스*(εθνος), *파레피데모스*(παρεπίδημος) 등이 있다.[83]

파로이코스(παροικος)는 *오이코스*(οικος)에서 파생된 단어로, 집을 떠나 외국에 살며 현지 주민들과 언어, 문화, 관습, 종교 등이 다른 사람을 뜻한다. 오이코스는 집, 가정, 가족을 의미하며, *파로이코스*는 낯선 자,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는 히브리어의 *게르* 또는 *토샤브*에

---

78 홍성혁, "구약성서의 다문화," 489.

79 이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구약논단*, 제14권 1호 (2018): 72.

80 강성열,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다문화 선교의 실천," *종교문화학보*, Vol. 15 (2018): 102.

81 김해성, “구약성서,” 25.

82 왕대일, “나그네(게르),” 103.

83 김제선, "다문화가정 사역을 통한 교회성장 연구 전략"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1), 24-27.

해당된다.[84] 박영천은 *파로이코스*(παροικος)가 나그네를 가리키는 단어로써 구약의 *게르*라는 의미가 상당히 축소되어 '유대교 개종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한다(마 23:15, 행 2:10, 6:5, 13:43).[85] 이에 대해 민경휘는 유대는 이미 로마제국이라는 식민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란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방인이란 용어 *파로이코스*는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적 의미로 전환되어 사용했다고 보았다.

크세노스 (ξενος)는 '적'과 '친구'라는 상반된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부족 사회에서 외부인을 처음에는 적으로 보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인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고 상호 관계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외부인을 정복하기보다는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크세노스*는 적이면서 동시에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86] *크세노스*에 대해 민경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신약성서에서 법적 권리가 없는 나그네는 크세노스(ξενος(마태복음 25:35)로 번역된다. 크세노스(ξενος)는 의미상 구약의 게르(גֵּר)와 토샤브(תּוֹשָׁב)와 유사한 처지의 사람들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권리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브라함을 크세노스(ξενος)로 묘사한다(히브리서 12:13). 신약의 크세노스(ξενος)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난받는 자들로서, 구약의 게르와 토샤브와 비슷하다. 크세노스(ξενος)는 '외국의' 또는 '낯선'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초대받은'이라는 뜻도 내포한다. 낯섦은 본토인과 외국인 간의 긴장을 유발하지만, 환대는 이 긴장을 극복하고 외국인을 친구로 만든다. 역사적으로 외국인은 적이나 무법자였으나, 환대가 더 나은 방법임을 깨닫고 이들을 보호하게 되었다.[87]

에뜨노스 (εθνος)는 국민, 이방인, 이교도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리스인이 아닌 외국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으며, *에뜨노스* 의 복수형인 *에뜨네* (εθνε)는 이방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하는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다.[88]

파레피데모스 (παρεπίδημος)는 신약성서에서 대부분 외국인의 의미로 사용된다. 거주하는 외국인, 순례자, 이방인 등 신약에서는 구약의 *게르* 보다 단순하게 사용된다. 헬라인을 일컫는 말이지만 의미상 이방인으로는 *헬렌* (Hellen)을 사용한다.[89] 또한,

---

[84] 박경미,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외국인 개념과 초대 기독교인의 자기의식의 표지로서의 외국인," 126

[85] 박영천,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29.

[86] 박경미,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외국인 개념," 129-131.

[87] 민경휘, "하리교회," 104.

[88] 김제선, "다문화가정 사역," 26.

[89] 민경휘, "하리교회," 105.

파레피데모스 (παρεπίδημος)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면서 거주하는 거류민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90]

3.1.2 이주민의 용어들에 관한 성경적-신학적 이해

위에서 다뤄진 용어들의 용례들에서 우리는 다음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구약에서 이주민을 위해 사용된 용어들로서 *게르, 노크리, 토샤브*는 주요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이주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시민은 아니었으나 이주민으로서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들로 분류되었다(출 20:10, 신 5:14, 레 19:33-34). 그들은 "객"(게르) 또는 "거류민"라고 불렸으며, 고아와 과부와 같이 이스라엘인들의 소유지에서 품꾼으로 일하였기(신 24:14), 압제 받거나 학대받지 않도록 학대와 착취를 금지하는 법 아래 있었다(출 22:20). 이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 통치 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레위기 19:33-34 에서,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객 혹은 거류민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구속받은 자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그네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신 16:18-19).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구속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둘째, 이주민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한의 보장을 받았다. 사무엘하 1:13 에서, 게르와 토샤브는 공동체 안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군복무와 같은 사회적 권한과 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종을 가질 수도 있었다(레 25:47).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은 중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다. 그는 그나스 족 사람이었으나 유다지파에 속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다(민 14:6-9, 수 15:13-14, 삿 1:10). 사사기에서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90 김제선, "다문화가정 사역," 26.

개종한 이주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삿 6:34).[91] 이외에도, 라합과 룻은 이주민으로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여인들이 되었으며(수 2:8-14 [cf. 히 11:31], 룻 4), 성전 건축자(대상 22:2), 군인(헷 사람; 삼하 11:1, 23:39, 대상 11:41)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했다. 한편 *노크리*로 분류되는 가드 사람 잇대 역시 다윗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으며(삼하 15:19, 21), 그의 공적에 따른 특권을 누렸다(18:2).

이처럼 이주민들에게 주어진 책임, 권한, 역할, 특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통 중심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였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 공동체는 야훼 하나님의 신앙 하에서, 그의 말씀과 명령을 좇아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수용하는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이주민들은 야훼를 예배해야 만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으나 어떤 종족들은 금지되었다. 에돔과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삼 대 후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암몬과 모압 사람같이 영원히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르* 들로 구성되었다(신 23:3-8). 하지만 *게르*들에게 이스라엘 총회에게 명령하셨던, 안식일을 지키고(출 20:10, 신 5:14), 절기에 참여하도록 요구했다(16:11, 14). 특히,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을 뿐 아니라(민 9:14),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다(출 12:19). 역시 게르들은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정결법을 지켜야 했으며, 야훼 신앙 안에서 머물러야 했다(레 17:10-16).

솔로몬은 이주민들 중 *노크리* (외국인)들 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기를 간구했다(왕상 8:41-43, 대하 6:32-33). 그것은 열방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는 기도였을 뿐 아니라 "땅의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신득일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서 이방인을 수용하는 사상을 내포해 주고 있다고 관찰했다.[92] 그의 관찰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포용되도록 하셨다는 점에서 구속사적 성취라 볼 수 있을 것이다(cf. 갈 3:28-29). 결과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와 살아가는 동안 그를 믿는 신앙 안에서 살도록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법적, 종교적 삶을

[91] Daniel I. Block, *Judges, Ruth*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9), 174.
[92] 신득일, *구속사와 구약주석* (서울: CLC, 2017), 124-150.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야훼 신앙에 의거하여 다민족 공동체에도 열려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신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중심의 이주민을 이해하지 않는다. 선교적 상황에서, 흩어진 존재들로서 이주민이며 나그네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거주한 곳곳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을 수용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해 주고 있다.

첫째, 초대 교회를 다루고 있는 서신들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신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며, 거류민으로 사는 것이다. 이승구에 따르면,

>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지상 가운데 잠시 거주하는 것이고, 이 땅은 그들의 고향(homland)이 아니고 그들이 그 안에 잠시 머무는 낯선 이방 땅이기에 신약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나구네, 즉 이 땅의 이주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지 않는 '순례자들'(pilgrims)이요, '이주자'(migrants)이라는 것을 지시하면서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나그네(παρεπίδημοι)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이다.[93]

그의 관찰처럼, 베드로는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παρεπίδημος)이며, 거류민(πάροικος)라고 부른다(벧전 1:1, 2:11). 히브리 기자는 이스라엘의 족장들 역시 이 땅에서 외국인이며, 나그네였다고 부른다(히 11:13). 그들은 모두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들이였다. 구약에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언급할 때처럼(cf. 스데반의 설교, 행 7:6, 29), 신약의 교회들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거류민이며, 이방인이라고 인식한다. 그들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엡 2:19).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교회가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 따라 수용하고, 포용하도록 하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복음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들 자신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

93 이승구, "이주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21C 신유목민 시대와 아지자 선교*, 박찬식과 정노화 편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125-126.

이야기한다(cf. 요 17:18, 20:21; 요 4:1-14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 막 7:24-30 [예수와 수로보니게 여인], 눅 7:2-10 [예수와 이방인 백부장의 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그네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사회적이며 종교적인 면에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뿐 아니라 그들을 과부와 고아처럼 보호하도록 하신 것처럼(출 10:18-19), 교회 공동체 역시 외인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포용해야 했다(히 13:1-22)

요컨대, 구약과 신약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민족-다문화적 사회 공동체였다. 그들은 나그네와 거류민, 외국인으로 불려지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였으며, 실제로 그들 자신들이 나그네들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공동체 내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수용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3.2 다문화 수용성의성경적 이해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문화 수용성은 환대와 포용이라는 성경적 사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이란 "자신과 다른 집단이나 문화를 향해 편견 없이 존중하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식하며,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는 태도"를 뜻한다. 이 정의를 성경에 비추어 볼 때,[94]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환대와 포용을 통해 이방인과 나그네와 타인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슈아 지프(Joshua W. Jipp)는 환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 성서의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 곧 자기 백성에게 환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이다."[95] 그리고 그는 교회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환대 경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대와 우정을 베풀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에게 그리고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환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96]

---

[94] 변혜선과 박미경, "임상간호사의 다문화 수용성과 범문화 효능감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cstics*, 45 (1) (2020): 93. (91-99)

[95] Joshua W. Jipp, *환대와 구원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송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42.

[96] Jipp, *환대와 구원*, 42.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이방인이나 외국인을 환대하고 보호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게르* (גֵּר)라는 단어가 외국인이나 이방인을 지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학대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처럼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나 로마인과 같은 비유대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의 상호 존중과 환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적 포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다문화는 이주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영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구약성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든 그 시조들의 이야기는 이주민으로서 삶의 기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선택은 특권층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약자들의 선택을 위한 개념으로 이해 해야함을 보여준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신적 기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 역대기 저자(대상 1-9장)나 원역사(창 1-11장)의 편집자도, 시조의 기원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강제 이주) 그 밖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려낸다(창 3장). 유대민족의 시조이며 믿음의 조상으로 회자되는 아브라함 역시 하란 혹은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이주(자발적 이주)한 이주민이다(창 11:27-12:6; 수24:3; 느 9:7-8).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인 야곱과 요셉의 경우도 에서를 피해, 하란/밧단아람으로 이주해 살거나(창 27-28장),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서 살았던(창 37:25-28) 난민 이주민이었다. 또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시작을 묘사한 출애굽기사에서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집단 탈출한 난민(출 1-15장)이었다.14)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은 식민지에서 생활을 했던 유대 이주민 지도자들과 역이주한 귀환공동체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 조명되고 문서로 편집되었다. 구약성서는 한마디로 이주민의 책이며, 따라서 이주민의 시각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97]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다문화인들, 즉 외국인들과 이주민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다문화적 상황에서 다문화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외부인인 우리를 환대하시고 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문화인들을 환대하고 포용해야 한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

97 이영미, "공정한 환대를 위한 열린 마당(레호브, רְחֹב)으로서의 교회,"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73 (2018): 141-142.

모습으로 외부인 또는 이방인이요 나그네 된 자들을 환대하고 포용하였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3.2.1 구약에 나타난 환대와 포용

구약성서에 환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환대를 베푼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아브라함(창 18:1-8)은 환대의 이상적인 사례를 보여주며, 이후 유대 문헌과 초기 기독교 저작물에서도 이상적인 환대의 모범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 외에도 롯(창 19:1-3), 라반(24:10-61), 이드로(출 2:15-22), 라합(수 2:1-21; 히 11:31), 마노아(삿 13:13),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19:17-21), 수넴 여인(왕하 4:8-36), 욥(욥 31:32) 등 다양한 인물들이 환대를 베푼 사례가 풍부하게 나타난다.[98]

환대의 사전적 의미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고 나온다.[99]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포용하는 사상과 인간 평등의 원칙은 그들의 과거 정체성인 *게르* (גֵּר)에서 비롯된다. 이 이름은 창세기 23:4 에서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출애굽기 2:22 에서는 광야의 모세에게도 주어진다. 또한 출애굽기 18:3 에서는 그의 아들 게르솜의 이름에도 나타난다. 모세는 자신이 *게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으로 지었다. 이는 모세뿐만 아니라 당시 이집트에 거주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100] 박영천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게르* (גֵּר)의 역사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오면서 게르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야곱과 그 열두 아들을 포함한 70여명이 이집트에서 이주해서 고센 땅에 430년간 체류하면서 게르가 되었고,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멸망한 B.C. 722년과 B.C. 587년 이후에도 게르의 역사였다. 그런데 왕정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인식한 후 다른 민족을 '게르'라고 부르면서 차별하기 시작했다. 원래 가나안으로 들어온 히브리인들이 게르였음에도 가나안에서 평등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나안 평등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토착민을 게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 바빌론의 포로가 되면서 히브리는 다시 '게르'로

98 이영미, "공정한 환대," 141-142.
99 "환대", 네이버사전, 2024년 6월 11일 액세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93694dc826a44cf98c6ac57c01a3dd5.
100 이미화 외 7인, 외국인노동자 선교와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0), 130.

> 전락한다. 왕정시대 이후 게르를 차별하던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포로가 되면서 자신들이 또 다시 '게르'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을 일반 '게르'와 구별하여 그리스어로 '흩어짐'이라는 의미를 가진 '디아스포라'라 불렀다.[101]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나그네와 이방인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야훼 신앙에 근거한 선택받은 민족으로 여기며 이방인들은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한 듯 보이나, *게르* 를 통해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임을 말하고 있다.[102] 이에 대해 박영천은 이스라엘의 선민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103]

홍성혁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다문화 수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주가 단순한 삶의 조건이 아니라 야훼 신앙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문화적 환경에서의 아브라함의 이주가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게르* 로 인식하고 정체성을 규정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의식은 이후 이스라엘이 이주민을 수용할 때 그들을 대우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말한다.[104]

그러면 이제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환대의 사건들을 통해 구약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외부인이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포용했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성경에는 환대(hospitality)라는 개념의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환대의 관습은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과 구약성서에서도 환대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관습으로 인식되고 있다.[105]

1) 창조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환대 (창 1:1~31)

조지 로스(George Ross)는 성경에서의 환대 개념이 이스라엘 역사 이전인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고 설명한다. 창세기의 첫

---

101 박영천,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27.

102 정미경, "다문화사회," 94.

103 박영천,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28.

104 홍성혁, "구약성서의 다문화," 491.

105 임봉대, "구약성서에 나오는 환대(Hospitality)에 관한 소고(小考)," *구약논단*, 18 (2012): 37.

장에서 하나님의 환대는 온전하고 창조적인 힘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며, 이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위한 완벽한 거처를 마련하셨다.[106]

로스의 말처럼 창조이야기를 환대의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처음에 혼돈과 공허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구별하며, 바다와 육지를 마련했다. 이러한 창조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환대하기 위해 공간을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드셨다. 그는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거처를 마련하셨다. 이 동산은 인간을 위한 특별한 환대의 장소로, 풍부한 자원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을 돌보고 지키며, 모든 동물들과 식물을 관리할 책임을 주셨다. 이는 인간을 단순히 창조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부여하며 포용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단순히 인구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를 환대하고 새로운 생명을 환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인간 상호 간의 환대와 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 이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로,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환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연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것이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환대가 완전하게 실현된 장소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며, 모든 필요가 충족된 환경에서 살았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환대의 장소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다.

---

106 "구약의 환대",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24년 6월 10일 액세스, https://www.nobts.edu/geauxtherefore/articles/2021/Hospitality.html.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환대하고 포용하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은 공간을 마련하고, 인간에게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주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신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 이야기를 이해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서로를 환대하고 포용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된다.

2) 아브라함의 환대 (창 18:1-15)

하나님의 창조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환대와 포용은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창세기 18:1-15 은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세 명의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임희모는 이를 무조건적인 환대로 설명하며, 이는 자신의 집을 제재나 계약 없이 개방하여 이방인 등 낯선 손님을 조건 없이 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107] 무조건적인 환대는 자신의 집을 아무런 제재나 계약 없이 무조건적으로 개발하여 낯선 손님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조건 없이 접대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108]

이 본문은 고대 근동의 환대 문화를 반영하며, 환대와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브라함은 세 명의 낯선 사람을 보고 즉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고,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하여 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한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단순한 손님 맞이를 넘어, 낯선 이들에게 안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러한 환대는 중요한 덕목이었다.

낯선 이들은 아브라함의 환대에 감사하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전한다. 이 예언은 아브라함의 환대가 신적 축복과 연결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환대를 통해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축복을 약속하신다. 이는 환대가 신앙과 연결된 중요한 행위임을 나타낸다.

사라는 이 예언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나그네들 중 한 명인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

107 임희모, "타자와 환대의 선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56집(2008): 203.

108 정경호,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삶," *신학과 목회*, 제34집(2010): 180.

상기시킨다. 이는 인간의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사라의 반응은 환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환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신앙의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낯선 이를 환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나그네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환대를 통해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환대가 단순한 인간적 행위를 넘어 신적 축복의 매개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환대는 단순한 사회적 덕목을 넘어, 신앙의 실천과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 짓는 중요한 행위임을 보여준다.

3) 롯의 환대 (창 19:1-3)

창세기 19:1-3 은 롯이 소돔 성문에서 두 명의 천사를 맞이하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환대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 본문은 고대 근동의 환대 문화와 맞물려, 환대의 중요성과 도덕적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롯은 저녁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명의 낯선 사람(천사)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며,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 여기서 롯의 행동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이자 의무로 여겨지는 환대의 실천을 보여준다. 롯은 천사들을 보고 즉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며, 이는 그의 환대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또, 롯은 그들이 거리에서 밤을 보내려는 것을 막고,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 데려간다. 이는 외부인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환대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롯은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한다. 이는 낯선 이들에게 편안함과 환영을 제공하는 환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발 씻기는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에게 발을 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환대의 관습이었다. 이는 손님의 피로를 풀어주고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 롯은 신속히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함으로써 손님을 정성껏 맞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환대의 중요한 부분으로, 손님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행위이다.

롯의 환대는 소돔 성의 악행과 대조되어 그의 도덕적 의로움을 부각시킨다. 소돔 사람들은 낯선 이를 학대하려고 했으나, 롯은 그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는 롯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임을 보여준다. 천사들은 롯의 환대에 감사하며 그의 집에 머물기를 수락한다. 이 장면은 낯선 이를 환대하는 것이 신적 축복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롯의 행위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임을 보여주며, 이는 결국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롯의 환대는 단순한 사회적 관습을 넘어, 신앙의 실천과 연결된다. 낯선 이를 환대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신앙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환대가 신앙과 윤리적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4) 모세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환대 (출 2:15-22)

출애굽기 2:15-22 은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땅에 도착한 후,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이드로의 집에서 환대를 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인 사건으로 인해 도망쳐 미디안 땅에 도착했으며, 우물가에 앉아 있는 동안 이드로의 딸들이 물을 길러 오다가 다른 목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다. 모세는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면서 처음으로 이드로 가족과 인연을 맺게 되는데, 이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환대의 첫걸음인 상호 도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드로의 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도와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고, 이드로는 모세를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고대 근동의 환대 문화를 반영하며, 낯선 이를 환영하고 안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관습을 보여준다.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이드로는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어 모세가 미디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다. 모세의 정착은 단순한 환대를 넘어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포용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모델을 제시한다.

모세가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줌으로써 이드로 가족의 환대를 받게 되는 상호적 환대의 모습은 환대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의미가 깊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에서 이방인으로서 환대를 받으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환대와 포용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드로는 모세를 가족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환대가 단순한 일시적 도움을 넘어 지속적인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드로의 환대는 단순한 사회적 관습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서 환대를 받고 정착함으로써, 그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환대와 포용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5) 룻기에 나오는 환대

룻기서는 기근으로 인해 나오미가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다.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 1:16)라고 말하며 나오미와 함께할 것을 맹세한다. 이는 룻의 깊은 환대와 포용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결심을 한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과 나오미는 매우 가난한 상태였다. 룻은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나선다. 보아스는 룻의 상황을 듣고 그녀를 환대하며 보호해 준다. 보아스는 룻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며, 그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2:12)라고 말하며, 그녀의 충성과 헌신을 인정하고 축복한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들의 가족을 구원할 가능성이 있는 가까운 친족임을 알게 되고, 룻에게 보아스와의 결혼을 제안한다. 룻은 나오미의 조언을 따라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을 요청한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녀와 결혼하여 나오미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 책임 이상의 포용과 사랑을 보여준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던 여성들의 입장은 룻에 대해 달랐던 것 같다. 박시은은 이방인 룻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환대받았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 나오미에게는 관심을 가졌지만 룻과는 대화가 없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1:19-22). 들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들도 룻에 친절하지 않았다. 룻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고립되어 있었다.[109]

그러나 룻기에서 베들레헴 사람 중에서 이주 여성 룻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은 보아스였다. 공동체가 서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박유미의 주장처럼 룻기 1:8 에서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와 죽은 자들에게 헤세드 (חסד)를 베풀었고, 2:20 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헤세드 를 보고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 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며 그를 축복했다. 또한 3:10 에서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 에 대해 칭찬하며 축복한다.[110]
룻기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헤세드 를 통해 이방인을 포용하며 환대하는 사회가 만들어졌다. 우리 사회도 다문화시대에 이런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헤세드 정신이 다른 사람이 아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6)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환대 (수 9:3-27)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낡은 옷과 마른 빵을 가지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가장하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를 요청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는다.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썼다는 사실이 밝혀지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맺은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한다.

---

109 박시은, "룻기를 통해 본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지역공동체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2021), 38-39.

110 박유미, "여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사기 19-21장과 룻기 비교 연구," *구약논집*, 18 (2020): 96-97.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는 이미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며, 이는 이스라엘이 법과 약속을 중요시함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속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포용과 환대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들이 맺은 조약을 지키려는 노력은 그들의 신앙과 법적 의무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때로는 포용과 환대가 법적 의무와 상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관습과 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구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였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사건은 포용과 환대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며, 때로는 속임수와 오해를 동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한 것은 진정한 포용의 가치를 보여주는 예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9:3-27 은 포용과 환대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스라엘은 속임수를 통해 맺어진 조약을 지키며,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받아들였다. 이는 포용과 환대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요한 덕목임을 보여준다.

기브온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이스라엘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여호수아는 율법을 신중하게 적용하여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야훼에 대한 기브온 주민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 진멸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판단을 보여준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미 야훼의 이름으로 기브온 주민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좋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음을 나타낸다.[111]

111 김성수. "만약 이스라엘이 야훼께 물었다면: 기브온 사건(여호수아 9장)에 나타난 이방인의 진멸과 구원," *성경과 신학*, 88 (2018): 46.

7)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왕상 17:8-24)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기근 중에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난다. 그는 과부에게 물과 음식을 요청하고, 과부는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로 남겨둔 음식을 나눈다. 이는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과부가 낯선 이방인인 엘리야를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과부는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엘리야를 환대한다. 이는 진정한 환대가 자신의 희생을 동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고, 과부는 이를 믿고 행동한다. 그 결과 과부는 엘리야를 환대함으로써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은 그녀의 믿음과 환대의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이후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다.

과부의 믿음과 환대는 물질적 축복으로 이어진다. 이는 하나님께서 환대와 포용을 중요시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환대가 단순한 호의를 넘어 생명과 연결될 수 있음을 상징한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상황에서 환대와 포용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주민, 난민, 사회적 약자 등을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지만, 그녀의 환대는 엘리야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

8) 엘리사와 수넴 여인 (왕하 4:8-37)

본문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환대를 받는 이야기와 그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다루고 있다. 본문에서 엘리사는 자주 수넴을 지나가던 중 한 부유한 여인에게 환대를 받는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특별히 방을 마련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준다. 이는 이주민을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중요한 예시로 볼 수 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단순히 식사에 초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해 방까지 마련한다. 이는 그녀가 엘리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극적인 환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여인은 엘리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존경한다. 이는 그녀가 이방인인 엘리사를 단순한 손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그녀에게 아들을 약속한다. 이는 환대가 단순한 호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답이 따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환대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며, 결국 아들을 얻게 된다. 이는 환대가 신뢰와 기적을 불러올 수 있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온다. 여인은 아들이 죽자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이는 그녀가 엘리사와의 관계를 통해 희망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엘리사는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며, 환대의 결과로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은 이주민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진심으로 환대하며, 그 결과로 아들을 얻고, 나중에 그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경험한다.

9)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 (에 1:110:3)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겪은 위기와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요 인물들인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페르시아 왕국 내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큰 위기에 직면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스더서를 환대와 포용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긴 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다. 그녀는 왕과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환대받는 위치에 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포용과 환대가 어떻게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한복판에서 유대인으로서 포용 되었으며, 왕의 신임을 얻는다. 이는 이방인으로서 그녀가 왕실에 환영받고 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간청한다. 이는 그녀가 민족적 정체성을 포용하고, 전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사촌이자 보호자이며, 왕궁 문 앞에서 일하는 유대인이다. 그는 에스더를 통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르드개는 왕의 암살 음모를 발견하고 이를 왕에게 알림으로써 왕의 생명을 구한다. 이는 그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충성스럽게 행동하며 환대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르드개는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의 지혜와 용기는 유대인들이 포용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으로,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을 배척하려고 한다. 그의 음모는 유대인들의 전멸을 목표로 하지만, 결국 그의 계획은 실패하고 자신이 처벌받게 된다. 하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혐오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계획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파멸을 초래한다.

하만과 대조적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이야기는 포용과 환대가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한다. 이는 전체 사회의 안녕과 조화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이방인으로서 환대받고 포용됨으로써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루어냈다. 반면, 하만의 배척과 혐오는 그의 파멸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이주민이요,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환대받고 포용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홍성혁은 이스라엘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다문화살이를 통해 때로는 배타주의가, 때로는 포용주의가 필요함을 깨달았기에 서로 공존하였다고 말한다.[112] 그래서 그는 우리 사회도 이주민과의 최종 통합을 이루기 전에 주류 수용 집단은 '인정의 정치'를 통해 수용되는 비주류 집단의 교육, 고용, 인권, 생존권 측면에서의 공정한 대우가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쉽게 타협하기 어려운 정체성의 문제는 일방적으로 동화를

112 홍성혁, "구약성서의 다문화," 492.

요구하기보다는 당분간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한다.[113]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위에서 살펴본 구약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환대의 사건들은 환대와 포용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잘 보여준다.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위한 완벽한 거처를 마련하셨고, 아브라함과 롯은 낯선 이들을 환대함으로써 신적 축복을 받았다.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의 화친은 환대와 포용이 단순한 호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방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환대가 때로는 큰 희생을 동반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적과 축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이야기는 환대와 포용이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드러내 주고 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다문화 사회에서 환대와 포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다.

3.2.2 신약에서의 환대와 포용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환대와 포용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구약성서에서의 환대의 전통은 신약시대에서도 지속되며,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게 된다.

---

113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란, 캐나다의 철학자인 테일러(Charles Taylor)가 사용한 용어로서 다문화주의에서 문화적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때 인정의 정치는 단지 소수집단이 다른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의 문화가 존속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캐나다 다문화주의에서 '인정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실시한 것은 첫째,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존중; 둘째,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 셋째,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평등한 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보의 정책과 프로그램 참여였다(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2008]: 73-74); 홍성혁, "구약성서의 다문화," 493.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본을 보여주셨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요 4장),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사(눅 19장) 등을 통해 예수님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고 환대하셨다. 이는 예수님이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한정된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주임을 나타낸다.

신약성서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그네와 이방인을 환대하는 것이 단순한 호의를 베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35 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라고 말씀하시며, 환대와 사랑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고 환영하는 문화를 형성했다.

1)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요 4:1-42)

이 본문은 예수님이 문화적, 종교적, 성적 장벽을 넘어서 사랑과 포용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심각한 적대감이 존재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배교자로 보았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멸시했다. 예수님은 이러한 편견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며,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그 여인을 환대하는 행위였다.[114]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은 당시 사회적 관습을 깨는 행동이었다. 유대인 남성이 공개적으로 여인, 특히 혼자가 아닌 남편이 있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며 대화를 시작하셨고, 이는 여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환대의 표시였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물을 길러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약속하셨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환대의

114 “The encounter between Jesus and the Samaritan," *TGC*, 2024년 6월 13일 액세스,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samaritan-woman-savior/.

메시지였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며 그녀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셨고, 이는 그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치유하려는 예수님의 포용을 보여주는 것이다.[115]

이 대화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이틀을 머무르시며 가르치셨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특정 민족이나 그룹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게 되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의 포용이 이루어졌다.[116]

요한복음 4:142 는 예수님의 환대와 포용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다. 예수님은 사회적, 문화적, 성적 장벽을 넘어 한 여인을 환대하시고 그녀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 주셨다. 또한 그녀를 통해 사마리아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포용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2)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마 15:21-28, 막 7:24-30)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의 사역이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숨으려고 하셨으나, 그의 존재는 감춰지지 않았다. 한 가나안 여인, 즉 그리스 출신의 시리아-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려 심하게 고통받고 있었고, 그녀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이방인인 그녀의 접근은 당시 사회적 관습과 종교적 경계를 넘는 것이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마 15:24)고 말씀하셨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간청했다. 예수님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15:26)고

115 한성천과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서울: 제자원, 2004), 311.

116 " The encounter between Jesus and the Samaritan," *ENDURING WORD*, 2024년 6월 13일 액세스, https://enduringword.com/bible-commentary/john-4/.

말씀하셨다. 여기서 '자녀들'은 유대인을, '개들'은 이방인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15:27)라고 답했다. 이 말은 그녀의 겸손과 믿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딸의 병을 고쳐 주셨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중요한 포용과 환대의 교훈을 준다. 첫째, 예수님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셨지만, 이방인의 강한 믿음과 간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나타낸다.[117] 둘째,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믿음과 겸손을 통해 환대의 의미를 재정의하셨다. 그녀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녀의 딸을 치유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한 그룹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셨다.[118] 이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임을 가르쳐준다.[119]

마태복음 15:21-28 과 마가복음 7:24-30 에서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만남은 포용과 환대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예수님은 사회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 이방 여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포용적인 사랑과 환대의 정신이 드러난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믿음으로 나아오는 이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다.

3) 예수님과 백부장의 종 (마 8:5-13, 눅 7:1-10)

마태복음 8:5-13 에서 로마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하인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한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자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그의

117 "The Canaanite Woman's Faith," *Crosswalk*, 2024년 6월 13일 액세스, https://www.crosswalk.com/faith/bible-study/what-can-we-learn-from-the-canaanite-womans-faith.html.

118 "Dogs eat the crumbs," *Got Questions*, 2024년 6월 13일 액세스, https://www.gotquestions.org/even-the-dogs-eat-the-crumbs.html.

119 "Jesus and the Canaanite Woman: An Exception for Exceptional Faith," *CBE International*, 2024년 6월 13일 액세스, https://www.cbeinternational.org/resource/jesus-and-canaanite-woman/.

믿음을 칭찬하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고 말씀하신다(마 8:10).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120] 누가복음 7:1-10 에서는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보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추가로 설명한다. 백부장은 유대 관습을 존중하며 그 지역 회당을 지은 공로가 있음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하인을 치유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신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는 환대와 포용을 보여준다.

4)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눅 10:25-37)

누가복음 10:25-37 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종교적, 문화적 경계를 넘는 진정한 이웃 사랑의 의미를 제시한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된다.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고 물으셨고,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고 답한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라고 다시 묻는다. 이 질문은 이웃의 범위를 좁히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진 상황을 이야기로 들려주신다. 그를 본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규율을 지키기 위해 도와주지 않았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아 주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웃인지 묻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 라고 답한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고 말씀하신다.

이 본문에서 포용과 환대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마리아인은 종교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유대인을 도왔다. 이는 사랑과 자비가 인종이나 종교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121] 적대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의무를 지켰지만, 사마리아인은 실제 행동으로 자비를 베풀었다. 이는 신앙이 단순한 교리나 규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120] "An Effective Servant," *Bible.org*, 2024년 6월 13일 액세스, https://bible.org/seriespage/lesson-29-effective-servant-luke-71-10.

[121] "Luke 10:25-37", Center for Excellence in Preaching, 2024년 6월 13일 액세스, https://cepreaching.org/commentary/2022-07-04/luke-1025-37-3/.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자비와 환대가 특정 그룹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122]

5) 사도행전에서의 고넬료 사건 (행 10 장)

사도행전 10 장은 초기 기독교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준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특히 포용과 환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건이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가이사랴에 거주하며 경건한 생활을 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 당시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다. 무두장이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정결치 못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는 베드로가 "정결과 부정이라는 경계 위에" 놓이게 되었는데, 결국 무두장이의 환대를 수용함으로 복음의 경계를 확대한 것이며, 이것은 베드로가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환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123]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지시한다. 동시에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담긴 다양한 동물을 먹으라는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은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124]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경외심과 자선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그가 받은 환상과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선포한다.[125] 베드로는 환상에서 본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 그는 유대인들이

---

[122] "Luke 10:25-37", SERMON Writer, 2024년 6월 14일 액세스, https://sermonwriter.com/biblical-commentary/new-testament-luke-1025-37/.
[123] 반재광, "누가의 '환대의 식탁' 연구," *신약논단*, Vol. 24, 3 (2017): 574-576.
[124] "THE CONVERSION OF GENTILES," *ENDURING WORD*, 2024년 6월 14일 액세스, https://chatgpt.com/c/304739f9-5a71-49f9-98a3-42ce7c5ff1e7.
[125] "THE CONVERSION OF GENTILES."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환대한다. 이는 신앙이 단순한 교리나 규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126]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고 선언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특정 그룹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향해야 함을 가르친다.[127]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장면은 이러한 보편적인 자비를 잘 보여준다.

반재광은 본문을 두고 '환대의 신탁'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식탁의 교제를 통해 환대와 교제에 관련된 경계선이 재구성되었다고 말한다. 그 경계선은 사회/경제적 장벽이고, 인종적/문화적 경계인데, 성령을 통하여 깨어졌다고 말한다. 또한,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환대의 신탁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환대와 용서를 받았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128]

6)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전도 (행 11:19-26)

사도행전 11:19-26 은 초기 교회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준다. 이 구절은 특히 안디옥에서의 교회의 성장과 바나바와 사울(후에 바울)의 사역을 통해 포용과 환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안디옥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세운 최초의 다문화, 다민족 교회로 간주할 수 있다.[129]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신자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등지로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지만, 몇몇 신자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많은 이방인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126 "Commentary on Acts 10," *THE MOORINGS*, 2024년 6월 14일 액세스, https://www.themoorings.org/Bible_commentary/Acts/chapter_10.html.
127 "Acts 10," *Bible Study Tools*, 2024년 6월 14일 액세스, https://www.biblestudytools.com/commentaries/matthew-henry-complete/acts/10.html.
128 반재광, "누가의 '환대의 식탁' 연구," 577-580.
129 권주은, *다문화 교회의 모델 안디옥교회* (서울: CLC, 2021), 21.

결과였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을 격려했다. 바나바는 안디옥의 새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사울을 데려왔다. 이들은 1 년 동안 교회와 함께하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특정 그룹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향해야 함을 가르쳤다. 이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신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안디옥교회는 고유한 각각의 문화가 시리아 내에서 공존한 것처럼, 그리고 그 영향으로, 안디옥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보였고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은 나타나지 않았다.[130] 또한 안디옥교회는 출신과 배경 차이로 인한 어느 특정 민족이 기득권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주요 지도자들의 프로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며 바울이 다문화가정 출신인 디모데까지 포용하여 함께 사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131] 실로 안디옥교회는 환대와 포용을 보여준 귀감이 되는 다문화교회라고 여겨진다. 이는 다문화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에도 귀한 모델이 된다고 본다.

7) 바울과 실라의 선교 여행 (행 16 장)

사도행전 16 장은 바울과 실라의 선교 여정 가운데 이방여인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강가에서 기도하러 모인 여인들을 만난다. 그 중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열어 세례를 받는다. 루디아는 즉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여 환대를 베푼다. 이는 초기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신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 16:14 에는 "주께서 그녀(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바울의 설교에 귀 기울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동시에 설교에 동화되고 깊이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여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시한다. 어쨌든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바울 일행을 환대하게 되었다. 유상현은 이에 대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늘의 열림'으로

130 권주은, *다문화 교회,* 163.
131 권주은, *다문화 교회*, 164.

환상을 본 것과 비교하여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확대와 개방의 모습은 '마음의 열림'으로 상징되어 나타났다고 보았다.[132] 연구자 관점에서, 역시 다문화선교에 있어 그들을 수용하려면 환대와 포용의 정신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열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여성으로서 낯선 남성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다. 루디아의 환대는 바울과 빌립보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 사이의 여러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징적 행위였다. 하지만 경계를 허문 것은 루디아만이 아니었다. 바울도 '이방 여인'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녀의 집에서 머무는 것을 수락했다. 이는 한쪽의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루디아와 바울 모두 각자의 이해와 관점에서 차별의 장벽을 넘어선 행동이었다.[133] 이처럼 다문화선교에 있어 진정한 포용과 환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의 상호 교류적인 행동의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며,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선 본을 보여주셨다. 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로마서 12:13 에 나오는 헬라어 *필로제니아*(philoxenia)가 "손님으로 환영하다"란 뜻뿐만 아니라, "놀라다"와 "나그네로서 어떤 이 혹은 어떤 것을 소개하다"의 뜻이 있다. 초대교회는 환대란 용어를 "손님" 또는 "주인"을 뜻하는 말로써 손님이나 주인 또는 낯선 이방인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실천했다. 그들은 심지어 적의(敵意, hostile)를 띤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며 그들을 가족처럼 맞이하는 것을 환대라 말하는데, 이것은 철저히 타자 중심의 따뜻한 접대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134]

예수님의 가르침은 1 세기 교회의 다문화 사회에서도 중요한 교훈이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들이 다문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인종들을 수용하는 방식이었으며,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

132 유상현, "빌립보의 바울과 루디아," *신학논단*, 31 (2003): 39-41.

133 유상현, "빌립보," 43-44.

134 정경호,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삶," *신학과 목회*, 34 (2010): 178-179; cf. John Koenig, *환대의 신학*, 김기영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28; Marjorie J. Thompson,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천*, 고진옥 역 (서울: 은성, 2000), 195.

방식이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환대와 포용의 실천은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선교적 의의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겠다.

3.3 한국교회의 다문화 선교를 환대와 포용

다문화선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선교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인종, 언어,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주민선교는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민자, 난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이다. 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이동한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고 그들의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영혁은 "다문화선교는 대다수의 복합적 문화 상황에서의 선교를 전체의 폭으로 삼고, 주로 한국 내의 다문화적 외국인들을 향해 활동하는 선교"라고 정의한다.[135] 정미경은 그의 연구에서 "이주민선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이주민선교”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며 이들을 대할 때에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자기같이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진리임을 전하여 결국 이주민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섬기는 모든 제도적 · 사회적 · 문화적 · 물질적 · 인적 · 영적노력을 포함하는 총체적인(holistic) 것을 의미한다.[136]

한국 교회는 증가하는 이주민들에 의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선교의 대상으로서 단일민족 개념에서 다민족으로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의 요구이다.

---

135 안영혁, "다문화 선교에서 목회자 교육," *신학지남*, 83 (2016): 260.

136 정미경, "다문화사회," 152.

3.3.1 한국교회의 선교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다문화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상 문화의 특성과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이는 복음이 각 문화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며, 문화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137] 이를 위한 신학적 틀은 미시오 데이 (*Missio Dei*)에서 찾을 수 있다. 미시오 데이는 선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는 "미시오 데이(*rnissio Dei*, 하나님의 선교), 즉 세상을 사랑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자기계시,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교회와 세상을 포함하며 이 사역에 교회가 참여하도록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활동을 말한다"라고 제안했다.[138] 그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시며, 그 스스로가 선교사가 되셨으면,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고 계신다(요 20:21, 마 28:20).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성품과 활동을 통해 그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점에서, 하나님의 편재를 이해해야 한다. 그는 어느 곳이든지 계시기에, 그의 선교는 타문화권으로 보냄으로써 만이 아닌 '거기', '여기',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선교들(missions)이다. 더욱이, 선교의 현장은 과거에서 민족들이 지리적 경계선 안에서 살았던 개념에서, 글로벌 시대에 이주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빨라진 시점에서, 세계 전역이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의 기독교의 초기 선교는 19 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주로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선교는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적 봉사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한국인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139]

---

[137] "How to interpret multicultural missions?", *Religion Online*, 2024년 6월 22일 액세스, https://www.religion-online.org/article/missiology-in-a-pluralistic-world-the-place-of-mission-study-in-theological-education/.

[138] David J.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선교 신학의 패러다임 전환,* 김병길과 정훈택 역 (서울: CLC, 2000), 36.

[139] 문창선, "국내 이주민 선교의 흐름과 사역 진행," *미션인사이트*, 7 (2016): 52-53.

1960 년대 이후 한국 교회는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다. 경제 성장과 도시화에 발맞춰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선교의 초점도 변화하게 되었다. 교회는 단순한 복음 전파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교육, 복지, 정치 참여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독교 신앙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140]

2000 년대 들어 한국은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유학생 등의 증가로 인해 교회는 새로운 선교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글로벌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선교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141]

선교는 이제 단순한 복음 전파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슈와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의 복잡성을 반영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선교 전략을 필요로 한다. “선교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다수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협의되고 공유되는 선교에 관한 인식체계로 정의될 수 있고, 시대적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이해는 것이 필요하다.”[142] 신성임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오늘날의 이주 시대에는 국내 이주민의 증가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민 선교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말한다.[143] 박우삼은 “교회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기독교 공동체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다. 이어 현대 시대의 상황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새로운 미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과 전략을 세워야만 한다고 주장한다.[144] 정경호는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치는 과정에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

[140] 문창선, "국내 이주민 선교,” 52-53.

[141] 문창선, "국내 이주민 선교,” 52-53.

[142] 신성임,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국내 이주민 선교: 패러다임 특징 분석과 이주민 선교 현황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9(2023): 392.

[143] 신성임, "새로운 선교,” 410.

[144] 박우삼,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 *선교신학*, (2018): 309.

현실과, 세계화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국사회의 문화적 변화는 교회 패러다임의 필수적인 수정을 요구한다고 말한다.[145]

다문화 시대에 다문화 선교는 필수적인 사명이 되었다. 최근 국내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선교 대상 국가의 이주민과 다문화인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환경 요인에 따라, 교회는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문화 선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연구자는 선교적 패러다임이 지역적이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민족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게 된 것이 단순히 상황적 변화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초대교회의 선교에 관하여 민족 중심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제안한다.[146] 이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다문화적이었으며, 초대교회가 다민족 공동체 사회에서 다민족 공동체로 세워졌다. 그들 자신이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타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역시 나그네들을 품는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초대교회의 선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정현곤은 7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포용의 삶을 통한 현존의 선교: 초대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경계가 허물어진 것은 복음의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교회를 교회 답게 만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성경의 '헤세드' 사랑은 경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 장 7 절에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한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낯선 사람들과 원수까지 포용해야 하는 신앙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포용은 삶 속에서 환대로 나타나야 하며, 다문화 사회에서 환대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다.[147]

---

145 정경호, "한국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연구," *복음과 선교*, 33(2016): 197.

146 David J. Bosch, *Witness to the World* (Atlanta: John Knox Press, 1980), 12.

147 정현곤,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선교적 접근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5), 143-144.

둘째, 성육신적 중재로서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선교 모델이다. 성육신적 선교는 자신의 신앙과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의 중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폴 히버트는 다문화 시대의 선교가 문화적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복음을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 문화적 중개자는 외부자와 내부자의 시각을 모두 가져야 한다. 이는 특정 문화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문화 간의 갈등을 관리하며 회복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또한, 교회와 교회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에큐메니칼적인 인식을 통해 교회 간의 차이를 다양성으로 수용해야 한다.[148]

셋째, 정의로서의 선교: 이주민들은 이주 과정에서부터 체류국 정착까지 불의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브로커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받거나 비합법적인 이주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유린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현실에서 이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다문화선교의 중요한 영역이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인종주의를 명백히 거부하고, 교회가 인종차별과 인종혐오를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의로서의 다문화선교는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함께 다수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한다. 또한, 힘과 사회적 경계에 의해 압제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해방을 목표로 하며, 세계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의 불의를 변혁하는 차원도 가지고 있다.[149]

넷째, 공동적 선교: 종래의 선교가 서구에서 비서구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향했다면, 이주의 시대에는 선교의 흐름이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가고 있다. 이는 주변부 이민자와 난민들이 중심부에 거주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종종 '아래로부터의 선교사'로 불리며,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활동한다. 한실레스(Hanciles)는 모든 기독교 이주민들이 잠재적인 선교사라며, 이주민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주민 선교의 특징으로 주변화, 무력함, 취약성을 꼽으며, 선교가 다차원적이고 다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에서는 '역선교에 의한 공동 선교' 개념이 강조되며, 새로운 선교 전략이 발전하고 있다.

148 정현곤, "다문화사회," 145-146.
149 정현곤, "다문화사회," 146-147.

이는 중심부와 주변부가 대립적 구도가 아닌,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동의 선교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50]

다섯째, 다문화사회의 전도: 다문화 시대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의 내용은 다문화사회에 재해석되어 포용적인 이미지를 제시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인격적 상호관계를 통해 진리를 전달하고, 설명적 단계를 거쳐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전도자는 질문을 던지며 수용자의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타자의 신앙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리처드 모우(Richard J. Mouw)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확신과 시민적 책임을 함께 지키며, 예의와 겸손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울은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를 수용하여 복음을 전했고,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그리스도교 세계관을 통해 세상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전도는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포용, 상호 존중의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문화를 향해 가지신 사랑을 실천하며, 다문화 사회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151]

여섯째, 다문사회의 선교적 이미지 (우정): 다문화 시대의 선교는 수신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도자와 수신자 간의 상호성을 강조해야 한다. 중요한 이미지는 우정으로, 이는 상호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으로, 진정한 우정의 본을 보여주셨다. 우정의 관계는 진정성 있는 만남을 의미하며, 이는 상호적 노력을 통해 지속된다. 교회는 다문화 시대에 세상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는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관계는 전도와 복음 전파의 기초가 된다. 다문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좋은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다문화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방법이다.[152]

---

150 정현곤, "다문화사회," 147-149.
151 정현곤, "다문화사회," 149-151.
152 정현곤, "다문화사회," 151-152.

일곱째, 다문화 선교 교육: 다문화 선교 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능력을 배양해 다문화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적응 교육과 문화소양 교육이 중요하다. 문화적응 교육은 특정 문화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문화소양 교육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신앙과 문화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이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다수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문화적응 교육은 특정 문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며, 문화소양 교육은 자신의 문화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회가 다문화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교회는 이주민과 한국 교인 모두에게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 문화적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다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교회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153]

정형곤의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다문화 사회에서 성육신적 선교를 통해, 그들 사회로 들어가서, 포용과 환대로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주변인들로서 사회의 변두리로부터 중심부로 이동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선교를 했다. 그들은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며, 적응하여 다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상호 존중의 관계를 형성시켜갔다. 그러한 방식은 분명, 다민족-다문화 사회 내에서 다인종들이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며, 복음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통로가 되었을 것이다.

초대교회의 다문화적 감수성은 그들이 타인종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한 추측은 신학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문화적 감수성이 충만하셨기에, 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선교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들의 본질적 속성이 다문화적이며, 다인종적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게 하셨다.

153 정현곤, "다문화사회," 152-153.

요한네스 블라우(Johannes Blauw)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에 중심을 둔 구속사는 다른 민족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만 독점되는 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세계 만민들과 관계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면, 그는 필연적으로 애굽민족, 팔레스틴민족, 바빌로니아민족, 앗시리아민족 및 그 외의 민족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154] 연구자는 블라우의 관찰에서 하나님 자신이 다민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마저도, 야훼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초대교회를 다루는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신학적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신학적 이해는 교회가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해 차별, 편견과 분리의 태도가 아닌 포용과 환대와 수용의 접근을 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155]

3.3.2 한국교회의 다문화 수용성에 기반한 환대와 포용의 선교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nce)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다문화선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접근 방식을 포함한다.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선교의 기초가 된다. 문화적 이해와 존중 없이 다문화선교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선교사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복음은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은 선교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각 문화에 적합한 접근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는 공동체 중심의 접근이, 다른 문화에서는 개인 중심의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문화선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는 다문화수용성을 실천하는 장소가

---

[154] Johannes Blauw,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New York : McGraw-Hill, 1962), 17.
[155] 참조, 하은경,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 방안 연구," 42-49.

되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문화수용성은 선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선교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성경적-신학적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 속에서, 교회의 선교를 위한 다문화 수용성에 따른 선교를 위한 교회의 실천적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포용과 환대의 가치로 가득 차 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셨다. 사마리아인, 이방인, 세리, 죄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포용적 사랑을 실천하셨다. 사도 바울 또한 다양한 문화권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며 교회가 다문화적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이러한 성경적 사례들은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가 실제로 다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3.3.2.1 환대 선교

환대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로서 자기 비움과 자기희생을 통하여 섬김과 나눔을 이루는 선교이다. 임희모는 레비나스의 타자윤리의 개념과 구조에 기초하여 환대 선교의 신학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 환대 선교: 삼위일체 하나님과 타자를 위한 선교
>
> 삼위일체 하나님은 주체로서, 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과부, 고아, 나그네, 외국인 이주 노동자, 탈북자를 환대하며 그들의 고통을 무한한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대속적 환대 선교를 수행하신다.
>
> 2) 환대 선교: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선교
>
>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비움으로써 성육신하여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해 자신을 비우는 모습을 통해 대속적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간다.
>
> 3) 환대 선교: 자기희생을 통한 성령의 선교

>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를 주체로 변화시키는 영은 혼의 힘을 통해 드러난다. 성령은 변화와 창조의 힘으로, 본능적 이익 추구를 자기희생으로 전환시킨다. 성령은 모든 피조물이 자기희생을 통해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며, 고통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힘으로서 환대 선교를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

4) 환대 선교: 섬김과 나눔의 삶

> 레비나스는 자아가 타자의 고통을 통해 대속적 주체로 변화하며, 타인을 향한 열망과 초월을 통해 환대를 실천한다고 보았다. 기독교인의 삶은 신앙 속에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환대 선교가 드러난다.[156]

삼위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심과 자기희생을 통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셨을 때, 비로소 실현되고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을 좇아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며 섬기고 나눌 때, 비로소 환대를 실천할 수 있다. 학자들의 환대의 방식들의 선교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의 '환대의 식탁'이다. 반재광은 누가와 사도행전의 식사/식탁교제 이야기를 '환대의 식탁'이라는 독특한 관점으로 해석했다. 당시 유대교의 정결 그룹들은 정결에 대한 관심, 부에 대한 편견, 하나님 백성의 정체와 관련된 견고한 배타적 경계들을 구축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식탁교제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누가는 잔치 주인과 베드로의 돌이킴을 통해 배타적 경계를 허물었고, 또한 서로 빵을 떼고 연대감을 향상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 환대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한다.[157]

둘째, 화해의 현상으로서 환대이다. 이희철은 화해의 현상으로서 환대를 말하고 있다. 그는 환대가 실천되는 성향에 따라 상호적 환대, 자기애적 환대, 그리고 무조건적 환대로 나뉜다고 말한다:

> 상호적 환대는 상대방과 공유하는 부분이 전제되어야 마음이 열리고 눈길이 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것이 경험일 수 있고, 신분일 수 있고, 가치관일 수 있고, 신앙일 수 있다. 자기애적 환대는 자기 자신의 내면적 상태에서 환대의 조건을 찾는다. 주체가 객체에게 베푸는 일방적 행위로써, 자신이 우월하다는 인정이 전제되어야 환대를 베풀 수 있다. 무조건적 환대는

156 임희모, "타자와 환대의 선교," 205-207.

157 반재광, "누가의 '환대의 식탁' 연구", 580.

> 보상이나 타인의 환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무조건적 환대는 자기애적 환대같이 자존감 증진 또는 자기실현 획득을 의도하지 않는다.[158]

셋째, '초대의 환대'를 넘어 공정한 '환대'를 위한 열린 마당(*레호브*)으로의 초대이다. 이영미는 환대를 시혜를 베푸는 주체와 수혜자인 타자로 구분하는 환대는 권력자의 주권을 위협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되며, 그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권력을 지닌 약자들—이방인, 여성, 성소수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면서 이는 한국교회의 성서적 전거로 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한다.[159] 그래서 그녀는 성서적 전거로 환대 본문에 나오는 환대의 장소로서의 *레호브*(רְחֹב)에 대해 말하고 있다:[160]

> 레호브는 플라테이아(πλατεία)처럼 넓은 거리나 열린 광장을 지칭한다. 창세기 19장의 경우, 롯이 나그네들에게 집에서 머물 것을 청하자 그들은 거리에서(바레호브) 밤을 새울 것이라고 대답한다(창 19:2). 이 단어는 사사기 19장의 본문에 더 자주 언급되는데, 레위인은 기브아에서 머물기 위해 성읍 넓은 거리(레호브)에 앉아 있지만, 그를 집에 머물도록 초대하는 사람이 없다(15절). 한편, 에브라임 출신으로 기브아에 이주민(게르)로 살고 있는 한 노인은 성읍 넓은 거리(레호브)에서 여행하는 자를 발견하고 그를 집으로 초대하고(16-17절), 거리(레호브)에서 유숙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20절). 반복되어 등장하는 이 단어(레호브)는 갈 곳이 없는 유랑자나 여행객들이 초대받을 곳을 기다리고, 선주민들이 초대할 여행객이나 유랑자를 만나는 상호적인 열린 공간이다. 열린 공간으로서 레호브는 고대 도시의 성문에 위치한 넓은 공간으로 지혜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잠 1:20; 5:16; 7:12; 사 59:14), 정의로운 행동(욥 29:7)과 분쟁이 해결되며(에 4:6; 창 26:22 참조), 군대가 집결하고(대하32:6), 율법이 낭독되는(스 10:9; 느 8:1, 3, 16)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고대 이스라엘 도시에서 레호브는 정의실현과 보호의 장소였으며 또한 영예의 장소(잠 31:23)이기도 하였다.

이영미는 환대의 진정한 의미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며, 그 정의는 밀려난 주변인 타자들을 중심에 함께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마 25:31-46). 이를 위하여 교회는 '레호브'라는 열린 마당의 개념을 통해 공정한 환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161] 이를 통해 교회는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포용적이고 상호적인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

158 이희철, "화해의 현상으로서 환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2013): 305-317.

159 이영미, "공정한 환대를 위한 열린 마당," 154.

160 Ibid., 155.

161 Ibid., 154.

이제 교회는 단순히 사회를 교회로 초대하는 주체가 아니라, 사회 속으로 들어가 주체와 객체의 경계와 위계질서를 허물며 상호적 초대를 통해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연대하는 열린 마당을 제공하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3.3.2.2 포용 선교

'포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162]

> 국어사전에서 '포용'을 찾아보면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남'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존재"를 뜻한다. 즉, 자신과 다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포용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포용력이다. 이는 자신과 비슷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다름을 억지로 같게 만들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다른 상태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이다.
>
> 영어 사전에서는 '관용'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인 리니언시(Leniency)는 "대상을 아량 있게 대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다소 소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반면, 우리가 찾는 '포용'의 의미에 가까운 단어는 자신과 다른 것을 참고 견디면서 받아들여 자신의 일부나 자산으로 삼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해야 한다. 리니언시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을 뜻한다면, 포용은 상대를 품에 안아 더 나은 상태로 함께 나아갈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이에 맞는 단어로는 '관용'이나 '인내'로 번역되는 톨러런스(Tolerance)가 떠오른다. Tolerance는 "견디다, 참다"라는 뜻의 라틴어 'Tolerare'에서 유래했으며, 영어 사전에서는 이를 "고통이나 역경을 견디는 능력" 또는 "자신과 다른 믿음이나 행동을 비난하거나 벌하지 않고 허용하는 태도"라고 정의한다.

고통은 주로 외부의 요인이 나의 경계를 침입해 들어올 때 발생한다. 이런 고통을 주는 존재를 배척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수용하며 견뎌내는 것이 바로 관용(Tolerance)이다. 포용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반면, 관용은 힘들여 견뎌내는 과정을 연상시키며 차가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고통을 견디며 태아를 키워내는 어머니의 노고를 생각해보면, 두 개념은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요약하자면,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포용이자 관용이다.

포용 신학은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를 통해 체계화되었다. 그는 1990 년대 초 발칸 반도에서 일어난 끔찍한 '인종청소'(ethnic cleasing)를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

162 정현천, *포용의 힘* (서울: 트로이목마, 2017), 8-9.

해결책을 성경을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황종하는 볼프의 포용 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인종, 성별, 종교 간의 충돌로 일어나는 정체성의 갈등 문제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데, 이 관계의 방식을 특징 짓는 두 가지 키워드가 '배제'(exclusion)와 '포용'(embrace)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집단들 간의 상호 배척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볼프는 타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직면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포용의 바탕에는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으로 포용하신 예수님이 있다. 볼프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포용의 모습을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을 기반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쳐 나간다. 볼프는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대를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 그분의 길을 거부하고 위로만 취한다면, 그것은 값싼 은총과 기만적 이데올로기 옹호에 불과하다고 본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포용하려는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진리와 정의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타자를 포용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볼프는 이러한 포용의 상대적 개념으로 '배제'를 언급한다. 배제는 받아들이기보다는 쫓아내려는 움직임이며, 특히 자신의 조국에서 일어났던 인종청소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배제라고 언급한다. 배제는 문명 안의 야만성, 선한 것들 사이의 악, 자아의 벽 안에 있는 타자에 대한 범죄라고 본다. 타자를 기꺼이 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배제하지 않는 판단이 배제에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화해의 사역을 추진해야 하는데, 누구도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비록 악한 사람임을 알 때조차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볼프는 배제에서 포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회개, 용서, 자신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 마련하기, 기억의 치유'라는 네 가지 계기가 필요하다고 본다.[163]

황종하에 따르면, 볼프는 화해와 포용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인류와의 깨진 언약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볼프는 그의 책 "배제와 포용"에서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정체성과 타자성의 문제라고 보았다.[164] 볼프는 갈등 해결에서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가인은 이를 거부하고 아벨을 배제했다. 볼프는 정체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중심을 설정하는

163 황종하, "한국교회의 다문화목회유형연구", 50.

164 Miroslav Volf, *배제와 포용,* 박세혁 역 (서울: 도서출판 IVP, 2012), 25.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중심은 자아를 개방하고, 타자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165] 김소리는 “포용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늠자로 삼아 스스로 정체성의 재조정(readjustment of identity)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166] 그러나 연구자는 자기 정체성의 재조정이 스스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닮아갈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볼프는 갈등 해결에서 타자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자기 정체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타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상호 이해를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볼프는 진정한 베풂을 위해 타자를 이해하고, 그들을 향해 무엇인가를 흘려보내는 자로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가짜 베풂이 아닌 진정한 베풂을 위해 소유한 것들, 타인들,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는 자신이 타자를 향해 베푸는 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에 타자성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볼프는 불의한 타자를 포용하려는 의지가 정의에 대한 합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포용의 의지가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67]

김성은의 연구에 따르면, 볼프가 말하는 포용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타자와의 차이를 다루기 위해 '거리두기'와 '소속되기'를 동시에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168] 이는 개인이 문화적 공간 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리두기 없는 소속은 파괴적이고, 소속 없는 거리두기는 고립적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볼프는 자신이 크로아티아인으로서 배타적 정체성을 주장하면 타인을 자신의 이미지에 맞추거나 제거하려 할 것이며,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문화로부터 물러나면 반-크로아티아인으로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행위자들은 '거리두기'와 '소속되기'를 통해 타자의 다름을 수용하여 건강한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자아 안에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며, 이 공간에서

---

165 김소리, "갈등관계의 타자를 포용하는 통일지도자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1), 11-12.

166 김소리, "갈등관계의 타자," 12.

167 김소리, "갈등관계의 타자," 12-20.

168 김성은, "포용적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기독교통일교육"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5), 11.

보편적 인격과 공동체가 보편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모든 문화 속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악이 존재하며, 이 악은 내부적 악과 외부적 악으로 나뉜다. 내부적 악은 복음을 통한 회개로 해결하고, 외부적 악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공교회적 공동체의 노력으로 통제되어야 한다.[169]

이와 같은 포용의 신학적 이해 하에서, 선교의 실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신 그리스도처럼, 차이를 인정하고 타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포용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 모든 인류를 포용하셨다. 볼프는 십자가의 핵심이 타자를 배제하지 않고, 자신 안에 가해자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리스도의 태도라고 설명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두 팔은 하나님 자신 안에 원수까지도 초대하는 공간을 상징하며, 이는 포용의 상징이자 원수를 용서하는 통로가 된다. 따라서 십자가는 원수를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는 적대감에 대한 거부와 사랑을 통한 관계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170] 이는 배제와 반대이며, 수용을 의미한다.

둘째,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포용이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와 결속/연합하시며, 자기를 비우시고, 포기하셨다.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신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해석하며, 이는 삼위일체의 삶을 세상 속에 구현한 것이라고 본다. 삼위일체의 존재방식은 자신을 내어주고 타자를 받아들이는 사랑을 통해 나타나며, 이는 서로 다른 위격들이 상호 내재하는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로 설명한다. 하나님의 각 위격은 다른 위격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 타자를 받아들이는 신적인 사랑의 순환 운동을 의미한다.[171]

셋째, 내어줌과 용납함의 성만찬의 실천으로서 포용이다. 그리스도는 성만찬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고 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타인을 포용하는 사랑의 실천을 보여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17 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169 김성은, "포용적 파트너십," 11.
170 김성은, "포용적 파트너십," 14.
171 김성은, "포용적 파트너십," 15-16.

통해 모두가 하나로 연합됨을 의미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 장 19-20 절에서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중심을 얻는 자아의 재설정을 강조한다.[172]

"포용"은 단순히 다른 존재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연합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설명된다. 연구자는 신학적으로는 미로슬라브 볼프의 이론을 중심으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사랑과 삼위일체의 자기 비우심을 통해 타자를 수용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포용은 개인적, 공동체적 차원에서 모두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가치로 제시된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 자신을 내어주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 다문화인들을 포용해야 할 것이다.

[172] 김성은, "포용적 파트너십," 16-18.

CHAPTER 4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문화사역의 실제

21 세기 들어 한국 사회는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과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다문화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사역의 실제를 분석하여 다문화수용성에 있어 포용과 환대의 관점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4.1.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문화사역의 역사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다문화사역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음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문화사역의 경과이다.

4.1.1 초기 사역 (1990년대 ~ 2000년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90 년대부터 다문화사역을 시작했다. 당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과 사역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특히 1996 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해 외국어예배를 설립하고,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지원하였다. 2008 년부터는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탈북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였다.[173]

---

[173] 사랑과행복나눔 재단은 2008년 4월에 설립되었다. 이 재단은 조용기 목사의 은퇴자금으로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위기 가정 회복,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법률· 주택 집수리지원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회복 등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다 2011년 8월에 “조용기자선재단”으로 명칭과 정관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단법인 사랑과행복나눔 출항", 국민일보, 2024년 7월 8일 액세스,

4.1.2 다문화센터 설립 및 확대 (201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부터 안산 '국경 없는 마을'에 위치한 중국인 교회, 아프리카 공동체 지원을 시작으로 다문화사역을 이어오다, 2013년 8월,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문화센터를 안산 원곡동에 설립했다.[174] 이 센터는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며,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4.1.3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 (2010년대 중, 후반)

2010 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2014 년에는 다문화인 복음화 및 효과적인 복지사역을 위해 다문화선교회를 창립하여 평신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이어갔다.[175] 이를 통해 해외 선교와 더불어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더욱 확장했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각국의 문화 행사를 교회 내에서 개최하여 다문화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NGO 단체인 굿피플과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및 한국어교실도 진행하였다.

4.1.4 최근 사역 (2020년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역을 이어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예배와 성경 공부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 이

---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55&second_category_id=79&id=114774.

174 "여의도순복음교회 안산에 다문화센터 개관", 국민일보, 2024년 7월 8일 액세스, https://m.kmib.co.kr/view.asp?arcid=0007415217.

175 "다문화선교회 창립", 순복음가족신문, 2024년 7월 29일 액세스,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4&second_category_id=23&id=95933.

가운데 이영훈 담임목사의 저서 “감사로 시작하는 365”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3 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만든 콘텐츠는 외국인 성도들에게 뜨거운 반응이 일으키기도 했다.[176]

최근에는 글로벌엘림재단[177]을 통해 더욱 다양한 다문화사역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가족 초청 설 행사와 같은 문화 교류 행사를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그들의 신앙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이해와 포용을 증진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4.2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문화사역의 실제

4.2.1 국제사역국의 다문화사역

4.2.1.1 외국어예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2024 년 8 월 현재, 7 개 언어로 14 개의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 해외유학생 출신들을 위한 별도의 모임을 조직하여 세미나와 성경공부 등을 통해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언어 능력과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과의 소통이 원활하며, 다문화사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대성전 예배에서는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들과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10 개 언어로 31 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 교회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위해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다.[178]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외국인주민과

---

176 “외국어예배부, 3개국 언어로 감사 365 영상 올려”, 순복음가족신문, 2024년 7월 29일 액세스,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4&second_category_id=23&id=108967.

177 글로벌엘림재단(Global Elim Foundation, GEF)은 2022년 6월에 다문화사역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 등록되어 있다. "글로벌엘림재단 창립", 순복음가족신문, 2024년 7월 8일 액세스,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4&second_category_id=24&id=111150.

178 "국제사역국,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순복음가족신문, 2024년 7월 8일 액세스,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3&second_category_id=252&id=123108.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생필품을 비롯하여 사랑의 쌀과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4.2.1.2 다문화센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13 년 이영훈 목사가 순복음가족신문 신년대담 특집에서 "21 세기 선교는 자국민이 자국민 선교를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179]"고 밝혔는데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안산 원곡동에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문화센터"를 설립했다. [180] 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언어별 예배 사역을 비롯하여 이들 가운데 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육하여 자국민 선교사로 파송할 계획 아래, 한국어교실, 상담 및 통역지원센터 등 교육 및 문화 사역, 의료 및 생활 지원 등 구제사역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들의 신앙 생활을 지원하며, 나아가 자국민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첫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잔드라 구나완"은 한국에 이주근로자로 왔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학교에 진학해 사역자가 되었다. 이후 "잔드라 구나완" 전도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사역국 인도네시아어 예배를 이끌었으며, 자신의 고국인 인도네시아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어 복음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181]

이후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문화센터는 교회 안에서의 한계성을 깨닫고, 다문화사역의 확장을 위해 2022 년 5 월 비영리 재단법인인 글로벌엘림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4.2.1.3 네트워크 사역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다문화선교를 위한 연합사역으로 2009 년 '한국 이주자 선교 엑스포'를 '이주자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네트워크'(이하 이선한)와 함께 공동

---

[179] "2013년 이영훈 목사 신년대담", 순복음가족신문, 2024년 7월 8일 액세스,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3&second_category_id=252&id=123214.
[180]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문화센터 설립", 순복음가족신문, 2024년 7월 8일 액세스,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4&second_category_id=23&id=94234.
[181] "잔드라 구나완 전도사 선교사 파송", 순복음가족신문, 2024년 7월 8일 액세스,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2&second_category_id=15&id=94690.

개최하였다.[182] 엑스포는 하루 동안 국가 및 사역별 단체 부스 전시, 이주사역 세미나, 이주선교대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미나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 공산권 등 권역별과 이주여성, 다문화 교회개척, 제자양육 등 선교 영역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선한네트워크의 유해근 목사는 한국교회의 선교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해 이주자 선교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철한 목사도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주자 선교 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필리핀 이주민을 위해 사역 중인 피터 테오도시오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한 복음 전파 사명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183]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ALS(Asia Leaders Summit), OCCK(Overseas Chinese Conference in Korea), 한중지도자교류회, CGI(Church Growth International) 등과 연계하여 유학생,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을 돕는 연합사역을 펼쳐 나가고 있다.

4.2.1.4 다문화축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13 년 부터 다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성도들이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예배 봉사와 한국어 교실 봉사 등 다양한 다문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첫 번째 다문화축제에서는 홍콩에서 활발하게 다문화사역을 펼치고 있는 홍콩 ICA 교회의 에드먼드 테오 목사를 초청하여 '금요성령대망회'에서 다문화사역의 중요성과 다양한 경험을 나누었다. 이영훈 목사는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다문화인을 섬기며, 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선교의 일환" 이라며 "그들의 고향과 민족과의 교류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축제에서는 희귀병에 걸린 '샤메인 정' 성도의 자녀를 돕기 위한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으며, 음식 축제와 전통 공연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영어권, 인도네시아권, 스페인어권, 중국어권, 베트남권, 몽골어권, 일본어권 등 다양한 언어권별 부스를 설치하여 전통 음식 나눔, 의상 체험, 포토존 등 다문화 체험을 통해

[182] "2009 한국 이주자선교 엑스포", 한국기독공보, 2024년 7월 8일 액세스,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4432056004.
[183] "한국 이주자 선교 노하우 한자리에", 국민일보, 2024년 7월 8일 액세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1369683.

다문화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184] 이후 베트남의 날, 중국의 날 등 언어권별로도 다문화 행사를 열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4.2.2 사랑과행복 나눔재단의 다문화사역

사랑과행복 나눔재단은 조용기 목사가 은퇴 후 활동을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자본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재단은 특히 다문화가정, 저소득 한부모 가족, 맞벌이부부 가정, 조손 가정 등 가정의 기능을 잃거나 상처받은 가정에 희망을 주기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였다. 재단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을 위해 긴급생활비 지원, 김장김치 나눔, 무료 건강검진, 이미용 봉사, 주택 보수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특히 2010 년 4 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아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정 및 취약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1 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185] 또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다문화 사역을 지원하였다.[186] 이후 재단은 영산조용기자선재단으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고 있다.

4.2.3 다문화선교회의 다문화사역

2014 년에 평신도를 중심으로 설립된 다문화선교회는 다문화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배 지원 사역, 구제, 의료, 취업, 법률 및 노무 사역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친구 초청 잔치, 무료 백내장 수술 지원, 한국어 사랑 교실, 유학생 장학금 전달, 사랑의 쌀 지원, 명절맞이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특히 다문화

---

184 "제1회 다함께 하는 다문화축제", 순복음가족신문, 2024년 7월 8일 액세스,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4&second_category_id=24&id=94818.

185 "사랑과행복나눔재단 다문화가정 및 취약가정 위해 1억원 지원", 순복음가족신문, 2024년 7월 29일 액세스,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55&second_category_id=79&id=115655.

186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순복음가족신문, 2024년 7월 29일 액세스,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55&second_category_id=79&id=115835.

가정의 고향 방문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경감시키는 사역을 펼쳤다.[187]

4.2.4 NGO 굿피플의 다문화사역

굿피플은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남한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방법부터 자립할 수 있는 창업교육까지 시켜주는 자유시민대학을 운영하였다. 설립 배경은 한국 사회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본주의 경제사회 부적응, 문화차이로 인한 이질감, 내면적 상처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굿피플에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남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현실적, 체계적, 통합적 정착 교육을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188]

또한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랑의 의료봉사도 펼쳐 나가고 있다. 사랑의 의료봉사는 전문의료진 40 여명,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내과, 안과, 외과, 치과, 피부과, 한방, 산부인과, 소아과 등 사랑의 인술을 전하고 있다.[189] 더불어 사랑의 희망박스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들의 국내 생활 정착을 돕고 있다. 사랑의 희망박스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주방세제, 물티슈, 샴푸, 섬유유연제, 치약, 타월 등 생필품과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품이 담겨 있다.

4.2.5 글로벌엘림재단(Global Elim Foundation)의 다문화사역

글로벌엘림재단(GEF)은 2022 년 5 월 여의도순복음교회 후원으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인의 국내정착과 사회통합이라는 사명을 앉고 설립되었다. 재단은 사무국 외에 엘림다문화센터(EMC), 글로벌멘토링센터(GMC), 글로벌트라우마센터(GTC)로 이루어져 다양한 다문화사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엘림다문화센터(EMC)는 다문화가족 및

---

187 "다문화선교회 유정아 성도 가족 생계지원", 순복음가족신문, 2024년 7월 29일 액세스,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4&second_category_id=24&id=100159.

188 이바울, "다문화 사역을 통한 선교적 교회 모델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2014), 85-86.

189 "굿피플 사랑의 의료봉사", 순복음가족신문, 2024년 7월 29일 액세스,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4&second_category_id=24&id=91941.

외국인 주민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지원하며, 다양한 국내외 이주민 기관과 네트워크를 맺고 교회들과 연합하여 한국교회의 다문화 이주민 사역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재단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한결핵협회 등과 MOU 를 체결하여 특화된 의료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필품과 간편식품 등을 담은 '다문화행복꾸러미'를 통해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노동자들의 생활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문화 체험으로는 명절, 문화재 및 명소 방문, 음식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사업으로는 다문화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다문화 인식과 소양 교육을 진행한 후 다문화사역에 봉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범죄 피해 예방교육 및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교육 등 유학생과 이주노동자에 맞춰 특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3 년 추석에는 약 800 명의 다문화인이 함께 모여 나라별 콘서트를 펼쳤다. 이후 롯데월드로 장소를 옮겨 민속촌, 어드벤처, 아쿠아리움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다문화 이주민 사역자들과 함께 다문화전문가포럼, 다문화 컨퍼런스, 외국인 주민 간담회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의 다문화 이주민 사역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인들의 행복을 위한 귀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글로벌엘림재단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본인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디아스포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강조하며, 평소에도 설교나 사회 참여를 통해 다문화·이주민 사역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190] 2023 년 2 월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박진 외교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주요 대학 총장과 언론인, 그리고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케냐, 콜롬비아 등 20 개국 주한 외국 대사들을 초청하여 재단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 저출산 위기를 맞아 이민청 설립 등 이주민 정책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제껏 외국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앞으로는 재단을 통해 사회 통합과 이주민 복지를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한다”며 재단법인 출범을 축하했다.[191] 이제 글로벌엘림재단의 사역은

[190] "글로벌엘림재단, 8개국 유학생에 장학금 전달", 국민일보, 2024년 7월 29일 액세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917768.
[191] "이영훈 목사의 새 도전 '외국인 정착 지원'", 조선일보, 2024년 7월 29일 액세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 지원, 심리 정서 지원, 멘토링 등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전체의 삶을 돕고 있다.

4.3 평가 및 향후 방향

본 장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문화 사역들이 성도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고 다문화 선교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4.3.1 환대와 포용의 관점에서의 평가

앞서 다룬 성경적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환대와 포용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낯선 자를 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의 다문화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 다룬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양한 다문화 사역, 예를 들어 국제사역국, 사랑과행복나눔재단, 글로벌엘림재단 등의 활동은 다문화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교회의 헌신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들은 성경적 환대와 포용의 원칙을 실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특히 성도들의 참여도와 수용성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회 지도부의 노력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간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4.3.2 문화적 수용성이 다문화 선교에 미치는 영향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문화적 수용성 수준은 다문화 선교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문화적 수용성이 높은 성도일수록 다문화 선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회 내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노력은 성도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해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https://www.chosun.com/culture-life/relion-academia/2023/03/01/BY2ZBQ3GGBCXFDESUKFHFJMBRQ.

4.3.3 향후 방향

다문화 선교의 목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문화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강화된 다문화 교육: 다문화주의, 다양성, 성경적 환대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존의 편견을 도전하고 깊이 있는 문화적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참여 기회 제공: 성도들이 다문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이주민 공동체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다문화 행사 및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리더십 개발: 교회 내에서 다문화 사역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고, 이들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평가 및 피드백 체계: 다문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성도들의 문화적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활발하고 효과적인 다문화 선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5

연구 방법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특히, 교회공동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다문화 수용성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선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성도들이 다문화선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으로는 양적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합당한 측정도구를 선정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한다. 그리고 다문화선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측정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결과 분석을 하려고 한다. 수집된 설문 데이터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 통계, 상관관계 분석, 이원배치 분산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선교 활동의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종교 기관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교회공동체 안에서의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을 실증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다문화선교 활동의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5.1 연구 질문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선교를 위한 다문화수용성의 성경적-신학적 이해는 무엇인가?

둘째,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문화의 수용성은 어떠한가?

셋째,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문화의 수용성은 다문화선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문화선교를 위해,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5.2 연구 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을 조사하고, 나아가 다문화선교 활동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진행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앞서 보안성 검토와 설문 승인을 받고, 본 연구의 표본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층화표본추출 방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통하여 모집단으로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연령 및 직분을 고려하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역자, 직원 그룹으로 표본 집단을 선정했다.[192]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조사 방식을 택하여 2024 년 6 월부터 8 월까지 약 2 개월간에 걸쳐 온라인 구글 설문지 폼(Google Survey Form)을 통해 진행했다.

5.3 연구 절차

5.3.1 연구 대상

다문화 선교를 위한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를 표본 대상으로 선정한다.

192 층화표본추출은 먼저 모집단을 여러 집단으로 나눈다. 전체 표본을 각 집단에서 조금씩 임의로 뽑는다. 층화표본 추출은 각 표본이 해당 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선호된다. 이 방법은 모든 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얻고 싶을 때 많이 사용된다.

모집단 표본추출방법은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한다. 층화표본추출방법은 각 집단계층별로 표본크기를 결정할 때, 각 집단 계층별로 구성비율을 고려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인 비례층화표본추출로, 이 방법은 조사대상을 여러 개의 하위 집단이나 층으로 분류한 다음, 각 하위집단이나 층의 모집단으로부터 일정 크기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본오차를 줄일 수 있고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93]

모집단은 총 120 명이다. 모집단 선정기준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로 만 40 대 이상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목사, 평신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의 분석을 통해 교회가 다문화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사역의 실행과 정책 형성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인 성도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연구 목적에 더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평신도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본 연구는 다문화 사역 실행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집단의 태도와 인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경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직분, 신앙연수 등이 있다. 다문화 선교 관련 경험 특성으로는 해외선교 경험, 다문화 선교, 외국인 또는 이주민과의 관계, 다문화교육 경험, 다문화 행사 및 봉사·동호회 활동 경험 등의 요인이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의 구성 요소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5.3.2 설문지

연구 질문에 따라 설문지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도들의 문화의 수용성은 어떤지 측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2012 년부터 3 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 다문화 수용성

193 “층화표본추출방법”, 위키백과, 2024년 4월 1일액세스, https://ko.wikipedia.org/wiki/%EC%B8%B5%ED%99%94%ED%91%9C%EC%A7%91.

진단도구(KMCI)를 활용할 것이다. 이를 위한 설문지는 부록의 '나'항목의 다문화수용성 관련 질문에 해당하며, 총 27 문항이다.

둘째,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문화의 수용성은 다문화선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경험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한다. 해외선교 경험, 다문화 예배, 외국인 또는 이주민과의 관계, 다문화교육 경험, 다문화 행사 및 봉사·동호회 활동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지는 부록에 있는 '다'항목 다문화선교 관련 질문 중 1 번에서 19 번에 해당한다.

셋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문화 선교를 위해,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은 '다'항목 다문화선교 관련 질문에서 20 번에 해당한다. 또한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그룹을 확인하여 그 그룹에서의 다문화선교 관련 경험요소 중 어떤 부분이 높은지를 통해 그 부분을 연구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3.3 데이터 수집

자료 수집은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후 다문화에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여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며 관련 학술자료, 학위 논문, 도서, 저널 등의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다문화 봉사자 소양교육 및 다문화학교 강사 경험을 통해 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으며, 다문화선교를 위해서는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2023 년 글로벌엘림재단 다문화 컨퍼런스 주최 경험과 타 기독교 기관의 다문화 관련 포럼 참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5.3.4 데이터 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를 기초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측정도구는 이주민이 아닌

정주민 다시 말해 주류집단의 입장, 즉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다양성 항목은 주류집단이 자기들의 국민정체성과 민족주의적 문화의 우수성을 고집하는지, 아니면 이주민집단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자기집단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관계성 항목은 주류집단이 이주민집단과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지와 관련된 차원으로서, 이주민들과 얼마나 통합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세 번째, 보편성 항목은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설정된 차원이다. 한국인들은 이주민을 바라볼 때, 그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이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그에 따른 차별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194] 보편성 차원은 주류집단이 이주민집단에 대해서 그 집단의 경제발전수준, 문화적 차이 등과 상관없이 얼마나 일관되고 보편적 태도를 가지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9.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 신뢰도를 검토하는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다문화관련 경험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및 다문화 태도의 하위변수들의 차이와 연관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 및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시행하였다.

다문화수용성 지수(KMAI: Korea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를 산출하기 위해서 각 문항을 수용성 방향으로 역부호화 작업을 하였고, 각 문항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총점 및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수용성 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것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국민 및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와의 비교 분석을 위한 것이다. 다문화 태도에 대한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일부 문항은 역부호화 작업을 적용하여, 총점 및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

194 황정미, "한국 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연구 보고서 2007*, no.19-2 (2007): 38.

다문화 수용성 및 다문화 태도에 측정 문항에 대한 배열과 역부호화 문항 및 가중치가 부여된 배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 태도 진단도구 현황

척도		문항 수	총점	가중치	역부호화 현황
다문화수용성		35	175	100	-
다양성	문화 개방성	4	20	12	문항 4
	국민 정체성	4	20	13	전체 문항
	고정관념/차별	7	35	14	전체 문항
관계성	일방적 동화기대	4	20	12	전체 문항
	거부.회피 정서	3	15	14	전체 문항
	상호교류 행동 의지	4	20	12	없음
보편성	이중적 평가	4	20	12	전체 문항
	세계시민 행동 의지	5	25	11	없음
다문화 태도		19	95	100	없음
다문화 관계성		11	55	58	없음
한국사회 영향		8	40	42	전체 문항

위의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인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의 가중치 적용방법을 적용하여 다문화수용성지수(KMAI: Korea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text{다문화수용성지수}(KMAI) = \frac{\sum_{j=1}^{8} w_j \overline{X_j} - \sum_{j=1}^{8} w_j}{(r-1) \times \sum_{j=1}^{8} w_j} \times 100 \quad (1)$$

주: $\overline{X_j}$는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의 측정변수 j의 평균 값
r은 측정변수의 Likert 척도의 범위 (KMCI는 6점 척도이므로, r=6)
w_j는 측정변수 j의 비율로 환산된 가중치

[그림 2] 다문화 수용성 지수 계산 공식

다문화수용성지수(KMCI)는 다문화 수용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지수로,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 성도들의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지수(KMCI)를 산출하기 위해 위 공식을 활용하였다.

위 공식은 다문화 수용성의 세 가지 차원(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에 대해 각각 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통합하여 전체 수용성을 나타내는 종합 점수를 제공한다. 모든 항목은 수용성 방향으로 역부호화 작업이 이루어진 후, 각 문항에 가중치가 적용된다. 도표는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연구의 논리적 흐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문화수용성지수(KMCI)는 교회 성도들의 다문화 인식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회의 다문화 사역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다. 도표와 함께 제시된 결과는 연구 결과를 명확히 전달하며,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회의 다문화 사역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문화 사회에서 신앙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CHAPTER 6

분석

본 장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문화 수용성과 선교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 질문과 가설을 검증하고, 교회의 다문화 사역과 성도들의 선교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만 40 세 이상 총 150 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했고, 이중 120 명에게 설문결과를 회수하였다.

설문 항목은 다문화 수용성과 선교 행동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구성되었다:

*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차원을 측정

* 선교 행동: 다문화 행사 참여 빈도, 봉사활동 경험, 선교 관심도

*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성별, 신앙 연수, 직업 등

분석 방식은 SPSS 29.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의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 기술 통계: 응답자의 기본 특성과 데이터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빈도 분석

* 신뢰도 분석: 설문 항목의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계수 사용

* 상관 분석: 다문화 수용성과 선교 행동 간의 상관관계 파악

* t-test 및 ANOVA: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및 선교 행동의 차이를 분석

* 이원배치분산분석: 두 개의 독립변수(다문화 수용성)가 종속변수(선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여 각 독립변수의 주효고와 두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평가

이 분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성도들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과 선교 행동의 관계를 규명하여, 다문화 선교 참여를 이끄는 주요 요인을 파악한다.
2. 다문화 사역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하여, 교회의 사역 방향성을 제시한다.
3.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4. 본 장의 분석 결과는 성도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6.1 양적 연구방법 결과

6.1.1 인구통계학적 분석

6.1.1.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66 명(55%)으로 남자 54 명(4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 대가 43 명(35.83%), 50 대가 44 명(36.67%), 60 대가 23 명(19.17%), 70 대가 10 명(8.33%)였다. 직분별로는 교역자가 31 명(25.83%), 장로가 12 명(10.83%), 권사가 16 명(13.33%), 안수집사 11 명(9.17%), 서리집사가 33 명(27.50%), 평신도가 16 명(13.33%)였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28 명(23.33%), 대재/전문대졸이 15 명(12.50%), 석사 이상이 42 명(35%), 학사가 35 명(29.17%)였다. 월 소득별로는 100~200 만원 미만이 12 명(10%), 200~300 만원 미만이 25 명(20.83%), 300~400 만원 미만이 43 명(35.83%), 400~500 만원 미만이 12 명(10%), 500 만원 이상이 28 명(23.33%)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남녀 비율별로 다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인구통계학적 성별 특성

구분	남성 (N, %)	여성 (N, %)	비고
성별	54 (45%)	66 (55%)	
연령대			
40-49 세	25 (55.81%)	18 (44.19%)	
50-59 세	14 (31.82%)	30 (68.18%)	
60-69 세	12 (52.17%)	11 (47.83%)	
70 세 이상	3 (30.00%)	7 (70.00%)	
직분			
교역자	23 (74.19%)	8 (25.81%)	
권사	0 (0%)	16 (100%)	
평신도	1 (6.25%)	15 (93.75%)	
서리집사	7 (21.21%)	26 (78.79%)	
안수집사	11 (100%)	0 (0%)	
장로	12 (92.31%)	1 (7.69%)	
학력			
고졸	5 (17.86%)	23 (82.14%)	
대재/전문대	4 (26.67%)	11 (73.33%)	
학사	16 (45.71%)	19 (54.29%)	
석사 이상	29 (69.05%)	13 (30.95%)	
월소득			
100-200 만원	1 (8.33%)	11 (91.67%)	
200-300 만원	8 (32.00%)	17 (68.00%)	
300-400 만원	22 (51.16%)	21 (48.84%)	

400-500 만원	6 (50.0%)	6 (50.0%)	
500 만원 이상	17 (60.71%)	11 (39.29%)	

성별에 따른 응답자의 구성을 보면 남성이 54 명, 여성이 65 명이었다. 그리고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40 대와 60 대에서 더 많고, 여성은 50 대와 70 대에서 더 많았다. 이는 연령별 교회 활동 참여 성향에서 남녀(성별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분별 성별 분석을 살펴보면 남성이 교역자, 안수집사, 장로 직분에서 더 많았고, 여성은 권사, 서리집사에서 더 많았다. 학력에서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들이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학력이 높은 남성과 리더십 역할을 감당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문화 사역에 대한 적응성과 잠재력은 학력이 높을 수록이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표 5 와 그림 5 를 통해 입증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여성이 저소득 구간에서 더 많고, 남성이 고소득 구간에서 더 많았고, 경제적 상황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때 유의미한 배경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6.1.1.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검증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후분석을 위해 Scheffe 방법을 활용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의 확률이 0.05 보다 작으면 별 한 개, 유의수준 0.01 보다 작으면 별 두 개, 유의수준 0.001 보다 작으면 별 세 개를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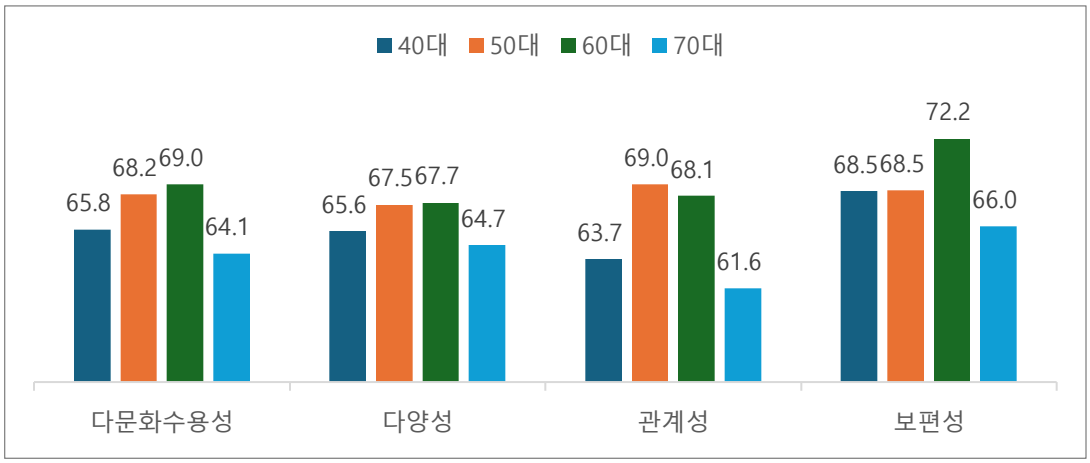
먼저 나이 연령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분석결과는 [표 3], [그림 3]와 같다.

[표 3] 나이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다문화 수용성	40대	43	65.75	9.97	1.171	.324	-
	50대	44	68.23	8.88			
	60대	23	68.97	10.37			

	70대	10	64.06	4.86			
	전체	120	67.14	9.37			
다양성	40대	43	65.64	12.26	.316	.814	-
	50대	44	67.52	11.66			
	60대	23	67.65	14.17			
	70대	10	64.67	6.72			
	전체	120	66.63	12.00			
관계성	40대	43	63.68	12.61	2.308	.080	-
	50대	44	68.97	11.01			
	60대	23	68.14	11.22			
	70대	10	61.64	7.30			
	전체	120	66.30	11.61			
보편성	40대	43	68.48	8.69	1.542	.207	-
	50대	44	68.54	9.29			
	60대	23	72.17	8.60			
	70대	10	66.00	3.15			
	전체	120	69.00	8.67			

주 1) ***: p<0.001, **: p<0.005, *: p<0.05



[그림 3] 나이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나이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60 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50 대, 40 대, 70 대 순으로 나타났다. F 값은 1.171 이고, p 값은 0.324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는 다양성은 60 대, 50 대, 40 대, 70 대 순으로 나타났고, 관계성은 50 대, 60 대, 40 대, 70 대 순으로 나타났다. 보편성은 60 대, 40 대와 50 대가 동일했고, 그 다음으로 70 대 순이었다.

한편 나이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결과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70 대 그룹의 다문화수용성지수가 낮은 것을 볼 때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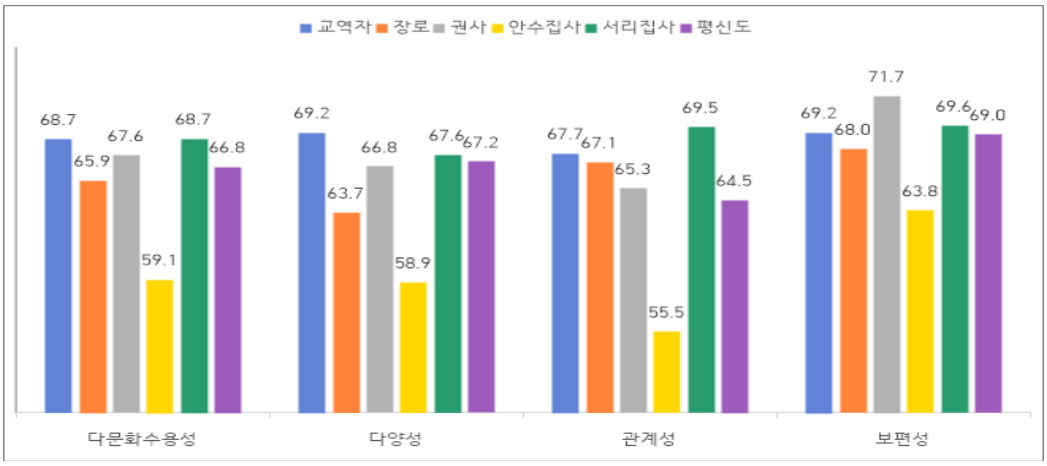
직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분석결과는 [표4], [그림 4]와 같다.

[표 4] 직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다문화 수용성	교역자	31	68.7	10.2	2.138	.066	-
	권사	16	67.6	7.9			
	서리집사	33	68.7	9.3			
	안수집사	11	59.1	8.9			
	장로	13	65.9	6.3			
	평신도	16	66.8	9.9			
	전체	120	67.1	9.4			
다양성	교역자	31	69.2	11.9	1.422	.222	-
	권사	16	66.8	12.5			
	서리집사	33	67.6	11.6			
	안수집사	11	58.9	12.8			
	장로	13	63.7	7.6			
	평신도	16	67.2	13.8			

	전체	120	66.6	12.0			
관계성	교역자	31	67.7	12.5	2.802	.020*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사	16	65.3	10.0			
	서리집사	33	69.5	11.7			
	안수집사	11	55.5	10.7			
	장로	13	67.1	9.3			
	평신도	16	64.5	10.2			
	전체	120	66.3	11.6			
보편성	교역자	31	69.2	7.8	1.160	.333	-
	권사	16	71.7	7.3			
	서리집사	33	69.6	10.6			
	안수집사	11	63.8	5.8			
	장로	13	68.0	6.8			
	평신도	16	69.0	9.7			
	전체	120	69.0	8.7			

주 1) ***: p<0.001, **: p<0.005, *: p<0.05



[그림 4] 직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직분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교역자와 서리집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권사, 평신도, 장로, 안수집사 순으로 나타났다. F 값은 2.138 이고, p 값은 0.066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은 교역자, 서리집사, 평신도, 권사, 장로, 안수집사 순으로 나타났고, 관계성은 서리집사, 교역자, 장로, 권사, 평신도, 안수집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편성은 권사, 서리집사, 교역자, 평신도, 장로, 안수집사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안수집사 그룹의 다문화수용성지수가 낮은 것을 볼 때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직분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결과 관계성 영역에서 F 값은 2.802 이고, p 값은 0.020 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안수집사 집단이 서리집사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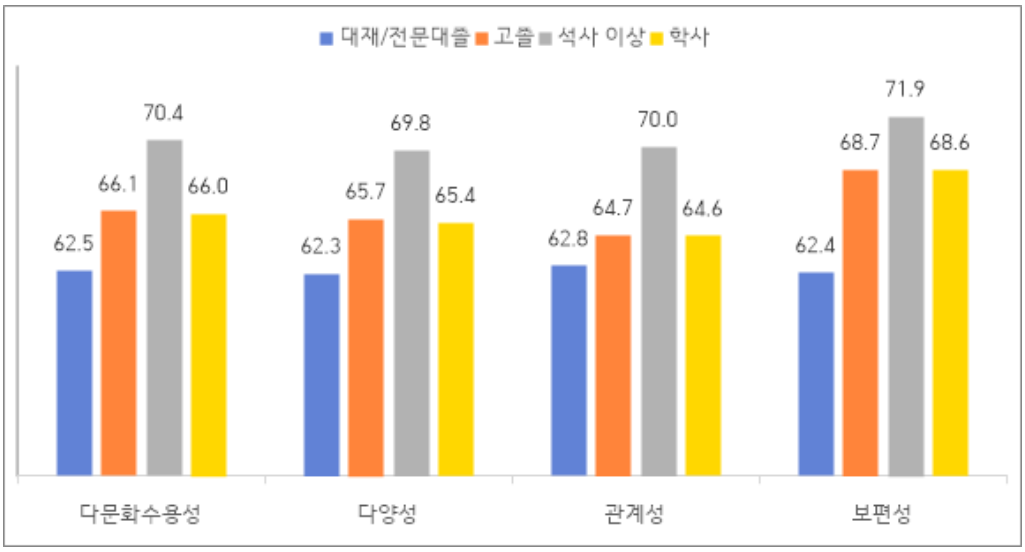
학력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분석결과는 [표 5], [그림 5]와 같다.

[표 5] 학력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다문화 수용성	고졸	28	66.12	8.86	3.457	.019*	대재/전문대졸 < 석사 이상
	대재/전문대졸	15	62.48	9.31			
	학사	35	65.99	9.93			
	석사 이상	42	70.44	8.41			
	전체	120	67.14	9.37			
다양성	고졸	28	65.67	12.02	1.873	.138	-
	대재/전문대졸	15	62.31	12.76			
	학사	35	65.41	12.60			
	석사 이상	42	69.84	10.77			
	전체	120	66.63	12.00			
관계성	고졸	28	64.68	11.66	2.422	.069	-

	대재/전문대졸	15	62.79	11.12			
	학사	35	64.62	11.97			
	석사 이상	42	70.04	10.84			
	전체	120	66.30	11.61			
보편성	고졸	28	68.65	8.03	4.985	.003**	대재/전문대졸 <석사 이상
	대재/전문대졸	15	62.37	8.12			
	학사	35	68.63	9.38			
	석사 이상	42	71.90	7.44			
	전체	120	69.00	8.67			

주 1) ***: p<0.001, **: p<0.005, *: p<0.05



[그림 5] 학력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학력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석사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고졸, 학사, 대재/전문대졸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과 관계성, 보편성 모두 석사이상, 고졸, 학사, 대재/전문대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결과, 다문화 수용성지수에서는 F 값은 3.457 이고, p 값은 0.019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대재/전문대졸 집단이 석사 이상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에서는 보편성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F 값은 4.985 이고, p 값은 0.003 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Scheffe 사후분석 결과 대재/전문대졸 집단이 석사 이상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다문화수용성지수 분석 결과, 학력이 높을 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다문화적 태도와 행동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가 다른 집단 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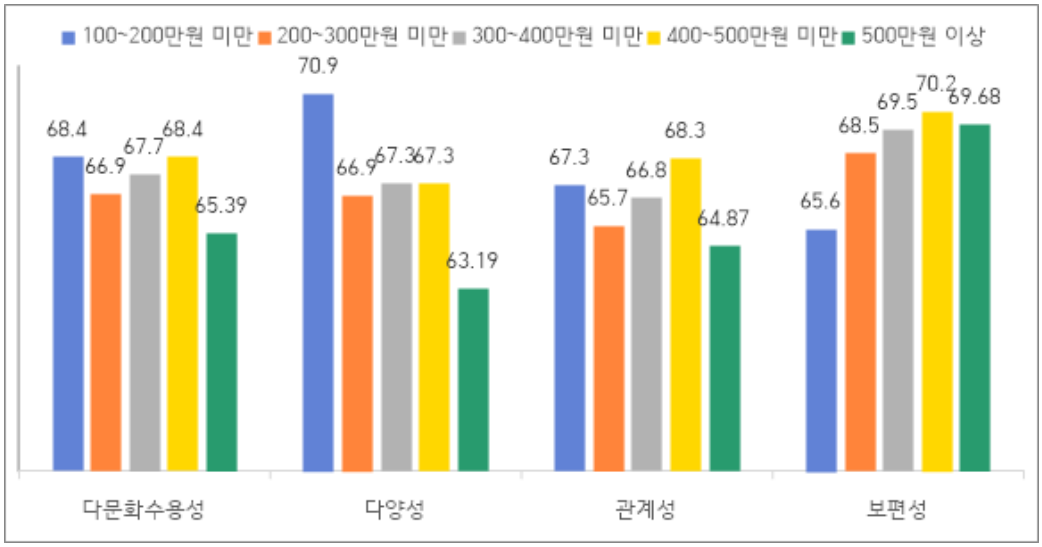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분석결과는 [표 6], [그림 6]과 같다.

[표 6]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다문화 수용성	100~200만원 미만	12	68.38	12.83	.385	.819	-
	200~300만원 미만	25	66.93	8.92			
	300~400만원 미만	43	67.71	7.86			
	400~500만원 미만	12	68.38	7.08			
	500만원 이상	28	65.39	11.29			
	전체	120	67.14	9.37			
다양성	100~200만원 미만	12	70.89	16.13	1.005	.408	-
	200~300만원 미만	25	66.88	11.87			
	300~400만원 미만	43	67.35	10.01			
	400~500만원 미만	12	67.33	8.72			
	500만원 이상	28	63.19	13.95			
	전체	120	66.63	12.00			
관계성	100~200만원 미만	12	67.27	13.76	.248	.910	-
	200~300만원 미만	25	65.67	10.40			
	300~400만원 미만	43	66.77	10.22			
	400~500만원 미만	12	68.33	10.50			
	500만원 이상	28	64.87	14.44			
	전체	120	66.30	11.61			
편성 점수	100~200만원 미만	12	65.56	9.92	.613	.654	-
	200~300만원 미만	25	68.53	8.03			
	300~400만원 미만	43	69.46	8.73			

	400~500만원 미만	12	70.19	8.66			
	500만원 이상	28	69.68	8.83			
	전체	120	69.00	8.67			

주 1) ***: p<0.001, **: p<0.005, *: p<0.05



[그림 6]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100~200 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와 400~500 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300~4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F 값은 0.385 이고, p 값은 0.819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은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집단이 동일했고, 그 다음으로 200~3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성은 400~5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보편성은 400~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300~4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지수 및 하위 영역 모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1.2 경험에 따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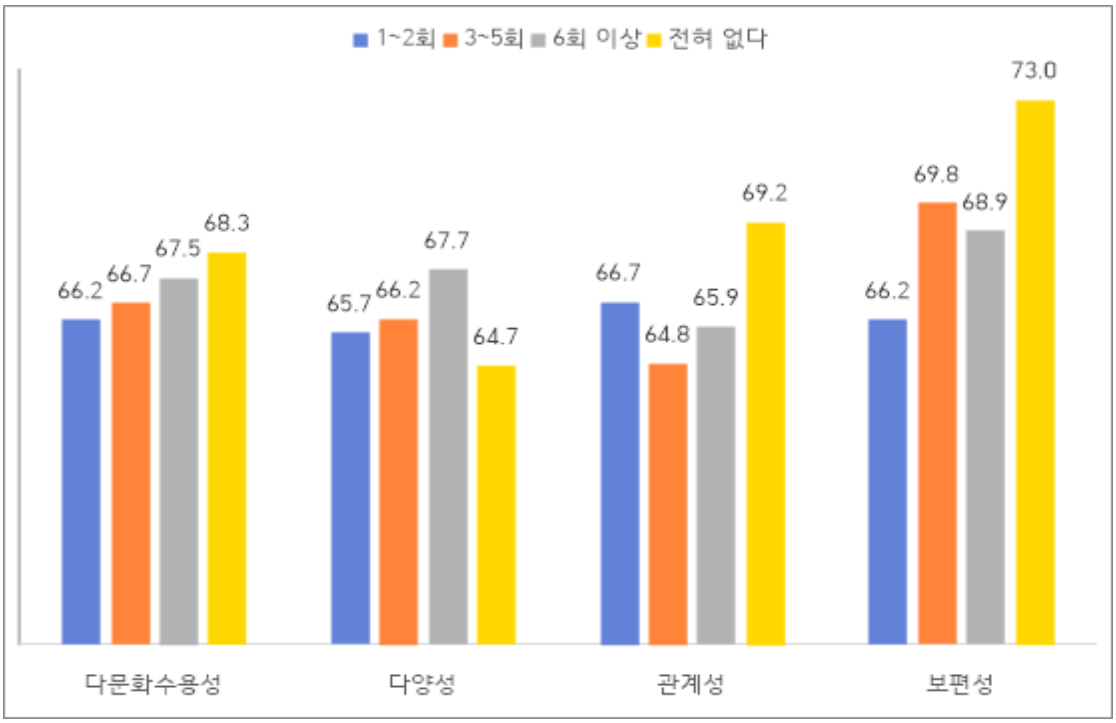
6.1.2.1 다문화경험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검증결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경험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 Scheffe 를 통해 검증하였다.

[표 7] 해외 여행 및 해외 거주 경험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다문화 수용성	1~2 회	26	66.15	9.56	.205	.892	-
	3~5 회	22	66.68	9.99			
	6 회 이상	57	67.47	9.01			
	전혀 없다	15	68.27	10.26			
	전체	120	67.14	9.37			
다양성	1~2 회	26	65.74	13.35	.336	.799	-
	3~5 회	22	66.18	12.79			
	6 회 이상	57	67.72	11.32			
	전혀 없다	15	64.71	11.66			
	전체	120	66.63	12.00			
관계성	1~2 회	26	66.71	11.57	.462	.710	-
	3~5 회	22	64.79	12.68			
	6 회 이상	57	65.93	11.38			
	전혀 없다	15	69.21	11.59			
	전체	120	66.30	11.61			
보편성	1~2 회	26	66.15	8.15	2.141	.099	-
	3~5 회	22	69.80	8.05			
	6 회 이상	57	68.93	8.31			
	전혀 없다	15	73.04	10.65			
	전체	120	69.00	8.67			

주 1) ***: $p<0.001$, **: $p<0.005$, *: $p<0.05$



[그림 7] 해외여행 및 해외 거주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해외여행 및 해외 거주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전혀 없다' 라는 응답자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6 회 이상, 3~5 회, 1~2 회 순으로 나타났다. F 값은 0.205 이고, p 값은 0.892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은 친구, 친척, 동료, 이웃,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해외여행 및 거주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이주의 초창기 시대를 지나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이주민이 입국하여 거주하게 되었고,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는 빈도가 높아서 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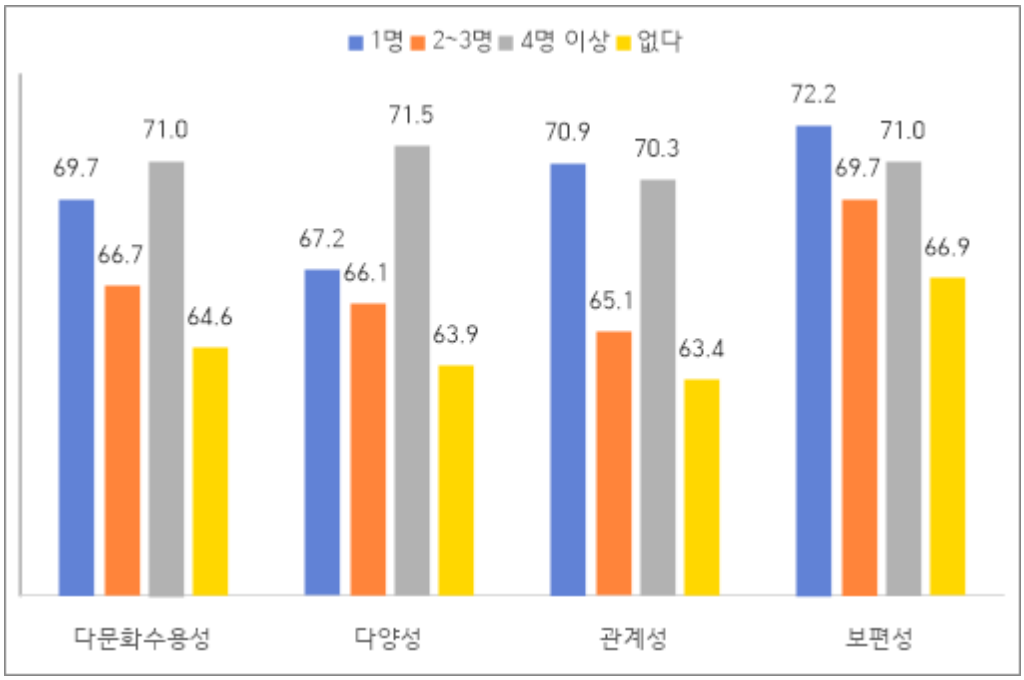
이주민/외국인 친구의 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친구가 4 명 이상인 응답자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1 명, 2~3 명, 없다 순으로 나타났다. F 값은 3.791 이고, p 값은 0.012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의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은 4 명 이상, 1 명, 2~3 명, 없다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성과 보편성은 모두 1 명, 4 명 이상, 2~3 명, 없다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성과 관계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의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이주민/외국인 친구 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다문화 수용성	1 명	12	69.7	11.4	3.791	.012*	n/a
	2~3 명	20	66.7	7.9			
	4 명 이상	32	71.0	9.5			
	없다	56	64.6	8.7			
	전체	120	67.1	9.4			
다양성	1 명	12	67.2	15.7	2.857	.040*	n/a
	2~3 명	20	66.1	9.3			
	4 명 이상	32	71.5	11.3			
	없다	56	63.9	11.8			
	전체	120	66.6	12.0			
관계성	1 명	12	70.9	10.5	3.307	.023*	n/a
	2~3 명	20	65.1	10.2			
	4 명 이상	32	70.3	13.1			
	없다	56	63.4	10.7			
	전체	120	66.3	11.6			
보편성	1 명	12	72.2	10.8	2.263	.085	-
	2~3 명	20	69.7	7.3			
	4 명 이상	32	71.0	8.1			
	없다	56	66.9	8.6			
	전체	120	69.0	8.7			

주 1) ***: p<0.001, **: p<0.005, *: p<0.05



[그림 8] 이주민/외국인 친구 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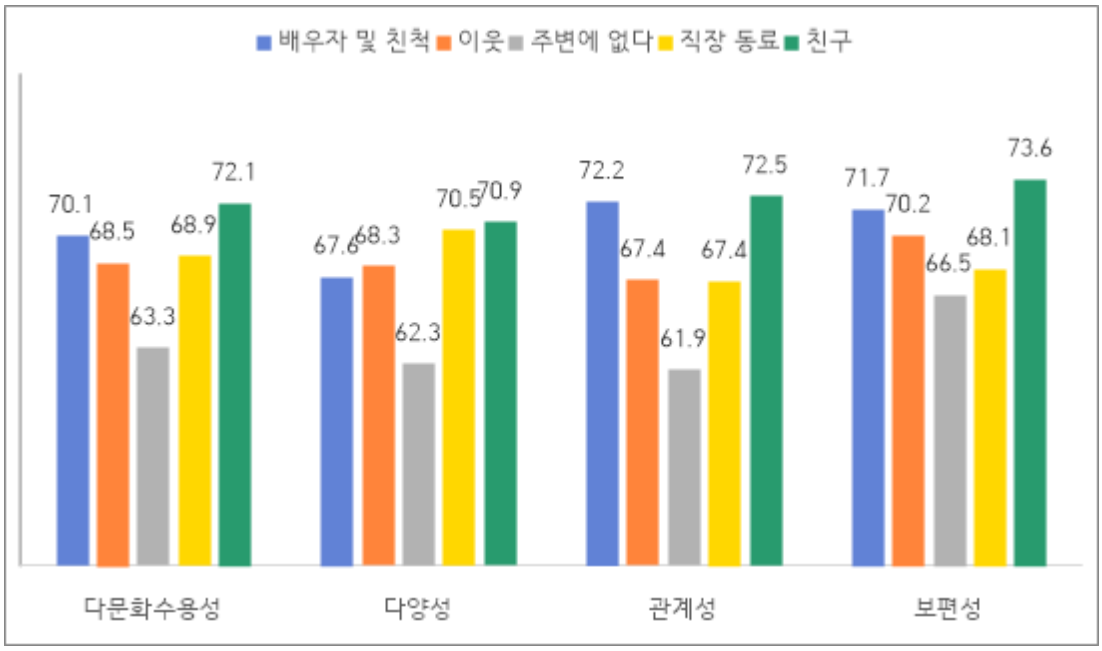
이주민/외국인의 관계 유형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친구 관계를 맺는 응답자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배우자 및 친척, 이웃, 직장 동료,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F 값은 4.298 이고, p 값은 0.003 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의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은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배우자 및 친척,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F 값은 3.008, p 값은 0.021 로 통계상 유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관계성에서는 친구, 배우자 및 친척, 이웃과 직장 동료,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F 값은 3.986, p 값은 0.005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보편성은 친구, 친척, 이웃, 없음, 동료 순으로 나타났으나, 사후분석에서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9] 이주민/외국인 관계 유형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다문화 수용성	배우자 및 친척	7	70.12	11.27	4.298	.003**	n/a
	이웃	26	68.48	7.70			
	주변에 없다	48	63.27	8.55			
	직장 동료	20	68.89	9.19			
	친구	19	72.12	10.02			
	전체	120	67.14	9.37			
다양성	배우자 및 친척	7	67.62	11.36	3.008	.021*	n/a
	이웃	26	68.26	9.58			
	주변에 없다	48	62.31	12.44			
	직장 동료	20	70.47	10.41			
	친구	19	70.95	13.14			
	전체	120	66.63	12.00			
관계성	배우자 및 친척	7	72.21	13.06	3.986	.005*	n/a
	이웃	26	67.41	10.00			
	주변에 없다	48	61.93	9.97			
	직장 동료	20	67.36	12.86			
	친구	19	72.54	12.37			
	전체	120	66.30	11.61			
보편성	배우자 및 친척	7	71.75	11.88	2.800	.029*	n/a
	이웃	26	70.17	9.33			
	주변에 없다	48	66.53	7.54			
	직장 동료	20	68.11	7.40			
	친구	19	73.57	8.89			
	전체	120	69.00	8.67			

주 1) ***: $p<0.001$, **: $p<0.005$,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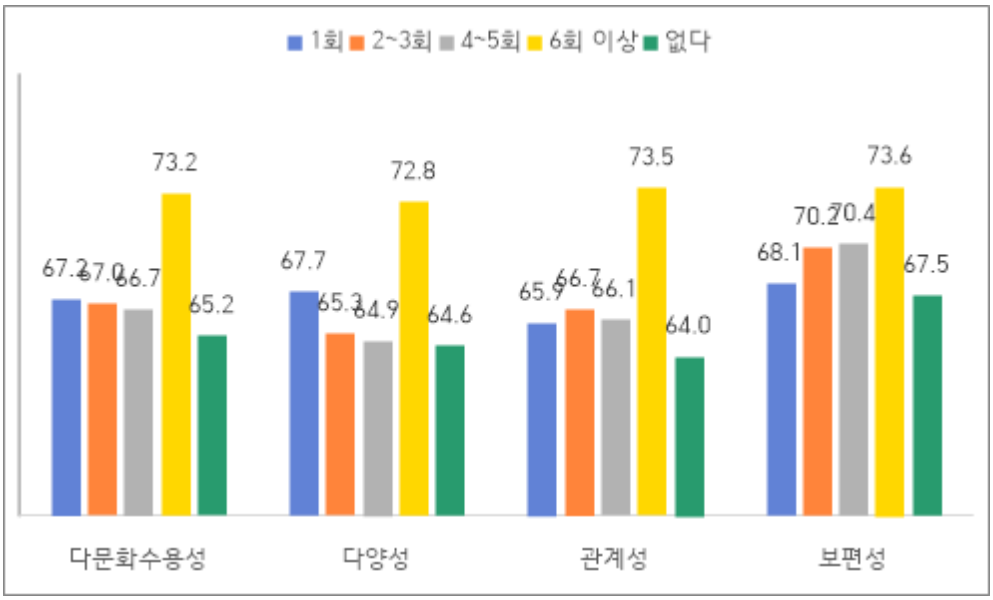
[그림 9] 이주민/외국인 관계 유형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다문화 교육 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다문화 교육을 많이 받은 응답자가 가장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 회 이상, 1 회, 2~3 회, 4~5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은 6 회 이상, 1 회, 2~3 회, 4~5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성은 6 회 이상, 2~3 회, 4~5 회, 1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편성은 6 회 이상, 4~5 회, 2~3 회, 1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교육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지수의 F 값은 2.323 이고 p 값은 0.61 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다문화 교육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다문화 수용성	1 회	32	67.23	7.09	2.323	.061	-
	2~3 회	21	66.97	10.24			
	4~5 회	3	66.67	3.25			
	6 회 이상	16	73.21	8.28			
	없다	48	65.15	10.28			
	전체	120	67.14	9.37			
다양성	1 회	32	67.67	8.71	1.552	.192	-
	2~3 회	21	65.27	14.03			
	4~5 회	3	64.89	8.68			
	6 회 이상	16	72.75	10.00			
	없다	48	64.61	13.29			
	전체	120	66.63	12.00			
관계성	1 회	32	65.91	8.66	2.102	.085	-
	2~3 회	21	66.67	13.79			
	4~5 회	3	66.06	1.05			
	6 회 이상	16	73.52	11.25			
	없다	48	64.02	12.14			
	전체	120	66.30	11.61			
보편성	1 회	32	68.13	7.93	1.750	.144	-
	2~3 회	21	70.16	6.91			
	4~5 회	3	70.37	4.63			
	6 회 이상	16	73.61	8.54			
	없다	48	67.45	9.66			
	전체	120	69.00	8.67			

주 1) ***: $p<0.001$, **: $p<0.005$, *: $p<0.05$



[그림 10] 다문화 교육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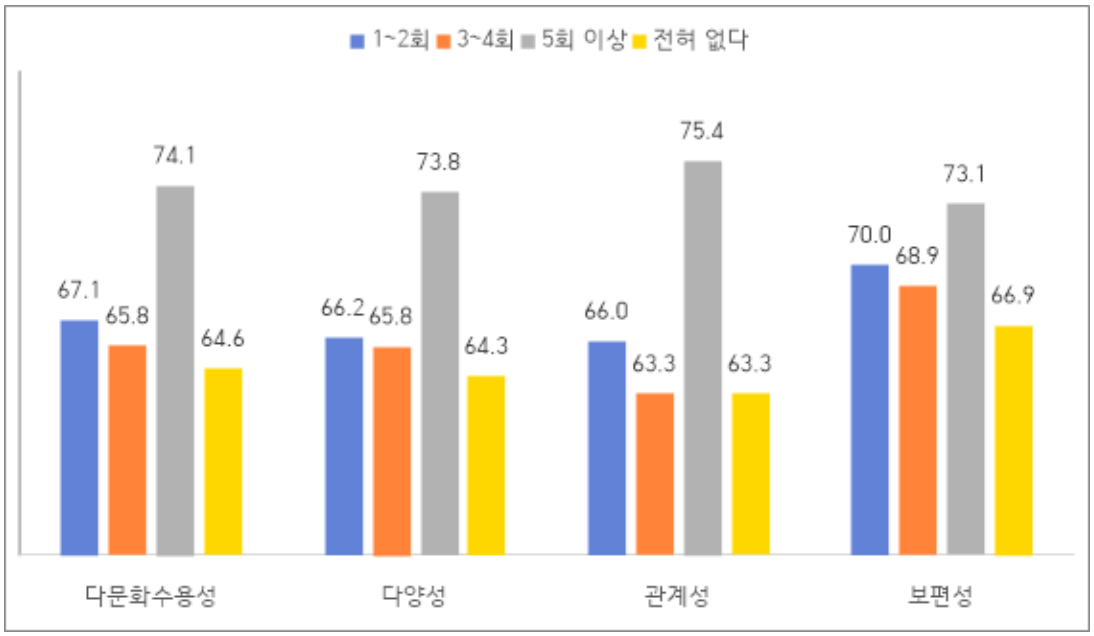
다문화 행사 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다문화 행사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 값은 6.195 이고, p 값은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전혀 없다' 라는 집단이 '5 회 이상'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과 관계성은 5 회 이상, 1~2 회, 3~4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보편성은 5 회 이상, 1~2 회, 3~4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성의 F 값은 6.733 이고, p 값은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전혀 없다' 라는 집단이 '5 회 이상'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다문화 행사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다문화 수용성	1~2 회	34	67.14	6.82	6.195	.001***	전혀 없다 < 5 회 이상
	3~4 회	6	65.81	8.15			
	5 회 이상	22	74.10	9.25			
	전혀 없다	58	64.63	9.68			
	전체	120	67.14	9.37			
다양성	1~2 회	34	66.24	9.33	3.590	.016*	n/a
	3~4 회	6	65.78	9.38			
	5 회 이상	22	73.76	12.67			
	전혀 없다	58	64.25	12.56			
	전체	120	66.63	12.00			
관계성	1~2 회	34	66.04	9.79	6.733	.001***	전혀 없다 < 5 회 이상
	3~4 회	6	63.33	10.93			
	5 회 이상	22	75.37	10.27			
	전혀 없다	58	63.32	11.62			
	전체	120	66.30	11.61			
보편성	1~2 회	34	70.00	7.41	3.158	.027*	n/a
	3~4 회	6	68.89	9.11			
	5 회 이상	22	73.13	8.34			
	전혀 없다	58	66.86	8.97			
	전체	120	69.00	8.67			

주 1) ***: $p<0.001$, **: $p<0.005$, *: $p<0.05$



[그림 11] 다문화 행사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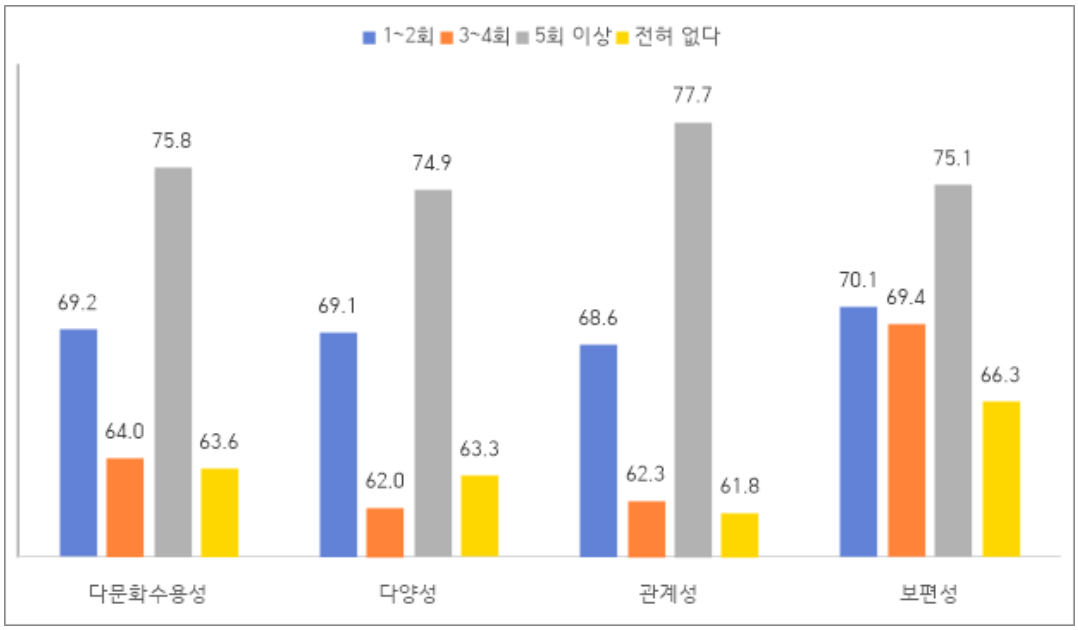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다문화 봉사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 값은 14.174 이고, p 값은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로는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이 '5 회 이상' 인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은 것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은 5 회 이상, 1~2 회, 3~4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고, F 값은 7.166 이고, p 값은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로는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이 '5 회 이상' 인 집단이 '3~4 회'인 집단보다 높은 것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관계성은 5 회 이상, 1~2 회, 3~4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F 값이 15.863 이고, p 값은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로는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이 '5 회 이상' 인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은 것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보편성은 5 회 이상, 1~2 회, 3~4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F 값은 7.172 이고, p 값은 0.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이 '5 회 이상' 인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은 것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12] 다문화 봉사 활동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다문화 수용성	1~2 회	23	69.22	6.24	14.174	.001***	없음 < 5 회 이상
	3~4 회	8	64.00	5.67			
	5 회 이상	24	75.81	8.24			
	전혀 없다	65	63.59	8.84			
	전체	120	67.14	9.37			
다양성	1~2 회	23	69.10	7.77	7.166	.001***	3~4 회 < 5 회 이상
	3~4 회	8	62.00	11.06			
	5 회 이상	24	74.89	11.81			
	전혀 없다	65	63.28	11.90			
	전체	120	66.63	12.00			
관계성	1~2 회	23	68.62	9.90	15.863	.001***	없음 < 5 회 이상
	3~4 회	8	62.27	8.62			
	5 회 이상	24	77.65	8.91			
	전혀 없다	65	61.79	10.36			
	전체	120	66.30	11.61			
보편성	1~2 회	23	70.14	6.39	7.172	.001***	없음 < 5 회 이상
	3~4 회	8	69.44	7.30			
	5 회 이상	24	75.09	8.21			
	전혀 없다	65	66.29	8.59			
	전체	120	69.00	8.67			

주 1) ***: $p<0.001$, **: $p<0.005$, *: $p<0.05$



[그림 12] 다문화 봉사 활동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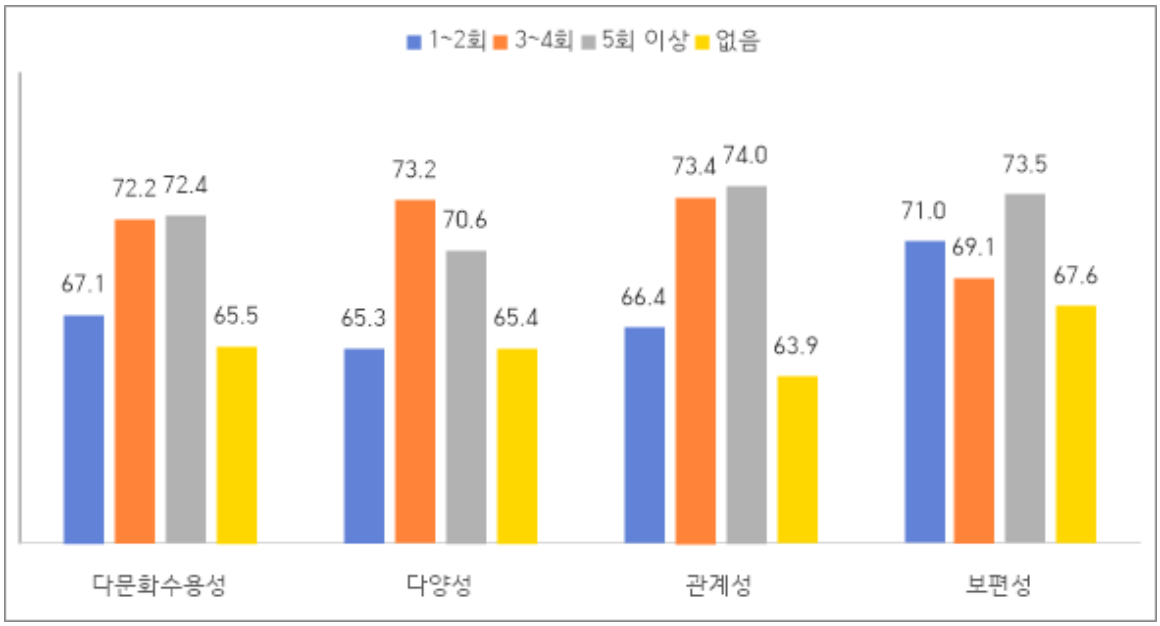
다문화 동호회 활동 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다문화 동호회 활동 경험이 5 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3~4 회, 1~2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F 값은 3.427 이며, p 값은 0.02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사후분석에서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은 3~4 회, 5 회 이상, 없음, 1~2 회 순으로 나타났다. F 값은 1.984 이며, p 값은 0.12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관계성은 5 회 이상, 3~4 회, 1~2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F 값은 4.772 이며, p 값은 0.004 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보편성은 5 회 이상, 1~2 회, 3~4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F 값은 2.280 이고 p 값은 0.08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3] 다문화 동호회 활동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다문화 수용성	1~2 회	22	67.14	8.45	3.427	.020*	n/a
	3~4 회	11	72.21	8.25			
	5 회 이상	13	72.40	9.01			
	전혀 없다	74	65.46	9.40			
	전체	120	67.14	9.37			
다양성	1~2 회	22	65.33	12.04	1.984	.120	-
	3~4 회	11	73.21	10.16			
	5 회 이상	13	70.56	13.07			
	전혀 없다	74	65.35	11.80			
	전체	120	66.63	12.00			
관계성	1~2 회	22	66.45	10.60	4.772	.004**	n/a
	3~4 회	11	73.39	12.23			
	5 회 이상	13	73.99	10.82			
	전혀 없다	74	63.86	11.12			
	전체	120	66.30	11.61			
보편성	1~2 회	22	71.01	6.81	2.280	.083	-
	3~4 회	11	69.09	8.80			
	5 회 이상	13	73.50	6.76			
	전혀 없다	74	67.60	9.18			
	전체	120	69.00	8.67			

주 1) ***: $p<0.001$, **: $p<0.005$, *: $p<0.05$



[그림 13] 다문화 동호회 활동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다문화 기타활동 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다문화 기타활동 경험이 많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 회 이상, 3~4 회, 1~2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F 값은 4.412 이며 p 값은 0.00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확률이 나타났으나, 사후분석에서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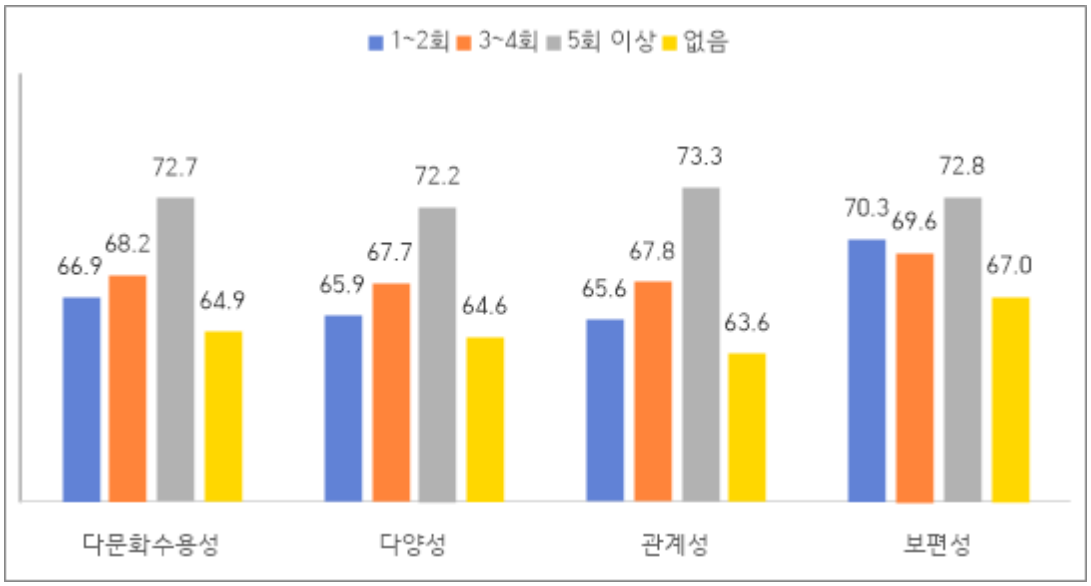
하위 영역별을 살펴보면, 다양성은 5 회 이상, 3~4 회, 1~2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F 값은 2.481 이며 p 값은 0.06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관계성은 5 회 이상, 3~4 회, 1~2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F 값이 4.486 이며 p 값은 0.005 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보편성은 5 회 이상, 1~2 회, 3~4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F 값이 2.993 이고 p 값은 0.034 로 통계적으로 유의확률이 나타났으나,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 다문화 기타활동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다문화 수용성	1~2 회	23	66.93	7.15	4.412	.006*	n/a
	3~4 회	10	68.23	7.51			
	5 회 이상	24	72.71	10.83			
	전혀 없다	63	64.92	9.03			
	전체	120	67.14	9.37			
다양성	1~2 회	23	65.86	10.73	2.481	.064	-
	3~4 회	10	67.73	9.44			
	5 회 이상	24	72.22	13.23			
	전혀 없다	63	64.61	11.87			
	전체	120	66.63	12.00			
관계성	1~2 회	23	65.61	9.29	4.486	.005*	n/a
	3~4 회	10	67.82	12.57			
	5 회 이상	24	73.33	13.02			
	전혀 없다	63	63.64	10.75			
	전체	120	66.30	11.61			
보편성	1~2 회	23	70.34	6.79	2.993	.034*	n/a
	3~4 회	10	69.56	7.11			
	5 회 이상	24	72.78	9.32			
	전혀 없다	63	66.98	8.83			
	전체	120	69.00	8.67			

주 1) ***: $p<0.001$, **: $p<0.005$, *: $p<0.05$



[그림 14] 다문화 기타활동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다문화 경험 특성에 따른 수용성 차이는 사회심리학적 이론 중 접촉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해 볼 때, 다문화 이주민 또는 외국인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분석 결과 이주민/외국인 친구 수, 이주민/외국인 관계 유형, 다문화 교육 경험, 다문화 행사 경험, 다문화 봉사 경험, 다문화 동호회 활동 경험, 다문화 기타활동 경험에 있어서 유의성이 있었다. 다만, 유경험자에 대한 풍부한 양의 설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제한사항이 있다고 하겠다.

6.1.2.2 다문화 선교활동과 다문화수용성 분석

다문화 선교 및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2.780, p=0.007 로 유의수준 0.05 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다문화선교 및 행사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선교 및 행사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1.68 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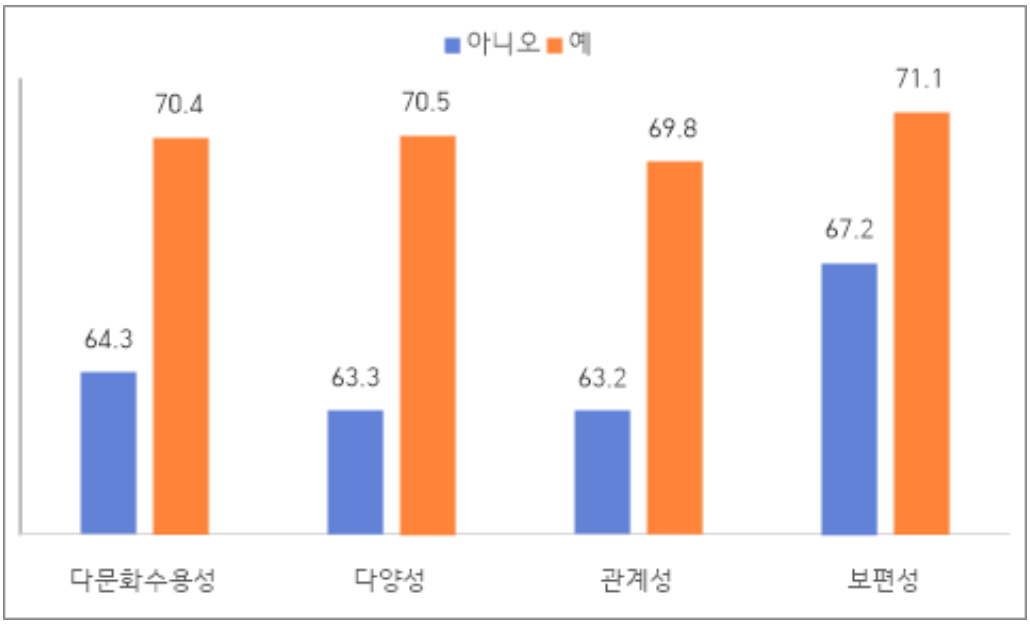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66.37 점으로 다문화선교 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다문화수용성지수가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하위 영역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모두에서 참여한 응답자의 평균이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 영역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표 15] 다문화 선교 및 행사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구분		종속변수			*t(p)*
		N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 수용성	아니오	64	64.25	9.07	-3.809(0.001)***
	예	56	70.44	8.66	
다양성	아니오	64	63.25	11.94	-3.451(0.001)***
	예	56	70.50	10.93	
관계성	아니오	64	63.24	10.99	-3.209(0.002)**
	예	56	69.81	11.40	
보편성	아니오	64	67.15	8.92	-2.552(0.012)*
	예	56	71.11	7.94	

주 1) ***: $p<0.001$, **: $p<0.005$, *: $p<0.05$



[그림 15] 다문화 선교 및 행사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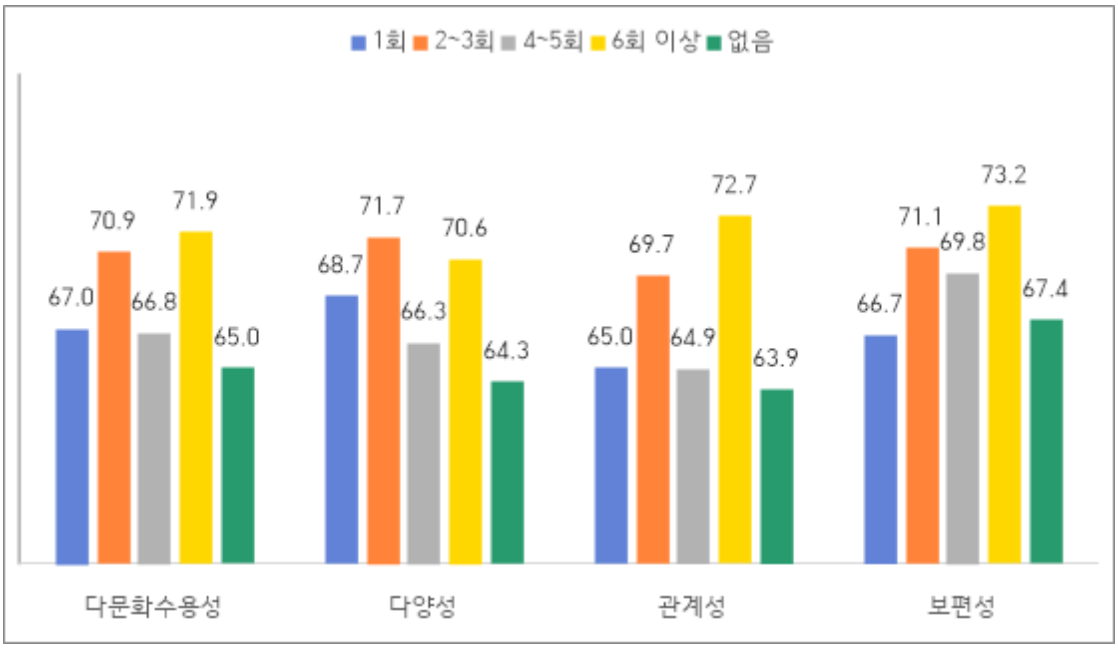
다문화 선교 및 행사 프로그램 참여 횟수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6 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2~3 회, 1 회, 4~5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F 값은 3.134 이며 p 값은 0.01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은 2~3 회, 6 회 이상, 1 회, 4~5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성은 6 회 이상, 2~3 회, 1 회, 4~5 회, 없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편성은 6 회 이상, 2~3 회, 4~5 회, 없음, 1 회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에서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6] 다문화 선교 및 행사 프로그램 참여 횟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다문화 수용성	1 회	8	67.00	8.28	3.134	.017*	n/a
	2~3 회	12	70.90	8.24			
	4~5 회	7	66.78	6.96			
	6 회 이상	23	71.93	9.51			
	없음	70	64.97	9.26			
	전체	120	67.14	9.37			
다양성	1 회	8	68.67	10.33	1.929	.110	-
	2~3 회	12	71.67	8.96			
	4~5 회	7	66.29	8.73			
	6 회 이상	23	70.55	12.49			
	없음	70	64.29	12.35			
	전체	120	66.63	12.00			
관계성	1 회	8	65.00	10.27	3.008	.021*	n/a
	2~3 회	12	69.70	12.89			
	4~5 회	7	64.94	8.95			
	6 회 이상	23	72.73	11.73			
	없음	70	63.90	11.07			
	전체	120	66.30	11.61			
보편성	1 회	8	66.67	9.72	2.394	.055	-
	2~3 회	12	71.11	6.63			
	4~5 회	7	69.84	7.89			
	6 회 이상	23	73.24	8.19			
	없음	70	67.43	8.73			
	전체	120	69.00	8.67			

주 1) ***: $p<0.001$, **: $p<0.005$, *: $p<0.05$



[그림 16] 다문화 선교 및 행사 프로그램 참여 횟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다문화 선교 및 행사 프로그램 참여는 다문화 수용성 지수와 하위 영역(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히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다문화 선교 활동이 참여자의 다문화적 태도와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분석은 교회 및 관련 기관에서 다문화 선교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6.1.3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KMCI 의 하위 척도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측정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7] 측정 변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N	항목수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α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120	15	66.63	12.00	.867
	관계성	120	11	66.30	11.61	.837
	보편성	120	9	69.00	8.67	.925
	전체	120	35	67.14	9.37	.888
다문화 인식 및 태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120	8	63.44	16.52	.803
	다문화 교육, 활동	120	4	70.79	15.30	.703
	다문화 선교	120	9	67.09	14.90	.705
	전체	120	21	66.41	10.97	.739

신뢰도 분석방법은 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연구 개념의 일관성 검증 방법인 내적 일관성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여 측정 변인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내적 일관성의 경우 Cronbach's α값이 .6 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며, Cronbach's α값이 .8 이상에 해당하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는데 본 연구의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s α 값 계수가 '다양성'은 .867 이고, '관계성'은 .837 이고, '보편성'은 .925 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 계수가 .888 로 신뢰도를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신뢰도는 .739 로 나타났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뢰도는 .803 이며, 다문화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신뢰도는 .703 으로 나타났고, 다문화선교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있어서 신뢰도는 .705 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문화 수용성 및 그 하위 요소, 그리고 다문화 태도와 그 하위 요소에 대한 문항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 수준을 저해하는 문항은 없었으며, 모든 문항을 제거 없이 그대로 활용하였다.

6.2 집단 간 차이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6.2.1 집단 간 차이 검증결과

본 연구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요인들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차이를 검토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학력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석사 학위를 가진 성도자는 다문화 선교 활동에 적극적이며, 타 문화권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학사 학위 이하의 그룹도 다문화 수용성에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다문화 사역 참여율 및 태도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위 영역별로는 관계성 영역에서 직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편성 영역에서는 학력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관련 변인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는 다문화행사 경험,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 다문화 선교활동 참여 경험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 영역에서는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 다문화 선교활동 참여 경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관계성 영역에서는 다문화행사 경험,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 다문화 선교활동 참여 경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성 영역에서는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 다문화 선교활동 참여 경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 차이 검증 분석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집단 간 차이 검증 분석결과

구 분		다문화수용성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차이	나이				
	신앙연수				
	직분			○*	

	학력		○*			○*
	소득					
다문화 관련 변인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해외여행 및 체류 경험					
	다문화 관계 유형	친구 수				
		관계 유형				
	다문화 교육 및 관련활동 참여	교육 경험				
		행사 경험	○***		○***	
		봉사활동 경험	○***	○***	○***	○**
		동호회 활동 경험				
		기타활동 참여				
	다문화 선교	선교활동 참여	○***	○***	○**	○*
		선교활동 참여 횟수				

주 1) ***: p<0.001, **: p<0.005, *: p<0.05

6.2.2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 분석은 전체 변인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다문화 수용성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문화 관련 변인에서 봉사활동참여, 다문화 선교 참여 경험 변인에서 상관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 영역은 다문화 관련 변인에서 다문화선교 활동 참여, 다문화선교 참여 횟수에서 긍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영역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영역이 없었으며, 다문화 관련 변인에서 봉사활동 참여, 다문화 선교활동 참여에서 긍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성 영역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영역이 없었으며, 다문화 관련 변인에서는 해외여행 및 체류 경험, 다문화 친구 수, 다문화 봉사활동 참여, 다문화선교 활동 참여 변인에서 긍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차이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연령대에서는 70 대 그룹의 다문화수용성지수가 가장 낮았으며, 남녀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직분별로는 교역자와 장로 직분에서 남성이 더 높은 수용성을 보였으며, 서리집사와 권사 직분에서 여성의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이 가장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보였다. 소득별로는 고소득군(500 만 원 이상)에서 남성의 수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성별 간 다문화수용성지수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특정 변수(직분, 학력, 소득)에서 남성과 여성의 다문화수용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성은 고학력, 고소득군에서 더 높은 수용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은 특정 직분(권사, 서리집사)에서 더 높은 수용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다문화적 태도와 행동에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나, 각자의 역할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사역에서 성별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하여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 제공이 필요하고, 성별 및 직분별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사역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층(특히 70 대)의 다문화수용성 증진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인구통계학적 특성					다문화 관련 변인									
						해외여행 및 거주경험, 외국인 및 이주민과의 관계							다문화선교		
	나이	신앙연수	직분	학력	소득	해외여행 및 체류	다문화 친구 수	다문화 교육 횟수	다문화인 관계 유형	다문화 행사 경험	다문화 봉사 경험	다문화 동호회 경험	기타 다문화 활동	다문화 선교 참여	다문화 선교 참여 횟수

다문화 수용성	r	0.038	0.080	-0.127	0.069	-0.076	0.072	-0.173	0.119	-0.050	-0.096	-.230*	-0.135	-0.108	.331**	-0.165
	p	0.680	0.387	0.167	0.454	0.412	0.432	0.058	0.196	0.588	0.298	0.011	0.141	0.241	0.000	0.071
다양성	r	0.020	0.090	-0.121	0.047	-0.161	0.020	-0.106	0.116	-0.055	-0.058	-0.176	-0.064	-0.061	.303**	-.181*
	p	0.830	0.330	0.187	0.608	0.080	0.830	0.248	0.206	0.554	0.533	0.055	0.484	0.508	0.001	0.047
관계성	r	0.047	0.034	-0.108	0.055	-0.036	0.041	-0.176	0.095	-0.036	-0.077	-.227*	-0.161	-0.093	.283**	-0.118
	p	0.607	0.715	0.240	0.553	0.697	0.653	0.055	0.300	0.692	0.403	0.013	0.080	0.312	0.002	0.199
보편성	r	0.037	0.073	-0.076	0.091	0.111	.191*	-.196*	0.076	-0.024	-0.144	-.192*	-0.157	-0.160	.229*	-0.084
	p	0.692	0.427	0.408	0.321	0.226	0.037	0.032	0.411	0.792	0.117	0.036	0.087	0.081	0.012	0.364

주 1) **: p<0.01, *: p<0.05

6.2.3 다문화 경험 특성의 이원배치 분산분석

연구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경우 다문화선교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요인에 있어서 '다문화 교육경험과 다문화활동 횟수, 다문화교육 횟수가 많은 경우 다문화수용성과 하위 영역에 있어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유의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연령대별 다문화교육 경험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표 20] 나이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효과 검정

원인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부분에타 제곱
수정된 모형	1956.825[a]	18	108.712	1.293	0.208	0.187
절편	207234.249	1	207234.249	2464.896	0.000	0.961
연령대	119.365	3	39.788	0.473	0.702	0.014

다문화교육경험	724.523	4	181.131	2.154	0.080	0.079
연령대 * 다문화교육경험	819.638	11	74.513	0.886	**0.556**	0.088
오차	8491.499	101	84.074			
전체	551351.184	120				
수정된 합계	10448.324	119				

a. R 제곱 = .187 (수정된 R 제곱 = .042)

수정모형의 F 값은 1.293 이고, p 값은 0.208 로 p>0.05 이므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나이와 다문화교육 경험이 상호작용을 주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3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비교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지수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일반 국민 대비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 도출된 다문화 수용성지수를 활용하여 다문화 수용성과 하위 영역별로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자료 요청은 별도로 하지 않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서비스에 등재되어 있는 2021 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2021 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의 일반인 다문화 수용성지수 결과와 영역 및 하위 차원의 지수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에서 만 40 세 이상 응답자를 선별하여 총 3,886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재분석하였다.[195] 2021 년 4 월부터 6 월까지 진행된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는 2012 년부터 3 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성인(19~74 세) 5,000 명과 청소년(중·고교 학생) 5,00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중 비교된 자료는 만 40 세 이상 성인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이다.

2021 년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의 표본 설계는 데이터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95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2024년 12월 23일 액세스, https://www.data.go.kr/data/15114749/fileData.do.

조사 기관: 이 조사는 한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 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사는 정부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주관하며,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조사 방법론을 적용한다.

표본 추출 방법: 표본은 층화 표본 추출(stratified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되었다. 이 방법은 전체 모집단을 여러 층(예: 지역, 연령대, 성별 등)으로 나눈 후, 각 층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각 층의 비율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 연령대, 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표본 크기: 성인 5,000 명과 청소년 5,000 명을 포함하여 총 10,000 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이 대규모 표본은 다양한 인구 집단을 포괄하여 조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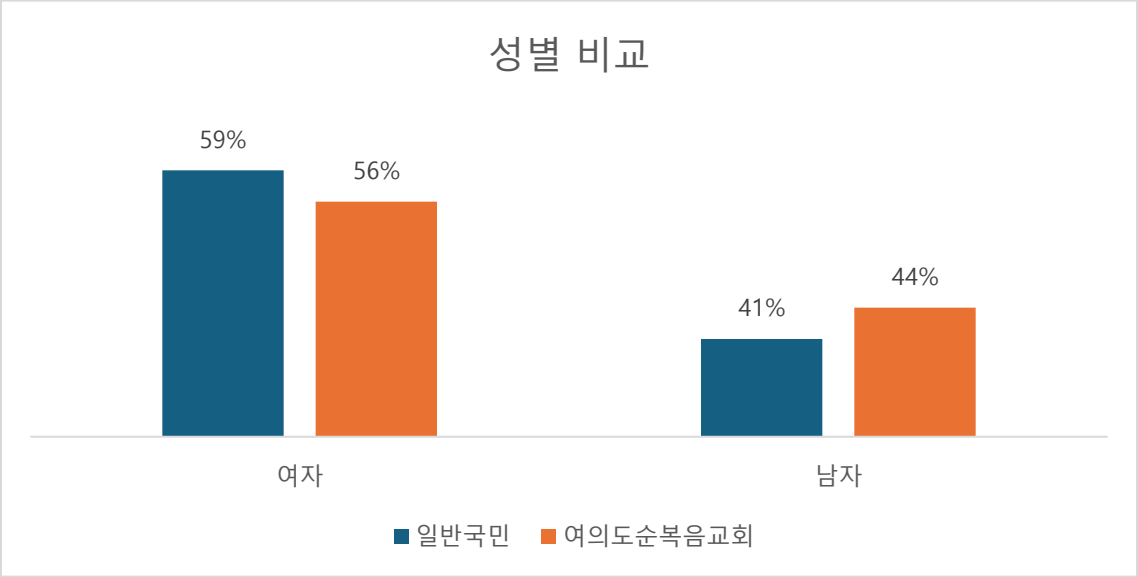
조사 방법: 조사 방법으로는 온라인 설문조사, 전화 인터뷰, 대면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각 방법은 응답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택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응답률을 높이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데이터 검증: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적 방법을 통해 검증되며,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더욱 높인다.

인구통계학적 비교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 중 여자가 67 명(55.83%)으로 남자 53 명(44.17%)보다 많았고, 일반 국민은 여자가 2,303 명(59.26%)으로 남자 1,583 명(40.74%)보다 많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국민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두 집단 모두 성별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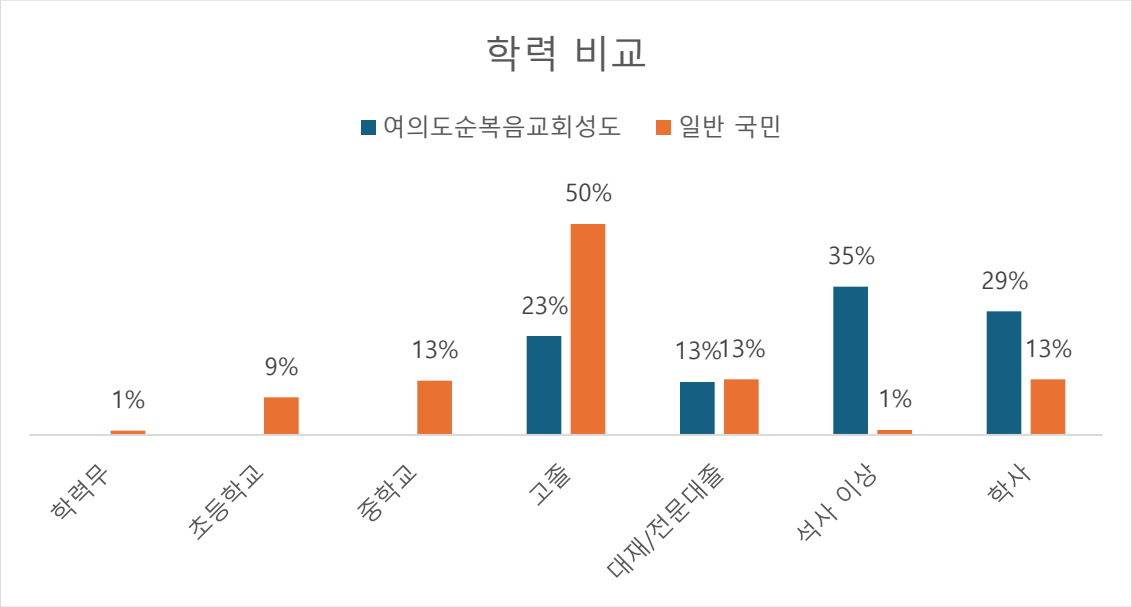
연령대 비율에서 두 집단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는 40 대가 43 명(35.83%), 50 대가 44 명(36.67%), 60 대가 23 명(19.17%), 70 대가 10 명(8.33%)이었고, 일반 국민은 40 대가 1,001 명(25.76%), 50 대가 1,307 명(33.63%), 60 대가 1,152 명(29.64%), 70 대: 426 명(10.96%) 이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는 40 대와 50 대가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국민은 50 대가 가장 많았다. 또한, 70 대 비율이 일반 국민에서 약간 더 높았다.



[그림 17] 다문화수용성조사 관련 비교대상별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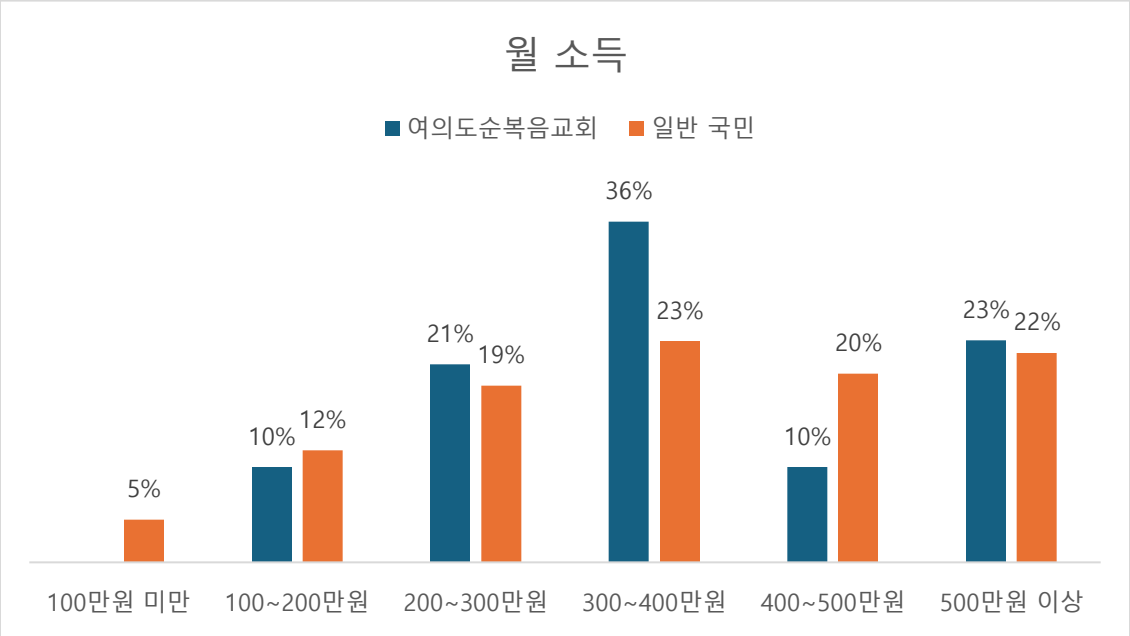
학력에 있어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 중 고졸이 28 명(23.33%), 대재/전문대졸 15 명(12.50%), 학사 35 명(29.17%), 석사 이상 42 명(35%) 이었고, 일반 국민은 고졸 1,936 명(49.83%), 대졸(전문대 포함) 1,019 명(26.23%), 석-박사 졸업자 48 명(1.24%)이었다. 두 집단 간 학력 분포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는 고학력자(학사 이상)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일반 국민은 고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학력 분석 결과, 석사 학위 이상의 비율이 일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도들이 높은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성도자들이 교회의 다문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학력과 다문화 수용성 간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학력 기반이 다문화 사역의 중요한 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8] 다문화수용성조사 관련 비교대상별 학력 비교

경제적 수준인 월소득에 있어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국민 모두에서 300~400 만원 구간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더 다양한 소득 구간(100 만원 미만, 800 만원 이상 포함)을 나타냈으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비율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에서 더 높았다.



[그림 19] 다문화수용성조사 관련 비교대상별 경제수준(월소득) 비교

본 연구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지수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표본 크기의 차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표본수는 120 명으로, 일반 국민의 표본수(3,886 명)에 비해 매우 작다. 이는 두 집단 간 특성을 비교하는 데 있어 통계적 신뢰도와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령대별로 분포 차이에 따른 연구 한계가 있다.

*집단 간 특성의 차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는 특정 종교 집단에 속한 응답자로, 일반 국민과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차이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6.3.1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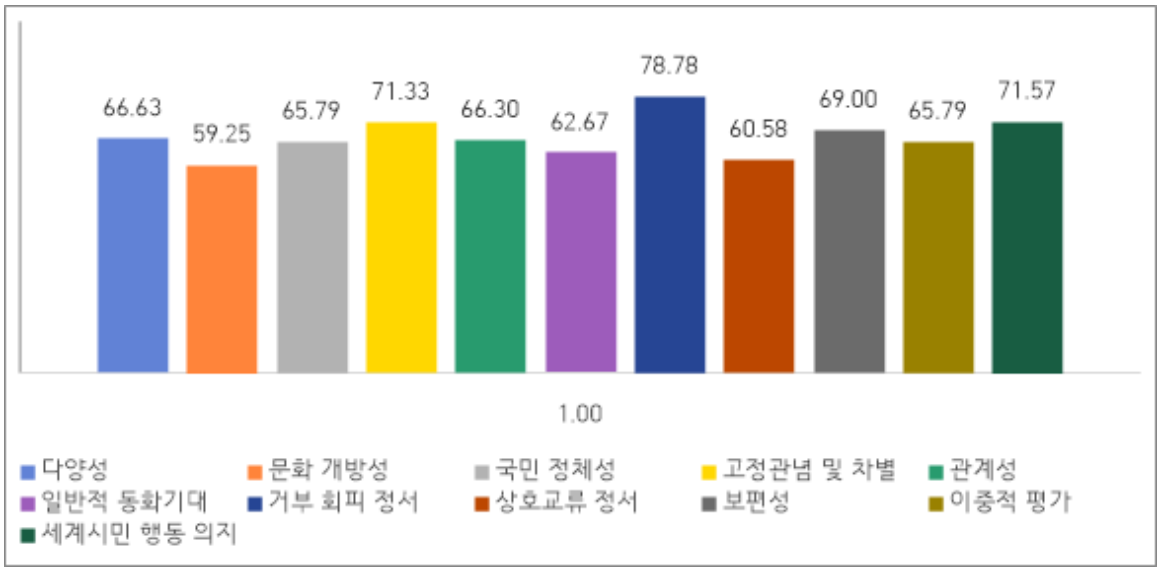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67.14 점으로 나타났으며, 편차는 9.37 점으로 37.71 에서 90.86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성 지수는 66.63 점으로 구성요소별로는 문화 개방성 59.25 점, 국민 정체성 65.79 점, 고정관념 및 차별 71.33 점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지수는 66.30 점으로 구성요소별로는 일방적 동화기대 62.67 점, 거부 회피 정서 78.78 점, 상호교류 의지 60.58 점으로 나타났으며, 보편성지수는 69.00 점으로 구성요소별로는 이중적 평가 65.79 점, 세계시민 행동 의지 71.57 점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지수를 하위 영역과 영역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표 21], [그림 18]과 같다.

[표 21]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다문화 수용성		67.14	9.37	37.71	90.86
다양성	평균	66.63	12.00	28.00	96.00

	문화 개방성	59.25	14.36	20.00	100.00
	국민 정체성	65.79	17.00	20.00	100.00
	고정관념 및 차별	71.33	14.17	22.86	100.00
관계성	평균	66.30	11.61	32.73	92.73
	일반적 동화기대	62.67	14.87	25.00	100.00
	거부 회피 정서	78.78	16.67	33.33	100.00
	상호교류 정서	60.58	16.17	20.00	100.00
보편성	평균	69.00	8.67	46.67	93.33
	이중적 평가	65.79	15.23	20.00	100.00
	세계시민 행동 의지	71.57	12.74	28.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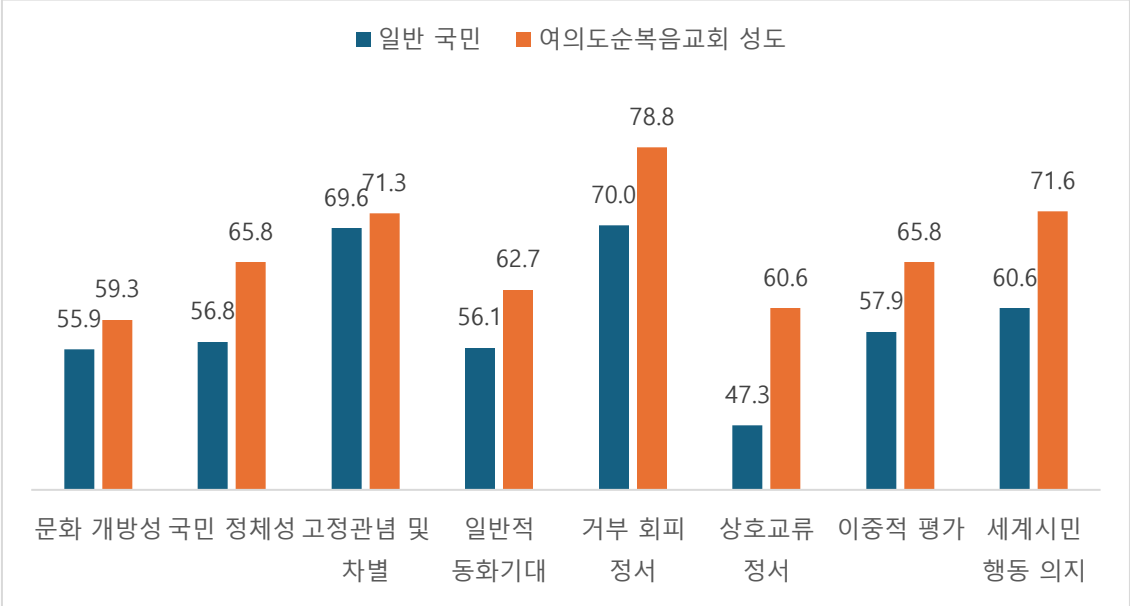


[그림 18]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6.3.2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분석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67.14 점으로 2021 년 일반 국민의 조사결과에 따른 평균 59.8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가 일반 국민보다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조사결과 편차는 9.37 점이였으며, 최하 지수 값은 37.71 점, 최대 지수 값은 90.86 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영역은 각 하위 구성요소의 수용성 점수가 각각의 가중치만큼 곱해져 합산된 결과로 이들 차원을 8 개 하위 구성요소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어떤 구성요소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성 영역은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등 3 개 요소로 구성되고 관계성 영역은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부 정서, 교류 행동 의지 등 3 개 요소로 구성되며, 보편성 영역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의식 행동 의지 등 2 개 요소로 구성된다. 이에 하위 구성요소별 수용성 결과 및 일반 국민과의 비교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국민 하위 구성요소별 다문화수용성지수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국민의 하위 구성 요소별 수용성지수를 살펴보면 전 영역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수용성지수가 일반 국민의 수용성지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요소별로 살펴보면 문화 개방성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가 59.3 점, 일반 국민이

55.9 점으로 나타났으며, 국민 정체성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가 65.8 점, 일반 국민이 56.8 점이었고, 고정관념 및 차별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가 71.3 점, 일반 국민이 69.6 점이였다. 일반적 동화기대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가 62.7 점, 일반 국민이 56.1 점이었고, 거부·회부 정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가 78.8 점, 일반 국민이 70.0 점이었으며, 상호교류 의지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가 60.6 점, 일반 국민이 47.3 점이었고, 이중적 평가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가 65.8 점, 일반 국민이 57.9 점이었고, 세계시민 행동 의지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가 71.6 점, 일반 국민이 60.6 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문화개방성은 지수가 59.3 점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 이해 정도와 인식 차이에서 오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개방성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이주민과의 공존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정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인지적 신념 작용을 의미하는데,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의 문화개방성 요소는 국가나 지역사회에 외국이주민의 유입 및 정주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취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구성 개념이다.[196]

분석 결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하위 영역에서는 문화개방성(59.3 점), 일반적 동화기대(62.7 점), 상호교류 정서(60.6 점)가 상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에서 가정하고 있는 '일방적 동화 기대' 요소는 주류문화집단의 입장에서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외국이주민이 고유한 한국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순응하며, 한국어를 더 완벽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측정된다. 또한, 상호교류 정서는 외국인이나 외국이주민과의 상호교류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호혜적이며 적극적인 교류관계를 맺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다문화 행사나 다문화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다문화선교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196 김이선,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20

6.4 연구의 종합적 분석 평가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문화의 수용성은 어떠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첫째,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67.14 점이고, 하위 영역별로 보면 다양성 지수는 66.63 점, 관계성 지수 66.30 점, 보편성 지수 69.00 점이였다. 수용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소는 거부·회피 정서이고, 다음으로 세계시민 행동 의지,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 순으로 전체 평균지수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전체 평균지수에 비해 낮은 하위 구성요소는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일반적 동화기대, 상호교류 정서, 이중적 평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 개방성과 상호교류 정서 요소에서 낮은 것을 볼 때 다문화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이 더 확대되고 이론과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다문화 축제 같은 행사나 문화교류 활동 또는 다문화선교 참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난 '거부·회피 정서', '세계시민 행동 의지',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 등의 요소들의 장점은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난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일반적 동화기대', '상호교류 정서', '이중적 평가'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이해 및 인식교육이 필요하며, 성도들에게 다문화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다문화축제 및 다문화행사 같은 문화교류 프로그램 시행과 다양한 다문화선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22]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하위 영역별 지수 비교 결과

구 분	일반 국민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 (YFGC)
다문화 수용성	59.88	67.14

다양성	문화 개방성	55.88	59.25
	국민 정체성	56.78	65.79
	고정관념 및 차별	69.63	71.33
	평균	62.54	66.63
관계성	일반적 동화기대	56.09	62.67
	거부 회피 정서	69.98	78.78
	상호교류 정서	47.28	60.58
	평균	56.68	66.30
보편성	이중적 평가	57.90	65.79
	세계시민 행동 의지	60.56	71.57
	평균	59.38	69.00

-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40대 이상 국민 기준)

[표 22]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을 하위 영역(다양성, 관계성, 보편성)별로 비교한 도표로써, 두 집단 간 수용성 수준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양성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양성 지수는 일반 국민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 성도들이 이주민의 문화적 가치를 더 존중하고 동등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2) 관계성

관계성 영역에서도 교회 성도들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성도들이 이주민과 통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보여준다.

(3) 보편성

보편성 영역에서도 교회 성도들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성도들이 문화적 차이나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비교 결과는 다음의 결론을 제시한다:

(1) 교회의 긍정적 역할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이 일반 국민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교회가 다문화 사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축제, 봉사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은 성도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2) 신앙의 영향

기독교 신앙은 성도들에게 타문화를 수용하고 이웃을 환대하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제공하며, 이러한 신앙적 가치가 성도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적 시사점

교회의 다문화 사역 사례는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국민 간의 비교는 교회가 다문화 수용성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도들이 보여준 높은 다양성과 관계성 지수는 다문화 선교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교회의 방향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앞으로도 교회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문화의 수용성은 다문화선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력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이, 신앙연수, 직분,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석사 이상 집단이 대재/전문대졸 집단보다 다문화 수용성과 보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지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지수와 같은 결과이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직분의 경우 하위 영역인 관계성에서 서리집사 집단과 안수집사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결과를 볼 때, 안수집사 집단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이해 및 인식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다문화 관련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는 다문화 행사 경험, 봉사활동 경험, 다문화 선교활동 참여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지만, 그 외 요소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다문화 행사 및 다문화 봉사활동 참여, 다문화 선교활동 참여에 있어서 매우 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선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먼저 다문화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지수가 높았고 하위 항목에서는 다문화 행사 참여 경험이 많은 응답자인 경우 관계성에서도 동일하게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이 많은 응답자의 경우는 하위 항목에서 모두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선교 및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응답자가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뒤집어 설명해보면, 다문화수용성을 높여 다문화 축제나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다문화 행사와 봉사활동을 참여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교적인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3] 다문화 관련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차이 분석결과

구 분		다문화수용성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다문화 관련	해외여행 및 체류 경험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차이	다문화 관계 유형	친구 수				
		관계 유형				
	다문화 교육 및 관련활동 참여	교육 경험				
		행사 경험	○***		○***	
		봉사활동 경험	○***	○***	○***	○**
		동호회 활동 경험				
		기타활동 참여				
	다문화 선교	선교활동 참여	○***	○***	○**	○*
		선교활동 참여 횟수				

주 1) ***: p<0.001, **: p<0.005, *: p<0.05

[표 23]은 다문화 관련 주요 변인(다문화 행사 참여 여부,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 다문화 교육 경험 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 표는 다문화 수용성을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각 변인에 따른 평균 점수와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하고 있다.

(1) 다문화 행사 참여 여부

다문화 행사에 참여한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세 가지 하위 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관계성 영역에서의 점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001)가 관찰되었다.

(2)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은 다문화 수용성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다양성 점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봉사활동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3)다문화 교육 경험

다문화 교육을 받은 집단은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보편성 영역에서의 점수 상승은 교육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줄이는 데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표 23]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주요 결론을 제시한다:

(1) 다문화 경험의 중요성

다문화 행사 참여, 봉사활동, 교육 경험은 성도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성도들이 이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2) 활동과 수용성의 상관관계

다문화 활동 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성도들이 경험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내면화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3) 교육의 효과성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강력한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특히, 보편성 영역에서의 점수 상승은 교육이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표 23]의 결과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험적 활동과 교육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러한 활동을 확대하고, 성도들이 다양한 다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포용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7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 방안

최근 한국사회는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나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고령화 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그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 발표를 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다문화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를 포함한 순복음 교단은 다문화(이주민)선교에 참여하는 단체 수가 25 개로 참여하는 단체수가 다른 교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성도들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다른 교단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떤 지 조사했으나 발표된 자료가 없어 비교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연구자는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수용성이 떨어지면 행동에 영향을 미쳐 다문화선교에도 관심이 떨어지고,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1 년 여성가족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에 근거하여 KMCI 를 활용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다문화 관련 변인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떤 차이와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시대에 교회와 성도들 특히 성도들이 사회풍조에 끌려가지 않고, 앞서서 높은 다문화 인식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다문화선교를 이끌어 나갈 방안을 찾고자 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6 장에서의 자료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영역과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7.1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문화 수용성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를 기반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성도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확인하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학력, 직분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나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이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다문화교육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직분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봉사를 하는 직분자가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교회 안에서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관련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가 어떠한 지 확인하였다. 다문화 관련 변인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는 다문화 행사 경험,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 다문화 선교활동 참여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반면 해외 여행 및 체류 경험, 다문화 관계 유형, 다문화 교육 경험, 동호회 활동 경험, 기타 활동 참여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문화 교육 경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 안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교육 경험은 외부나 개인적인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문화 행사 경험, 다문화 봉사활동 경험에 있어서 대부분 모든 면에서 참여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지수와 다문화선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다문화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수용성지수를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를 이해하고 올바로 인식할 때 다문화 선교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다문화 선교 활동도 활발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이해와 인식을 위한 교육이 다문화 수용성 지수 제고로 이어지도록 다문화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져야 한다.

셋째,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와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67.14 점으로 2021 년 일반

국민의 조사결과에 따른 평균 59.88 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가 일반 국민보다 외국인 및 다문화인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아도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지수 모두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가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 개방성, 상호교류 정서, 일반적 동화기대 요소의 지수가 낮은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다문화 이해와 인식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난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거부·회피 정서,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 의지 등의 요소들의 장점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대두된 문화 개방성, 상호교류 정서, 일반적 동화기대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마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서 다문화를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며, 교구와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정책이 수행되도록 협의체나 선교회 조직이 필요하다.

넷째,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선교 활동 참여 관련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다문화선교 활동 참여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회에서 다문화선교 활동에 보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교육을 받은 이수자가 다문화선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연계 시스템 및 지역별로 다문화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연결하는 다문화사역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져야 한다.

7.2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

연구자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문화 수용성 향상하여 다문화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다문화 이해 및 인식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문화 행사 및 다문화 봉사활동 참여 횟수가 많다고 응답한 응답자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지수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다문화 수용성지수를 높이면, 다문화 행사나 다문화 봉사활동 참여 횟수를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수용성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 이해 및 인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24 년 연구자가 처음으로 실시한 다문화학교 외에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성도들이 응답한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지수가 통계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외부 또는 온라인 등에서 진행한 교육 경험 또는 개인 차이에 따른 인지적 판단 차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선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영혼사랑(69 명, 58%)과 다문화 인식과 수용성 교육(39 명, 33%)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다문화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응답한 응답자가 109 명으로 90.9%를 차지했다. 따라서 다문화 이해 및 인식을 위한 다문화교육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 봉사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문화 선교활동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 가운데 '언어를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6 명, 38.3%였고,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7 명, 22.5%였다. 따라서 다문화 선교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인식 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언어 교육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들을 위한 다문화 봉사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연구자가 2023 년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1 회 진행한 '다문화 소양교육' 결과에 따르면, 교육 신청자들은 외국어 전도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다문화사역과 다문화인을 전도할 수 있는 다문화 봉사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사역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는 재적인원이 60 만명에 이른다. 많은 성도들이 봉사할 곳을 찾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다문화시대에 성도들 특히 성도들을 다문화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이주노동자, 유학생, 다문화가족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마친 성도들에게 많은 사역과 봉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다문화교회와의 네트워크 연합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거점별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안산-러시아, 파주-아프리카, 동대문-몽골 이렇게 대상별로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교회의 기관(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녀선교회 등) 및 순복음선교연합회와의 연계로 사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 순복음선교연합회 가운데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는 선교회와 연계하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인들을 섬기도록 사역하는 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다문화 수용성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되, 표본 수를 늘려 시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표본수가 적다는 것이다. 교회가 다문화선교에 앞장서며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문화 수용성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특이 집단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 보안을 진행함으로써 한국 교회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다문화선교에 있어 시대적 요청에 따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다문화축제의 부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문화축제는 한때 성도들과 다문화 이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 축제는 중단된 상태이며, 연구자는 이 축제가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축제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성도들이 직접 다문화 이주민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환대와 존중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1) 재개 필요성

다문화축제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다문화 감수성을 심어주었다. 음식을 함께 나누고, 전통 의상을 체험하며, 이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성도들은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다문화 행사 경험이 수용성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2) 개선 방안

(1) 축제를 단발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한다.

(2) 다문화 이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

(3) 다문화 가정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후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선교적 차원의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여섯째, 다문화 컨퍼런스의 지속적 운영이다.

2023 년 개최된 다문화 컨퍼런스는 사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컨퍼런스는 다문화 사역자들에게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1) 의의와 효과

(1) 컨퍼런스는 다문화 사역자들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2) 특히 의료 지원과 같은 긴급한 요구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써 사역의 실효성을 높였다.

2) 개선 방안

(1) 컨퍼런스를 연례 행사로 정례화하여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다문화 사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문적 연구 발표와 실천적 사례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다문화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역자와 대상자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

일곱째, 매월 열리는 다문화전문가 포럼의 확대이다.

현재 글로벌엘림재단에서 매월 열리는 다문화전문가 포럼은 사역자들에게 다문화 선교에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장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을 통해 이론과 사례를 결합하여 다문화 사역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1) 확장 가능성

(1) 포럼의 내용을 지역 교회와 공유하여 다문화 사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2) 성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 향후 방향

(1) 포럼 내용을 기록하고 아카이브화하여 다문화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2) 다문화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역 모델을 개발하고, 교회의 다문화 사역을 고도화한다.

다문화축제, 다문화 컨퍼런스, 그리고 다문화전문가 포럼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고, 다문화 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활동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가 지역사회 통합과 다문화 선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 결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는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다문화 수용성을 보였으나, 문화 개방성과 상호 교류 정서에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 교육, 행사, 봉사활동,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문화 행사와 봉사활동 경험은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다문화 축제와 같은 프로그램의 재개와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

다문화 컨퍼런스와 전문가 포럼은 다문화 사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력의 장을 제공하며, 이를 정례화하여 지속 가능한 사역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문화 사회 통합과 복음 전파에 기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과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CHAPTER 8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선교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다문화 선교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하였다.

8.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문화의 수용성은 어떠 한가?

둘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도들의 문화의 수용성은 다문화선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문화선교를 위해,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67.14 점으로, 2021 년 일반 국민 평균(59.88 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다문화 사역이 성도들의 수용성 향상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성도자들은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뛰어나며, 다문화 선교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2. 다문화 행사 및 봉사활동 경험의 중요성

다문화 행사 참여와 봉사활동 경험은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수용성이 높은 성도일수록 다문화 선교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다양한 다문화 행사 참여와 봉사활동은 성도들이 다문화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력을 제공하였다. 이는 다문화 선교의 실질적 참여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교육과 경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3. 체계적 교육과 경험의 필요성

체계적 교육과 경험은 다문화 선교 활동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확인되었다. 학문적 배경과 목회적 경험이 풍부한 성도자들이 다문화적 가치와 실천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교회의 사역과 활동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학문적 기반과 목회적 경험을 결합하여 다문화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포용과 환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선교적 패러다임 실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사역은 포용과 환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선교적 패러다임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교회는 67 개국에 676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매년 선교대회 및 CGI 세계교회성장대회와 OCCK 성회를 통해 다문화적 시각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굿피플 희망박스 나눔, 사랑의 김장 나눔, 심장병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랑 나눔 실천 운동은 성도와 성도들이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다문화적 사랑 나눔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에 기반한 환대와 포용의 선교적 접근은 한국 교회가 다문화 시대에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선행 연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성경은 포용과 환대의 가치로 가득하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사역은 이를 목회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의 높은 학력과 적절한 리더십 배치가 다문화 사역의 성공적인 모델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다문화 사역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며, 이는 한국 교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교회는 학문적 기반과 다문화적 리더십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역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문화 사역은 단순히 특정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확립하는 핵심적인 사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의 선교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8.2 정책적 제안

본 연구는 다문화 선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1. 다문화 교육 강화

다문화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다문화 선교에 대한 사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다문화 축제와 봉사활동의 재개 및 확대

다문화 축제와 봉사활동은 성도들이 이주민과 직접 교류하며 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다. 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다문화사역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및 국가별 다문화 사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성도들이 다문화 선교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문화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4. 정기적인 다문화 수용성 조사

다문화 수용성과 사역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사역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선교가 단순히 교회의 사역 활동을 넘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선교적 과업임을 강조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다문화 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과 활동의 체계적인 강화가 필수적이다.

다문화 선교의 핵심은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이는 다문화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교회 성도들이 다문화 이주민을 환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 통해 교회는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복음 전파에 있어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8.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적 연구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표집단의 절대 수가 다소 부족하여 풍부한 데이터획득에 제한사항이 있었다. 특히, 직분별로 다문화 수용성지수를 일반화하여 분석하기에는 표집단 수가 적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보다 넓은 직분의 계층뿐만 아니라 표본수를 충분히 하고 집단 간 표집단 수를 유사하게 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다문화교육 경험에 따른 연구에서 교육의 주체가 교회 내부인지 외부인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보완하여 다문화교육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지수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선교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더 다양한 내용의 질문지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제공자의 입장이 아닌 수혜자의 입장에서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선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다른 교단이나 교회의 다문화수용성 연구결과를 비교하지 못한 한계를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다문화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순복음교단의 단체 수가

적다고 하였는데, 참여 단체가 많은 교단의 다문화 수용성은 어떤 지 그리고 어떤 다문화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부록

설문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 다문화수용성 조사[197]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다문화선교를 위한 다문화수용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문화 사회와 외국 이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이번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다문화에 관한 성도님의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선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 내용을 읽고 평소 응답자의 생각과 같은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의 질문 내용에는 정답이 없으니, 어떠한 의견이라도 평소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성도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는 다문화 사회와 외국 이주민에 대한 성도님의 생각과 의견을 확인해 보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처리에만 사용되며,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 연구자 : ITS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이병인
· 지도교수 : ITS신학대학원 이재석 교수
※ 설문지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바랍니다.
이메일 : kumohdo@hanmail.net 연락처 : 010-3032-9951

197 본 설문지는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이다.

I. 일반 질문

1. 성도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 성도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3. 성도님의 직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4. 기독교인이 된 신앙연수를 써 주십시오. (예, 모태기독교인, 10 년..)

5. 결혼 여부 (미혼, 배우자 있음, 기타)

6.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있음, 없음)

7.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미치셨습니까?

① 고졸 ② 대재/전문대졸 ③ 학사 ④ 석사 이상

8.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00~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미만 ③ 300~400만원 미만 ④ 400~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9. 해외여행이나 해외 거주경험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1~2회 ③ 3~5회 ④ 6회 이상

10. 다문가족 또는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명 ③ 2~3명 ④ 4명 이상

II. 다문화수용성 관련 질문

1. 다음은 귀하의 다문화관계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인터넷,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외국인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았습니까? 해당되는 정도를 1 점에서 5 점 사이의 숫자로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번호에 O 표시)

구 분	전혀 본 적 없다	거의 본 적 없다	가끔 봤다	자주 봤다	매우 자주 봤다
1) 봉사활동을 하는 외국 이주민	1	2	3	4	5
2) 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	1	2	3	4	5
3) 한국인과 서로 화합하여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	2	3	4	5
4) 강제 추방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	2	3	4	5
5) 한국인에게 자신의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는 외국 이주민	1	2	3	4	5
6)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	1	2	3	4	5
7)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1	2	3	4	5
8) 다문화 이해 공익광고 및 홍보영상	1	2	3	4	5
9) 외국인 범죄자	1	2	3	4	5
10) 연예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한 외국인	1	2	3	4	5
11) 한국으로 귀화한 국가대표 운동선수	1	2	3	4	5

2) 다음은 한국사회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 이주민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 느낌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 점에서 6 점 사이의 숫자로 응답해 주십시오.

다양성차원 척도 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1	2	3	4	5	6
2)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1	2	3	4	5	6
3) 우리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1	2	3	4	5	6
4)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외국 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	1	2	3	4	5	6

2. 다음은 한국사회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 이주민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 느낌 행동은 어떤지, 다음의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 점에서 5 점 사이의 숫자로 응답해 주십시오.

다양성차원 척도 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 취득이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2	3	4	5	6
2)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2	3	4	5	6
3)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 이주민에게 투표권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1	2	3	4	5	6
4)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1	2	3	4	5	6

다양성차원 척도 Ⅲ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좋지 않다고 비판하겠다	1	2	3	4	5	6
2)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면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힘들다	1	2	3	4	5	6
3)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1	2	3	4	5	6
4) 나는 외국 이주민들이 한국에 사는 한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총을 주겠다	1	2	3	4	5	6
5)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들은 일을 할 때 게으름을 더 많이 피울 것이다	1	2	3	4	5	6

6)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일 것이다	1	2	3	4	5	6
7)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들에게는 일을 믿고 맡기기 어렵다	1	2	3	4	5	6

관계성차원 척도 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인이 외국 이주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 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1	2	3	4	5	6
2) 외국 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나라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1	2	3	4	5	6
3)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 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1	2	3	4	5	6
4)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이주민 여성은 시댁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1	2	3	4	5	6

관계성차원 척도 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1	2	3	4	5	6
2)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 이주민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하기 싫다	1	2	3	4	5	6
3)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꺼려진다	1	2	3	4	5	6

관계성차원 척도 Ⅲ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 이주민과 같은 친목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1	2	3	4	5	6

2)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1	2	3	4	5	6
3) 나는 외국인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기꺼이 들어가 밥을 먹겠다	1	2	3	4	5	6
4) 내가 만약에 미혼이라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데이트하겠다	1	2	3	4	5	6

보편성차원 척도 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국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1	2	3	4	5	6
2) 선진국 출신 사람들은 개발도상국 출신 사람들에 비해 업무능력이 더 좋을 것이다	1	2	3	4	5	6
3)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가능한 한 선진국 출신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5	6
4) 개발도상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에 비해 더 열등하다	1	2	3	4	5	6

보편성차원 척도 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1	2	3	4	5	6
2) 나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보다 세계시민이 되고 싶다	1	2	3	4	5	6
3) 기아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1	2	3	4	5	6
4)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근로자를 보면 돕고 싶다	1	2	3	4	5	6
5)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낼 의향이 있다	1	2	3	4	5	6

Ⅲ. 다문화 교육경험 및 활동 관련 질문

다문화 교육경험과 다문화 활동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1. 귀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다문화 교육을 몇 회 정도 받으셨습니까?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회 이상

2. 귀하는 지금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습니까?

구분	참여 경험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1)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이 함께하는 축제, 체육대회 등의 다문화 행사	1	2	3	4
2)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활동	1	2	3	4
3)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과 함께 하는 취미, 문화, 스포츠 등의 동호회 활동	1	2	3	4
4)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 (적을 것:)	1	2	3	4

3. 귀하는 한국사회 전반을 고려할 때, 다문화 관련 교육, 활동 및 행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다문화 교육	1	2	3	4	5
2)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이 함께하는 축제, 체육대회 등의 다문화 행사	1	2	3	4	5
3)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활동	1	2	3	4	5

4)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동호회 활동	1	2	3	4	5

4. 귀하의 주변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의 외국인이나 외국 이주민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배우자 및 친척
② 친구
③ 학교 동료 또는 직장 동료
④ 이웃
⑤ 주변에 없다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Ⅳ. 다문화선교 관련 질문

1. 다음 각 항목을 읽고 아래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질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해당 없음
1	다문화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다문화선교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기회가 된다면 다문화선교를 할 마음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교회에 다문화인(이주민)들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교회에 다문화인(이주민)들이 오면 기존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성도님은 다문화인(이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성도님은 다문화인(이주민)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성도님과 교회는 다문화인(이주민)들에게 포용적인 분위기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9	성도님은 다문화인(이주민)들을 위한 행사프로그램 참여나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2. 위에서 다문화인(이주민)들에게 별도의 예배가 필요하다고 답하신 분들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문화인(이주민)들만의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⑤기타에 써 주십시오.

① 이주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예, 동시통역 시설 등)
② 이주민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므로 한국적인 예배 참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 때문에
③ 기존 교인들이 다문화인(이주민)들과 어울리기를 부담스러 하므로
④ 다문화인(이주민)들이 그들 만의 예배를 원하기 때문에
⑤ 기타

3. 다문화 관련된 일(선교, 봉사 포함)을 하거나 하려고 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⑥기타에 써 주십시오.

①영혼 구원 ②이웃사랑 실천 ③사회적인 봉사 ④사회 정의 ⑤법과 질서
⑥ 기타:

4. 성도님은 다문화선교(전도, 행사, 봉사활동 포함)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영혼 사랑
② 다문화 인식과 수용성 (다문화교육 포함)
③ 교회 또는 단체의 지원 (물질 및 인원 포함)
④ 기타:

5. 성도님은 다문화선교(전도, 행사, 봉사활동 포함)를 함에 있어 **다문화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6. 성도님은 다문화선교(전도, 행사, 봉사활동 포함) 및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7. 참여한 다문화선교 활동의 종류는?

① 언어교육 ② 문화교류 활동 ③ 생활지원 서비스 ④ 교회 행사 ⑤ 기타

8. 다문화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는? (회)

9. 다문화선교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① 다문화교육을 받고 나서
② 친구 또는 지인의 권유로 인해서
③ 다문화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④ 기타 사유로

10. **교회에서 다문화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11. 다문화선교 활동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② 다문화인(이주민)과 외국인들이 무서워서
③ 언어를 잘 몰라서
④ 시간이 부족해서
⑤ 기타 ( )

12. 앞으로 교회의 다문화선교 활동에 대해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참여하지 않겠다.

13. **다문화선교**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유형의 활동에 관심**이 있습니까?

① 언어교육 프로그램
② 생활지원 서비스
③ 의료지원 활동
④ 멘토링 프로그램(한국인 친구되기)
⑤ 상담활동 프로그램
⑥ 문화교류 프로그램
⑦ 기타 ( )

14. **다문화가족 및 유학생, 이주노동자들을 전도(다문화선교)** 하기 위한 방법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다문화선교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BIBLIOGRAPHY)

국문도서

구성모 외 6인 공저. *다문화선교*. 서울: CLC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권주은. *다문화 교회의 모델 안디옥교회*. 서울: CLC, 2021.

김경식 외 8인 공저. *다문화사회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신정, 2012.

김이선.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2.

김영애. *이주, 다문화 그리고 다양성*. 서울: CLC기독교문서선교회, 2021.

박찬식, 정노화. *다문화사회와 이주자선교*.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출판사, 2009.

이미화 외 7인. *외국인노동자 선교와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0.

장훈택. *선교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 서울: 두란노, 2011.

정현천. *포용의 힘*. 서울: 트로이목마, 2017.

테츠나오 야마모리 사디리 조이 티라 편저. 디아스포라 선교학. Harry Kim 문창선 역. 서울: 더메이커, 2018.

한성천, 김시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서울: 제자원, 2004.

황홍렬 외 4인. *이주민선교: 기초조사 보고서*. 서울: 꿈꾸는터, 2013.

Christine D. Pohl, 손대접. 정옥배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2).

Marjorie J. Thompson.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천. 고진옥 역. 서울: 은성, 2000.

Miroslav Volf. 배제와 포용. 박세혁 역. 서울: 도서출판 IVP, 2012.

John Koenig. 환대의 신학. 김기영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Joshua W. Jipp. 환대와 구원(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송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정기간행물

강성열.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다문화 선교의 실천." *종교문화학보*, Vol. 15(2018): 97-124.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20, no. 2(2006): 5-34.

구병옥. "다문화 사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연구: 이정용의 주변성 신학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6(2021): 561-586.

김경아 외 2인. “창조적 다문화 시민사회 조성방안 연구.” *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2008): 3-200.

김금미.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검증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15, no. 2(2010): 259-283.

김선일. "통일의 시대를 위한 환대의 실천신학." *복음과 실천신학*, 50(2019): 9-39.

김성수. “만약 이스라엘이 야훼께 물었다면: 기브온 사건(여호수아 9장)에 나타난 이방인의 진멸과 구원." 성경과 신학, 88(2018), 23-60.

김영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Vol.19(2014): 117-124.

김영동. "디아스포라 선교학 틀에서 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신학적 과제." *장신논단*, 49(2017): 337-364.

김현정, 유두련. "노인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2, no. 3(2019): 37-71.

김홍수. "전지구화 시대의 다문화 한국사회와 시민권." *동북아 문화연구*1, no.18(2009): 521-538.

남보영, 홍이준. "외국 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과 다문화수용성 - 간접 접촉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37, no. 3(2021): 181-208.

문창선. "국내 이주민 선교의 흐름과 사역 진행." *미션인사이트*, 7(2016): 51-74.

문창선. "교계의 이주민선교 흐름과 전략방안." *글로벌엘림 다문화컨퍼런스*, (2023): 43-58.

박성호. “한국의 다문화 형성과 종교의 역할.”*종교와 문화*22, (2012): 157-180.

박우삼.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 *선교신학*, (2018): 288-312.

박유미. "여성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사기 19-21장과 룻기 비교 연구." *구약논집*, 18(2022): 77-107.

반재광. "누가의 ‘환대의 식탁’ 연구." *신약논단*, Vol. 24 Issue 3(2017): 553-58.

선곡유화 외 2인.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다문화교육연구*11, no. 3(September 2018): 49-75.

선곡유화 서우석.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과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및 다문화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20, no.1 (2019): 119-148.

선곡유화, 이영선.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의도와 다문화 인식, 다문화 자기효능감, 다문화 태도의 구조적 관계.” *다문화교육연구*10, no. 3(September 2017): 21-49.

신성임.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국내 이주민 선교: 패러다임 특징 분석과 이주민 선교 현황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9(2023): 389-417.

왕대일. “나그네(게르)-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제113집(2001 여름): 101-121.

양계민, 권오영.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또래 다문화집단과의 직접교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법과인권교육연구*16, no.2(2023): 119-148.

안영혁. "다문화 선교에서 목회자 교육." *신학지남*, 83(2016): 255-290.

유지은. "교회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육역량에 대한 연구: 자기효능감, 공감능력,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101-129.

유지은. “한국 기독교인의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학 논단*, 93 (2018): 89-116.

유상현. "빌립보의 바울과 루디아." *신학논단*, 31(2003): 25-46.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2008): 72-103.

이성순."다문화가족의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과제." *선교신학*, 44(2016): 247-285.

이영미. “공정한 환대를 위한 열린 마당(레호브, רְחֹב)으로서의 교회.”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73: 137-161.

이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구약논단*, 제14권 1호(2018): 70-88.

이희철. "화해의 현상으로서 환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2013): 299-320.

임봉대. "구약성서에 나오는 환대(Hospitality)에 관한 소고(小考)." *구약논단*, 18(2012): 34-59.

임희모. "타자와 환대의 선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56집(2008): 189-211.

전미순, 황윤영. "간호대학생의 다문화경험과 인식 및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 *다문화건강학회지*11, no. 2(2021): 1-8.

정경호. "한국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연구." *복음과 선교*. 33(2016): 173-211.

정경호.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삶." *신학과 목회*, 제34집(2010): 177-209.

정노화 외 3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체류외국인에 미친 영향 분석.” *다문화와 평화*16, no.1(2022): 123-147.

정노화. “국내 이주민 체류현황과 변화." *KIMA포럼*, no. 2(2023): 14-29.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13권 1호 (2004): 511-25.

최봉도.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대학과 선교*, Issue 21(2011): 203-230.

황정미.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07, no.19-2(2007): 2-229.

홍성혁. "구약성서에 나타난 다문화 수용의 특징." *선교와 신학*, Vol. 52(2020): 467-499.

논문

김만하. "한국군 간부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 연구: 다문화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2018.

김소리. "갈등관계의 타자를 포용하는 통일지도자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1.

김제선. "다문화가정 사역을 통한 교회성장 연구 전략."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1.

김해성. “구약성서의 외국인이주자 개념과 한국 이주자 선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06.

박광영.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8.

박시은. "룻기를 통해 본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지역공동체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2021.

박영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적 기독교선교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2011.

방은숙. "주일학교 교사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0.

서미경.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4.

이바울. "다문화 사역을 통한 선교적 교회 모델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2014.

이선영. "재한 외국인 유학생 선교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23.

이원기. "한국 개신교 목회자의 이주민 대상 목회 경험과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 교육대학원, 2021.

이은성, "다문화 사회의 인식과 다문화 선교."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2014.

정미경. "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기독교 이주민선교의 방향과 과제."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2010.

정현곤,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선교적 접근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5.

정혜원.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융합선교 전략."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9.

진병규.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2018.

최신일. "한국교회의 이주민선교 실태 및 개선 방향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2015.

하은경.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9.

한진순. "교회의 해외자원봉사활동 경험이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2019.

황종하. “한국교회의 다문화 목회 유형 연구.” 박사학위논문, 개신대학원대학교, 2020.

홍종효. "농촌교회 다문화가정 목회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2011.

인터넷 및 기타

공공데이터포털.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데이터.” 2024년 12월 23일. https://www.data.go.kr/data/15114749/fileData.do

국민일보. "여의도순복음교회 안산에 다문화센터 개관," 2024년 7월 8일. https://m.kmib.co.kr/view.asp?arcid=0007415217.

국민일보. "재단법인 사랑과행복나눔 출항," 2024년 7월 8일.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55&second_category_id=79&id=114774.

국민일보. "한국 이주자 선교 노하우 한자리에," 2024년 7월 8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1369683.

국민일보. "글로벌엘림재단, 8개국 유학생에 장학금 전달", 2024년 7월 29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917768.

노영상. "다문화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 모델에 대한 탐구." 칠봉산 블로그. 2024년 3월 9일. https://blog.naver.com/karamos/80153213376.

뉴스핌. "외국인 유학생 취업," 2024년 6월 17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409000934.

네이버사전. "환대." 2024년 6월 11일.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93694dc826a44cf98c6ac57c01a3dd5.

메디컬뉴스. “출산율 또 역대 최저 ... 인구소멸 위기 ‘성큼’.” 2024년 3월 4일. https://mobile.hidoc.co.kr/healthstory/news/C0000865901.

서울신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24년 3월 1일. https://www.seoul.co.kr/news/life/religion-news/2016/12/20/20161220002009.

순복음가족신문. "국제사역국,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2024년 7월 8일.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3&second_category_id=252&id=123108.

순복음가족신문. "글로벌엘림재단 창립," 2024년 7월 8일.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4&second_category_id=24&id=111150.

순복음가족신문. "잔드라 구나완 전도사 선교사 파송," 2024년 7월 8일.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2&second_category_id=15&id=94690.

순복음가족신문. "제1회 다 함께 하는 다문화축제," 2024년 7월 8일.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4&second_category_id=24&id=94818.

순복음가족신문. "2013년 이영훈 목사 신년대담," 2024년 7월 8일.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3&second_category_id=252&id=123214.

순복음가족신문. "다문화선교회 창립”, 2024년 7월 29일.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4&second_category_id=23&id=95933.

순복음가족신문. "외국어예배부, 3개국 언어로 감사 365 영상 올려", 2024년 7월 29일.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4&second_category_id=23&id=108967.

순복음가족신문. "사랑과행복나눔재단 다문화가정 및 취약가정 위해 1억원 지원", 2024년 7월 29일.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55&second_category_id=79&id=115655.

순복음가족신문.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사랑과행복나눔재단", 2024년 7월 29일.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55&second_category_id=79&id=115835.

순복음가족신문. "다문화선교회 유정아 성도 가족 생계지원", 2024년 7월 29일.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4&second_category_id=24&id=100159.

순복음가족신문. "굿피플 사랑의 의료봉사", 2024년 7월 29일.
http://fgnews.co.kr/front/view.do?first_category_id=4&second_category_id=24&id=91941.

여성가족부.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 발표.” 2024년 3월 1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501376.

조선일보. “인구감소, 흑사병 때보다 빨라.” 2024년 3월 3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12/03/DY4M57RRIVCC5JGFCWABKU5QVI.

조선일보. "이영훈 목사의 새 도전 '외국인 정착 지원'", 2024년 7월 29일.
https://www.chosun.com/culture-life/relion-academia/2023/03/01/BY2ZBQ3GGBCXFDESUKFHFJMBRQ.

통계청. “다문화 인구 통계.” 2024년 3월 1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1501&conn_path=I2

한국기독공보. “교단 이주민선교 참여 현황.” 2024년 3월 9일.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9809568937.

한국기독공보. "2009 한국 이주자선교 엑스포," 2024년 7월 8일.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4432056004.

한국문화홍보서비스. “국내이주배경인구 증가.” 2024년 3월 1일.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1282.

한국성결신문. "한국 개신교인 수." 2024년 3월 1일. https://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13.

Bible.org. "An Effective Servant," 2024년 6월 13일. https://bible.org/seriespage/lesson-29-effective-servant-luke-71-10.

Bible Study Tools. "Acts 10," 2024년 6월 14일. https://www.biblestudytools.com/commentaries/matthew-henry-complete/acts/10.html.

CBE International. "Jesus and the Canaanite Woman: An Exception for Exceptional Faith," 2024년 6월 13일. https://www.cbeinternational.org/resource/jesus-and-canaanite-woman/.

Center for Excellence in Preaching. "Luke 10:25-37," 2024년 6월 13일 액세스. https://cepreaching.org/commentary/2022-07-04/luke-1025-37-3/.

Crosswalk. "the Canaanite Woman’s Faith," 2024년 6월 13일. https://www.crosswalk.com/faith/bible-study/what-can-we-learn-from-the-canaanite-womans-faith.html.

ENDURING WORD. " The encounter between Jesus and the Samaritan woman," 2024년 6월 13일. https://enduringword.com/bible-commentary/john-4/.

ENDURING WORD. "THE CONVERSION OF GENTILES," 2024년 6월 14일. https://chatgpt.com/c/304739f9-5a71-49f9-98a3-42ce7c5ff1e7.

Got Questions. "dogs eat the crumbs," 2024년 6월 13일. https://www.gotquestions.org/even-the-dogs-eat-the-crumbs.html.

Religion Online. "How to interpret multicultural missions?," 2024년 6월 22일 액세스. https://www.religion-online.org/article/missiology-in-a-pluralistic-world-the-place-of-mission-study-in-theological-education/.

SERMON Writer. "Luke 10:25-37," 2024년 6월 14일. https://sermonwriter.com/biblical-commentary/new-testament-luke-1025-37/.

TGC. " The encounter between Jesus and the Samaritan," 2024년 6월 13일. 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samaritan-woman-savior/.

THE MOORINGS. "Herod's Reaction vs. the Magi's Response," 2024년 6월 13일. https://www.themoorings.org/Bible_commentary/Gospels/Matthew_2_1-12.html.

THE MOORINGS. "Commentary on Acts 10," 2024년 6월 14일. https://www.themoorings.org/Bible_commentary/Acts/chapter_10.html.

Working Preacher. " The encounter between Jesus and the Samaritan," 2024년 6월 13일. https://www.workingpreacher.org/commentaries/revised-common-lectionary/epiphany-of-our-lord/commentary-on-matthew-21-12-5.